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

2015. 4

KOREA INSTITUTE OF FINANCE kif

목 차

Ⅰ. 연구배경 ····· 1

Ⅱ. 금융인력 현황조사 및 분석 ····· 4
1. 조사 ····· 4
가. 조사대상 ····· 4
나. 조사방법 ····· 7
2. 현황 분석결과 ····· 14
가. 개요 ····· 14
나. 세부 항목별 금융인력 현황 ····· 21
다. 기술금융 인력 현황 ····· 41
라. 금융보안 인력 현황 ····· 48
마. 시간제 일자리 현황 ····· 61
바. 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 ····· 69
3.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 ····· 93
가. 조사현황 및 개요 ····· 93
나. 조사결과 ····· 94
다. 2014년 채용 계획 및 실적간의 차이 분석 ····· 111

Ⅲ.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 113
1.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 ····· 113
가. 실물경제 성장 전망 ····· 113
나. 금융산업 성장 전망 ····· 115
2. 금융권 인력수요 전망 ····· 119
가. 추정방법 ····· 120
나. 금융업권별 인력 수요 전망 ····· 124
다. 직무별 인력 수요 전망 ····· 133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라. 학력별 인력 수요 전망 ····· 137
마.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 ····· 138
3. 금융관련 전공별, 학위별,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전망 ····· 141
가. 전공기준 인력 공급 전망 ····· 141
나. 학위기준 인력 공급 전망 ····· 144
다. 자격증보유기준 인력 공급 전망 ····· 148

Ⅳ. 시사점 ····· 152

부 록 ····· 161

표 목 차

<표 Ⅱ-1> 금융인력 현황 조사 설문회수율 ····· 4
<표 Ⅱ-2> 조사일정 ····· 5
<표 Ⅱ-3> 국내 금융기관 인력현황 및 응답기관 인원 ····· 6
<표 Ⅱ-4> 조사항목 ····· 7
<표 Ⅱ-5> 금융업 직무 해설표 ····· 9
<표 Ⅱ-6> 자격증 분류표 ····· 11
<표 Ⅱ-7> 어학성적 환산 참고표 ····· 12
<표 Ⅱ-8> 업권별 전수화 가중치 ····· 13
<표 Ⅱ-9> 고용형태별 인력 비중 ····· 14
<표 Ⅱ-10> 성별 인력 비중 ····· 17
<표 Ⅱ-11> 직무별 인력 비중 ····· 17
<표 Ⅱ-12>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 18
<표 Ⅱ-13> 연령별 인력 비중 ····· 18
<표 Ⅱ-14>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 19
<표 Ⅱ-15> 학력별 인력 비중 ····· 19
<표 Ⅱ-16> 전공별 인력 비중(대졸자 대상) ····· 20
<표 Ⅱ-17> 업권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 21
<표 Ⅱ-18> 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 22
<표 Ⅱ-19> 전산업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23
<표 Ⅱ-20> 전산업 남자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23
<표 Ⅱ-21> 전산업 여자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24
<표 Ⅱ-22>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규모 (1) ····· 24
<표 Ⅱ-23>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규모 (2) ····· 25
<표 Ⅱ-24> 업권별 남녀 비중 ····· 26
<표 Ⅱ-25> 업권별 직무 비중 ····· 27
<표 Ⅱ-26> 직무별 남녀 고용 비중 ····· 28
<표 Ⅱ-27> 여성의 직무 분포 비중 ····· 29
<표 Ⅱ-28> 업권별 급여 수준 비중 ····· 31
<표 Ⅱ-29> 성별 급여 수준 비중 ····· 31
<표 Ⅱ-30> 업권별 연령 비중 ····· 32
<표 Ⅱ-31> 성별 연령 비중 ····· 33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32>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 34
<표 Ⅱ-33>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 35
<표 Ⅱ-34> 업권별 학력 비중 ····· 36
<표 Ⅱ-35> 성별 학력 비중 ····· 37
<표 Ⅱ-36>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 38
<표 Ⅱ-37>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 39
<표 Ⅱ-38>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 40
<표 Ⅱ-39> 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 40
<표 Ⅱ-40> 기술금융 인력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 41
<표 Ⅱ-41> 기술금융 인력 남녀 비중 ····· 42
<표 Ⅱ-42> 기술금융 인력 급여 수준 비중 ····· 43
<표 Ⅱ-43> 기술금융 인력 연령 비중 ····· 44
<표 Ⅱ-44> 기술금융 인력 총 근무기간 비중 ····· 45
<표 Ⅱ-45> 기술금융 인력 학력별 남녀 비중 ····· 45
<표 Ⅱ-46> 기술금융 인력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 46
<표 Ⅱ-47>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금융인력 현황 ····· 47
<표 Ⅱ-48>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 48
<표 Ⅱ-49> 금융보안 인력 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 49
<표 Ⅱ-50>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남녀 비중 ····· 50
<표 Ⅱ-51>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급여 수준 비중 ····· 51
<표 Ⅱ-52> 금융보안 인력 성별 급여 수준 비중 ····· 51
<표 Ⅱ-53>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연령 비중 ····· 52
<표 Ⅱ-54> 금융보안 인력 성별 연령 비중 ····· 53
<표 Ⅱ-55>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 54
<표 Ⅱ-56> 금융보안 인력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 55
<표 Ⅱ-57>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학력 비중 ····· 56
<표 Ⅱ-58> 금융보안 인력 성별 학력 비중 ····· 57
<표 Ⅱ-59>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 58
<표 Ⅱ-60>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 58
<표 Ⅱ-61> 금융보안 인력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 59
<표 Ⅱ-62> 금융보안 인력 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 60
<표 Ⅱ-63> 시간제 일자리 현황 ····· 61
<표 Ⅱ-64>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남녀 비중 ····· 61
<표 Ⅱ-65>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급여수준 비중 ····· 62
<표 Ⅱ-66> 시간제 일자리 성별 급여수준 비중 ····· 63
<표 Ⅱ-67>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연령 비중 ····· 64
<표 Ⅱ-68> 시간제 일자리 성별 연령 비중 ····· 65
<표 Ⅱ-69>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 66
<표 Ⅱ-70> 시간제 일자리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 66
<표 Ⅱ-71>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학력 비중 ····· 67
<표 Ⅱ-72> 시간제 일자리 성별 학력 비중 ····· 68
<표 Ⅱ-73> 신규채용 현황 ····· 69
<표 Ⅱ-74> 고용형태별 신규채용 현황 ····· 69
<표 Ⅱ-75> 성별 신규채용 현황 ····· 70
<표 Ⅱ-76> 업권별 신규채용 현황 ····· 70
<표 Ⅱ-77> 급여수준별 신규채용 현황 ····· 71
<표 Ⅱ-78> 연령별 신규채용 현황 ····· 71
<표 Ⅱ-79> 근무기간별 신규채용 현황 ····· 72
<표 Ⅱ-80> 학력별 신규채용 현황 ····· 72
<표 Ⅱ-81> 전공별 신규채용 현황(대졸자 대상) ····· 73
<표 Ⅱ-82> 업권별 이·퇴직자 현황 ····· 74
<표 Ⅱ-83> 업권별 남성 이·퇴직자 현황 ····· 75
<표 Ⅱ-84> 업권별 여성 이·퇴직자 현황 ····· 76
<표 Ⅱ-85>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 77
<표 Ⅱ-86>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 78
<표 Ⅱ-87> 급여수준별 이·퇴직자 현황 ····· 79
<표 Ⅱ-88> 연령별 이·퇴직자 현황 ····· 80
<표 Ⅱ-89> 신규채용 계획 ····· 81
<표 Ⅱ-90> 고용형태별 신규채용 계획 ····· 81
<표 Ⅱ-91> 성별 신규채용 계획 ····· 82
<표 Ⅱ-92> 업권별 신규채용 계획 ····· 82
<표 Ⅱ-93> 업권별 남녀 신규채용 계획 ····· 83
<표 Ⅱ-94> 급여수준별 신규채용 계획 ····· 83
<표 Ⅱ-95> 연령별 신규채용 계획 ····· 84
<표 Ⅱ-96> 학력별 신규채용 계획 ····· 84
<표 Ⅱ-97> 전공별 신규채용 계획(대졸자 대상) ····· 85
<표 Ⅱ-98> 업권별 이·퇴직자 전망 ····· 86
<표 Ⅱ-99> 업권별 남성 이·퇴직자 전망 ····· 87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100> 업권별 여성 이·퇴직자 전망 ····· 88
<표 Ⅱ-101>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전망 ····· 89
<표 Ⅱ-102>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전망 ····· 90
<표 Ⅱ-103> 급여수준별 이·퇴직자 전망 ····· 91
<표 Ⅱ-104> 연령별 이·퇴직자 전망 ····· 92
<표 Ⅱ-105> 추가채용 규모 조사대상기관 ····· 93
<표 Ⅱ-106> 업권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 94
<표 Ⅱ-107> 직무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 94
<표 Ⅱ-108> 고용형태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 95
<표 Ⅱ-109>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 96
<표 Ⅱ-110> 업권별 남녀 채용예상규모 ····· 97
<표 Ⅱ-111> 직무 분류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 98
<표 Ⅱ-112> 직무 분류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 99
<표 Ⅱ-113> 급여수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 100
<표 Ⅱ-114> 급여수준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 101
<표 Ⅱ-115> 연령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 102
<표 Ⅱ-116> 연령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 103
<표 Ⅱ-117> 근무기간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 104
<표 Ⅱ-118> 근무기간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 105
<표 Ⅱ-119> 학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 106
<표 Ⅱ-120> 학력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 107
<표 Ⅱ-121> 대학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 108
<표 Ⅱ-122> 대학 전공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 109
<표 Ⅱ-123> 대학원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 110
<표 Ⅱ-124> 2014년 실제 채용 규모와 채용 계획과의 차이 ····· 112
<표 Ⅲ-1> 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 115
<표 Ⅲ-2>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 ····· 117
<표 Ⅲ-3> 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 118
<표 Ⅲ-4>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 122
<표 Ⅲ-5> 고용탄력성 ····· 123
<표 Ⅲ-6> 금융인력 수요 전망 ····· 125
<표 Ⅲ-7> 금융인력 수요 증가율 전망 ····· 125
<표 Ⅲ-8> 업권별 인력비중 ····· 126
<표 Ⅲ-9>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 127
<표 Ⅲ-10>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 127
<표 Ⅲ-11>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 128
<표 Ⅲ-12>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 129
<표 Ⅲ-13>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전망 ····· 130
<표 Ⅲ-14>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 추이 전망 ····· 132
<표 Ⅲ-15>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 132
<표 Ⅲ-16>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 133
<표 Ⅲ-17>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 133
<표 Ⅲ-18>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 134
<표 Ⅲ-19>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 135
<표 Ⅲ-20>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 136
<표 Ⅲ-21>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 137
<표 Ⅲ-22>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 137
<표 Ⅲ-23>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 138
<표 Ⅲ-24> 전산업 및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 및 증가율 ····· 138
<표 Ⅲ-25>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 ····· 139
<표 Ⅲ-26> 산업 대분류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 ····· 139
<표 Ⅲ-27> 서비스업 세분류 업종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 ····· 140
<표 Ⅲ-28> 전공별 취업대상자 ····· 142
<표 Ⅲ-29> 전공별 입학생 추이 ····· 143
<표 Ⅲ-30> 전공별 입학생 증가율 추이 ····· 143
<표 Ⅲ-31> 금융인력 공급규모 : 전공기준 ····· 144
<표 Ⅲ-32> 학위별 취업대상자 ····· 145
<표 Ⅲ-33> 학위별 입학생 추이 ····· 146
<표 Ⅲ-34> 학위별 입학생 증가율 추이 ····· 146
<표 Ⅲ-35> 금융인력 공급규모 : 학위별 기준 ····· 147
<표 Ⅲ-36> 금융관련 자격증 응시인원 현황 ····· 148
<표 Ⅲ-37> 금융관련 자격증 합격자 현황 ····· 149
<표 Ⅲ-38> 금융관련 전문인력 현황 ····· 150
<표 Ⅲ-39> 금융인력 공급규모 : 자격증별 기준 ····· 151
<표 Ⅳ-1>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총자산이익률(ROA) 추이 ····· 155
<표 Ⅳ-2> 국내은행의 해외영업 비중 추이 ····· 155
<표 Ⅳ-3> 업권별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력 현황 ····· 16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그 림 목 차

<그림 Ⅲ-1> 경제성장률 ····· 113
<그림 Ⅲ-2> 잠재성장률 전망치 ····· 114
<그림 Ⅲ-3> 2014～2018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 ····· 115
<그림 Ⅲ-4>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 116
<그림 Ⅲ-5>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 117
<그림 Ⅲ-6> 금융업 취업자수 ····· 120
<그림 Ⅲ-7> 금융업 부가가치 ····· 121
<그림 Ⅲ-8> 금융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 124
<그림 Ⅲ-9>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의 전년대비 차이 ····· 129

요 약

Ⅰ. 연구배경

▣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으로의 중개기능을 제공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미래의 성장동력인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임.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그동안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에 치중해오면서 금융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국제성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임.

○ 우리 금융산업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핵심적 과제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그리고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목적으로 함.

○ 금융업권별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종사자의 직무, 전공 등 특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인력 기초통계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 확장정도를 예측하여 금융인력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자 함.

○ 금융회사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분석

1. 조사

▣ 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2014년도 금융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음.

○ 이번 금융인력 현황 조사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은행 37개사, 보험 24개사, 증권/선물 59개사, 자산운용/신탁 72개사, 상호저축은행 78개사, 여신전문 45개사 등 총 1,163개임.

▣ 2014년 조사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기관 직원의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시장 인력구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

○ 상기 조사항목 중 '직무' 부분은 8개 그룹으로 중분류된 기준을 기초로 하여 29개의 세분류된 직무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음.

○ 금번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음.

2. 현황 분석결과

가. 금융인력 현황

1) 고용형태별 현황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인력구조는 정규직이 88.6%, 비정규직이 11.4%를 차지하고 있음.

○ 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권은 신협(93.4%), 은행(92.5%), 보험(89.6%)이고, 여신전문은 정규직 비율이 73.6%로 타 업권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67.6%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이 다른 산업에서의 고용에 비하여 정규직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2) 성별 현황

▣ 조사대상인 7개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여성 고용비율은 46.2%로 나타남.

○ 업권별 여성 고용비율은 보험이 49.4%로 가장 높고, 은행(48.7%), 여신전문(47.1%), 신협(42.9%), 상호저축(40.3%), 증권/선물(35.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권은 자산운용/신탁(29.2%)으로 조사됨.

3) 직무별 현황

▣ 조사대상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인력 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마케팅(60.27%)이며, 다음으로 경영관리(14.50%), 영업지원(4.94%), 보험(3.19%), 자산관리(2.94%), 자산운용(2.30), 투자은행(1.16%) 순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 업권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서 영업·마케팅 직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무별 여성 인력의 고용비율은 영업·마케팅 직무가 49.8%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영업지원(44.3%), 자산관리(35.3%), 보험(33.6%), 경영관리(30.1%) 직무 순으로 여성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 영업·마케팅 직무의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고객을 접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하는 창구영업 등에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금융계 관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4) 급여수준별 현황

▣ 전체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61.1%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 및 증권/선물의 1.5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중은 각각 9.8% 및 5.7%로 전체 평균인 2.5%를 크게 웃돌고 있음.

5) 연령별 현황

▣ 연령별로 2014년 금융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30대(38.8%)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31.5%), 20대(17.6%), 50대 이상(11.3%), 20대 이하(0.8%)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금융인력 구조는 중간층이 두터운 항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업권별로 50대 이상 연령 비중을 보면, 신협과 은행이 각 각 16.0%로 업권 전체 평균인 11.3%보다 높고, 이어 자산운용/신탁(10.0%), 증권/선물(8.6%), 상호저축(7.9%), 보험(5.0%), 여신전문(4.1%) 순으로 나타남.

6) 근무기간별 현황

▣ 금융기관 전체 종사자의 금융업 총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43.3%로 높게 나타났음.

○ 업권별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을 보면, 은행(52.6%)이 가장 높고 이어 보험(42.9%), 신협(42.4%), 증권/선물(30.0%), 여신전문(27.5%), 상호저축(14.1%), 자산운용/신탁(12.0%) 순으로

나타남.

7) 금융인력 교육

▣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51.9%로 과반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21.1%), 전문대졸(14.3%), 대학원졸(12.7%)의 순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을 보면, 자산운용/신탁이 93.3%로 가장 높고, 이어 증권/선물(77.8%), 상호저축(66.6%), 은행(64.4%), 여신전문(62.3%), 보험(58.9%), 신협(45.5%) 순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대졸자의 전공은 경영/회계 23.2%, 공학 16.6%, 인문/사회 14.7%, 법학 11.6%, 경제 9.2%, 전산 7.6%, 기타 17.1%로 나타남.

○ 전공 분류 중 기타 항목은 2013년 조사에서는 48.8%를 기록하였는데, 2014년 조사에서 전공 항목의 세분화로 기타 전공 비율이 17.1%로 현저히 감소함.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MBA 27.2%, 공학 13.5%, 전산 4.0%, 인문/사회 3.1%, 경영/경제 2.9% 순으로 나타남.

나. 기술금융 인력 현황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 중 기술금융 인력은 남성은 277명, 여성은 19명으로 총 296명인 것으로 조사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다만 기술금융 인력 현황은 조사대상 금융기관 중 은행 6개, 상호저축 2개 기관만 응답하여, 전수화하기에는 응답률이 너무 낮아서 동 수치는 전수화하지 않은 수치를 보고함.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인력은 정규직 비중이 91.2%, 비정규직 비중이 8.8%로 나타남.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88.6%인 점을 감안하면, 기술금융에서의 정규직 비중은 전체 정규직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금융 인력 중 남성비율은 93.6%로 남성이 기술금융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비율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기술금융 종사 여성비율은 조사 금융기관 전체의 여성 고용비율 46.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

▣ 기술금융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94.0%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65.2%인 것과 비교하면 기술금융 직무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술금융 직무의 인력구조는 40대(66.1%)가 가장 많고, 그 뒤로 30대(17.6%), 50대 이상(11.6%), 20대(4.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대 이하의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금융 종사자의 총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81.5%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48.5%에 달함.

○ 금융기관 전체의 10년 이상 근무자 비중이 43.3%인 것을 감안하면, 기술금융 종사자들의 근속연수가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음.

▣ 전체 기술금융 인력 중 대졸 비율이 45.9%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대학원졸(29.1%), 고졸(23.2%), 전문대졸(1.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술금융 종사자 중 대졸자의 전공은 경영/회계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사회 18.5%, 경제 15.2%, 공학 10.1%, 법학 5.1%, 전산 1.7%로 조사됨.

다. 금융보안 인력 현황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금융보안 인력은 전체 금융인력의 0.8%를 차지함.

▣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금융보안 인력은 정규직 비중이 94.6%, 비정규직 비중이 5.4%로 나타남.

○ 금융보안 인력의 정규직 비중이 높은 업권은 보험(96.9%), 은행(95.3%), 상호저축(95.1%), 증권/선물(93.7%), 여신전문(92.2%), 자산운용/신탁(78.2%) 순으로 나타남.

▣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용비율은 조사대상 7개 금융업권 전체에서 14.4%로 나타남.

○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용비율이 높은 업권은 여신전문(20.5%), 보험(18.8%), 증권/선물(13.9%), 은행(11.4%), 상호저축(7.4%) 순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 금융기관에서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직원 중 연 5,000만원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7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금융보안 직무 종사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비율은 5,000~7,500만원 미만 구간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억~1.5억원 미만 23.6%, 7,500만원~1억원 미만 21.9%, 2,500~5,000만원 미만20.8%, 1.5억 이상 1.8%, 2,500만원 미만 1.6%이었음.

▣ 금융보안 직무의 인력구조는 40대(42.9%)가 가장 많고, 이어 30대(34.8%), 50대 이상(11.6%), 20대(10.4%), 20대 이하(0.3%)의 순으로 조사됨.

○ 다만 은행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는 30대 비율이 40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금융보안 종사자의 총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53.0%로 높게 나타났으며, 5년 미만 31.7%, 20년 이상 20.3% 순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 금융인력 전체의 10년 이상 근무자 비중이 43.3%인 것과 비교하면 금융보안 직무의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긴 것을 알 수 있음.

▣ 금융보안 종사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61.8%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이어 대학원졸(17.0%), 고졸(11.7%), 전문대졸(9.5%)의 순으로 나타남.

○ 금융보안 인력의 대졸이상 비율은 78.8%로, 전체 금융인력 중 대졸이상 비율이 64.6%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 전체 금융보안 인력 중 대졸자의 전공은 경제 48.5%, 인문/사회 17.2%, 공학 13.3%, 전산 10.8%, 법학 3.1%, 경영/회계 2.6%로 나타남.

○ 전체 금융보안 인력 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경영/경제 22.7%, 공학 11.8%, 인문/사회 10.9%, MBA 9.9%, 전산 1.9% 순으로 나타남.

라. 시간제 일자리 현황

▣ 시간제 근로자 수는 은행을 중심으로 총 1,506명인 것으로 조사됨.

○ 금융기관의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87.1%로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 금융기관에서 시간제 근로자 중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일자리의 인력구조는 30대(35.0%)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27.8%), 20대(27.5%), 50대 이상(8.6%), 20대 미만(1.0%)의 순으로 조사됨.

▣ 7개 업권 전체의 시간제 근로자 중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전체의 81.7%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여신전문과 은행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시간제근로자가 각각 100.0%, 93.1%인 것으로 나타남.

○ 업권 전체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1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42.9%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대졸(33.4%), 전문대졸(21.9%), 대학원졸(1.8%) 순으로 많음.

마. 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

▣ '13.9월~'14.8월 말 입직자 수는 신규 14,158명, 경력 9,108명으로 총 23,266명인 것으로 조사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3.9월~’14.8월 말 입직자 수를 살펴보면, 신규직은 정규직으로 35.7%, 경력직은 48.8%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

○ 해당기간 동안 신규직의 경우 여성인력이 67.1%의 높은 비중으로 채용되었으며, 경력직의 경우 남성인력이 63.7%를 차지함.

○ 신규직 채용비율은 은행이 89.5%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직 채용비율은 자산운용/신탁이 7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금융기관 이·퇴직 현황 설문에 응답한 기관들의 ‘13.9월~’14.8월 말 기간의 총 이·퇴직자 수는 27,590명인 것으로 조사됨.

○ 업권별로는 보험, 증권/선물, 은행에서 해당기간 동안 이·퇴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자산운용/신탁(89.0%), 보험(88.8%)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여신전문(43.5%), 정년퇴직자 비율은 은행(5.2%)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해당기간의 정규직 이·퇴직자는 총 16,298명으로 전체 인원 중 59.5%를 차지하고 있음.

○ 정규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8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업권별로는 보험(95.2%), 자산운용/신탁(93.6%), 여신전문(90.1%)의 자발적 이직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남.

▣ 해당기간의 비정규직 이·퇴직자는 총 11,083명으로 전체인원 중 40.5%를 차지하고 있음.

○ 비정규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4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규직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10.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 특히 은행(69.5%), 여신전문(61.1%)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발적 이직 비율이 높은 업권은 신협(81.6%), 보험(77.7%), 자산운용/신탁(72.3%)으로 조사됨.

▣ ‘14.9월~’15.8월 말 입직자 예상 수는 신규 4,518명, 경력 2,391명으로 총 6,909명인 것으로 조사됨.

○ ‘14.9월~’15.8월 말 입직자 예상수를 살펴보면, 신규직은 정규직으로 63.4%, 경력직은 38.7%를 채용할 것으로 예상됨.

○ 업권별로 살펴보면 신규직 예상 채용비율은 은행이 86.3%로 가장 높고, 경력직 예상 채용비율은 자산운용/신탁이 80.8%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기관 이·퇴직 현황 설문에 응답한 기관들의 ‘14.9월~’15.8월 말 기간의 총 이·퇴직자 전망은 5,562명인 것으로 조사됨.

○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자산운용/신탁(88.2%), 보험(85.2%)이 높고,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여신전문(44.4%), 정년퇴직자 비율은 은행(11.2%)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비정규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4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규직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3.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가. 조사현황 및 개요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 1,365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1년 이내(2014년 9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금융기관 중 306개의 기관에서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나. 조사 결과

1 전체

▣ 응답 금융기관들의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는 총 5,056명으로 조사됨.

○ 은행과 증권/선물 업권에서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의 70.1%를 채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2 세부 채용 예상 규모

▣ 고용형태별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보험, 증권/선물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과반수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임.

○ 업권별 정규직 예상채용 비율은 자산운용/신탁(79.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협(77.1%), 여신전문(71.6%), 은행(68.5%), 상호저축(65.6%), 보험(48.9%), 증권/선물(21.3%) 순으로 나타남.

○ 업권별 여성의 채용 예상 비율은 신협(52.6%), 보험(52.3%), 은행(51.1%)이 과반수를 넘고, 이어 상호저축(39.8%), 여신전문(35.4%), 증권/선물(26.8%), 자산운용/신탁(19.8%) 순으로 조사됨.

▣ 신입직의 채용은, 직무별로는 영업·마케팅, 급여수준별로는 2,500~5,000만원 미만구간, 연령대별로는 20대, 학력별로는 대졸자, 전공별로는 경영/회계 전공자의 채용 예정 인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 2014년 채용 계획 및 실적간의 차이 분석

▣ 2014년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32.4%의 인원을 계획보다 많이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

○ 2014년중에는 계획했던 채용인원보다 실제 채용인원이 1,986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증가율로는 32.4%가 늘어남.

○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에서 채용 계획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195.9%)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이 증가율이 높았음.

▣ 다만 실제 채용 규모와 채용 계획과의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2014년에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많았다고 해서 2015년에도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보다는 2015년 중 경제상황, 금융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Ⅲ.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

1.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

가. 실물경제 성장 전망

▣ 우리나라 실질 GDP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3년에는 3.6%이지만 2040년에는 1.7%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추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거나 상회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의 경제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5년간인 2015~2019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함.

○ 추정결과 우리경제는 2015년과 2016년에는 3.7%, 2017년에는 3.6%, 2018에는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나. 금융산업 성장 전망

▣ 2014년중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427.7조원이며 이중 금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82.6조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중 5.79%를 차지함.

○ 1970년 이후 전산업 실질부가가치중 금융업 실질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 이후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1995년 이후 5.5%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치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함.

○ 시나리오 1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실질부가가치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 2는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는 시나리오이며, 마지막 시나리오 3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에 비해 더 느리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임.

○ 다만 각 시나리오별 상·하한은 2000~2014년중 변동폭의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상한은 '2014년 비중 + 2×표준편차', 하한은 '2014년 비중 - 2×표준편차'로 정하였음.

▣ 2015~2019년중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치를 이용하여 2015~2019년중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2014년중 82.6조원이었던 부가가치가 2019년에는 106.9조원으로, 시나리오 2에서는 98.5조원으로, 시나리오 3에서는 90.0조원으로 증가함.

2. 금융권 인력수요 전망

가. 추정방법

▣ 201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 취업자수는 80.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만명 감소함.

○ 2004년 73.7만명이었던 금융업 취업자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1.3만명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는 8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2001년 금융업 부가가치 규모는 43조원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5.4%씩 성장하여 2014년에는 83조원까지 성장함.

▣ 금융업 부가가치와 금융업 취업자수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실시함.

○ 검정결과 두 변수간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어서 두 변수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 증가율이 취업자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하기로 함.

○ 이는 고용탄력성이 부가가치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파악하기에 가장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임.

▣ 1993년 이후 금융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취업자수는 연평균 1.9%씩, 부가가치는 연평균 5.9%씩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업 고용탄력성은 1.9/5.9로 약 0.32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업에서 부가가치가 1% 늘어나면 취업자수는 0.32% 늘어남을 의미함.

○ 2014년 현재 금융업 취업자수가 83.7만명임을 감안할 때 금융업 부가가치가 1% 늘어나면 금융업 취업자수는 83.7만명×0.32%에 해당하는 2,678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나. 금융업권별 인력 수요전망

▣ 위와 같은 가정을 근거로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해 보면 시나리오 1에서는 매년 14,686명, 시나리오 2에서는 매년 9,805명, 그리고 시나리오 3에서는 매년 4,694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증가율로 보면 시나리오 1은 1.6~1.8%, 시나리오 2는 1.1~1.2%, 그리고 시나리오 3은 0.5~0.6% 정도의 금융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위의 금융인력 수요 증감은 해당년도의 입직자와 이직자를 가감한 순증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1) 금융업권별 인력비중이 불변인 경우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4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함.

○ 예를 들면 향후 5년간 은행권 취업자수 비중은 전체에서 48.7%를 차지하는 등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이 경우 각 시나리오별 취업자수를 보면 2019년이 되면 은행의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443,512명, 시나리오 2에서는 433,624명, 시나리오 3에서는 419,174명으로 나타남.

○ 은행 이외의 업권에 대해서는 본문의 <표>를 참고하길 바람.

2) 금융업권별 인력비중이 변하는 경우

①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의 변화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앞서 언급한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4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가정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한 금융업권별 인력전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이후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저축은행의 자산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보험, 증권, 자산운용/신탁, 여신 등의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은행 자산의 경우 2008년말에는 전체 금융권 자산의 70.4%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6월말에는 59.5%로 1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은행자산은 매년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1.23%p 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보험은 매년 0.65%p 씩, 증권/선물은 매년 0.48%p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 5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19년이 되면 은행 비중은 53.4%로, 보험 비중은 25.4%로 증권/선물 비중은 10.9%로 달라지게 됨.

○ 예를 들면 은행 비중은 2014년에 59.5%이었으나 매년 1.23%p 하락하여 2015년에는 58.3%, 2016년에는 57.1% 등으로 낮아지게 됨.

②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전망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계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별 자산규모와 취업자수의 장기시계열이 필요

○ 그러나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data를 확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일관된 업권별 분류도 가능하지 않음.

▣ 또한 자산의 변화가 금융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업권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서민밀착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에는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많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업권별로 자산비중이 달라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업권별 자산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은 상당한 전망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업권별 자산비중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향후 추세정도라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의 오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업권별로 자산비중의 증가율이 금융인력 수요 비중의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자 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즉 은행의 경우 2015년에 자산비중이 2.1% 하락했는데 이 때 금융인력 수요 비중도 동일하게 2.1% 하락한 것으로 가정함.

▣ 이 경우 각 시나리오별 취업자수를 보면 2019년이 되면 은행의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391,992명, 시나리오 2에서는 381,486명, 시나리오 3에서는 370,482명으로 나타남.

○ 은행 이외의 업권에 대해서는 본문의 <표>를 참고하길 바람.

다. 직무 및 학력별 인력 수요전망

▣ 향후 5년간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직무별 인력비중이 2014년 금융인력조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

○ 이 경우 각 시나리오별 취업자수를 보면 2019년이 되면 영업·마케팅의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548,725명, 시나리오 2에서는 534,018명, 시나리오 3에서는 518,614명으로 나타남.

○ 영업·마케팅 이외의 업권에 대해서는 본문의 <표>를 참고하길 바람.

▣ 한편 향후 5년간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학력별 인력비중이 2014년 금융인력조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함.

○ 이 경우 각 시나리오별 취업자수를 보면 2019년이 되면 대졸의 경우 시나리오 1에서는 472,325 명, 시나리오 2에서는 459,665명, 시나리오 3에서는 446,406명으로 나타남.

○ 대졸 이외의 업권에 대해서는 본문의 <표>를 참고하길 바람.

라.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

▣ 2014년중 취업자수는 2,559.9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13%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수는 83.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13% 감소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취업자수 통계를 이용하여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2014년의 경우 전산업은 2.13% 증가하였는데 이중 금융/보험업의 기여도는 -0.11%p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3. 금융관련 전공별, 학위별,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가. 전공기준 인력 공급 전망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공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공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제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경상계열 취업대상자는 56,120명인 것으로 추정됨.

○ 교육통계연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부전공별 졸업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대계열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경상계열 졸업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계열 대비 각 항목별 평균비중을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취업대상자 수를 추정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2014년 경제·경영의 취업대상자는 48,296명, 금융·회계·세무는 7,815명으로 추정됨.

▣ 2011~2015년 입학생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졸업생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매년 55,476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2015년에는 57,009명, 2016년에는 56,787명, 2017년에는 55,498명, 2018년에는 54,455명, 그리고 2019년에는 53,631명으로 추정됨.

○ 전공별로 보면, 경제·경영은 매년 47,742명, 금융·회계·세무는 7,725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나. 학위기준 인력 공급 전망

▣ 학위별 졸업상황을 보면, 2014년 대학의 취업대상자는 31,441명, 전문대학은 22,837명, 대학원은 1,842명으로 추정됨.

▣ 향후 5년간 학위별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보면, 대학은 매년 31,080명, 전문대학은 22,575명, 대학원은 1,821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 대학의 공급규모는 2015년 31,939명에서 2019년 30,047명으로 감소하면, 전문대학도 2015년 23,199명에서 21,824명으로 감소할 전망

다. 자격증보유기준 인력 공급 전망

▣ 금융투자부문 자격시험의 응시인원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보험부문 자격증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소폭 감소

○ 금융투자부문 자격증별로 보면, 2013년 펀드투자상담사는 55,314명, 증권투자상담사는 26,260명, 파생상품투자상담사는 21,707명, 금융투자분석사는 1,296명이 시험에 응시하였음.

○ 보험부문의 경우, 2013년 손해사정사가 2,7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계리사가 929명, 보험중개사가 362명 순으로 나타남.

▣ 금융투자부문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응시인원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보험부문의 경우 평균 787명이 매년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2013년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합격자수는 2010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보험부문 자격증별로 보면,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는 합격자가 늘어나는 반면, 보험중개사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금융투자부문 금융인력 공급규모는 2015년 238,285명에서 2019년 175,09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부문은 2015년 2,987명에서 2019년 3,458명으로 증가할 전망

○ 최근 3년간 자격시험 합격자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향후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였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Ⅳ. 시사점

1 금융권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본 조사에 따르면 2014년중 금융업 일자리는 전산업 평균 일자리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하락하였음.

○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권에서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IT·금융 융합에 대응한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으며, 저금리·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금융회사 해외영업이 활발해 지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2003~2013년 중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총자산이익률은 평균 0.89%로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인 0.67%를 현격히 상회하는 등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수익성은 국내점포에 비해 우수한 편임.

2 금융인력 글로벌 역량 강화

▣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별도의 해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해외진출은 현지 언어가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해외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언어 능통자를 현지에 보내는 경향

○ 또한, 중간 관리자의 경우 현지에서 6개월 정도의 OJT를 거쳐 임명되는 등 현지 적응기간이 매우 짧은 것도 현실적인 문제

▣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현지 및 본사 국제부서에서 활약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 금융기관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점포 근무자를 업무능력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선정할 필요

○ 기존의 지역전문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해외점포 근무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경우 지역전문가가 해당 지역 점포로 파견될 것으로 기대

3 기술금융 및 금융보안 인력 확충

▣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은 금융부문의 핵심기능으로 정착

○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실물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에 해당

○ 기술기업의 창업 및 성장, 발전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정책적 측면에서 핵심과제로 정착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향후 효과적인 기술금융체계 마련은 거시경제 측면이나 사회경제 측면, 금융발전 측면, 글로벌 경쟁력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기술금융의 발전은 신기술(new & innovative technology)을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

○ 또한 기술금융의 확산은 리스크 자본(risk capital)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위험분담을 통한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

○ 향후 기술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은 중장기 경제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서 금융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新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술금융 인력은 전체 금융인력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음.

○ 비록 각 금융기관들이 기보 등 외부의 기술평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술금융 인력은 296명이고, 기술보증기금 등 외부 전문 기술평가기관까지 포함해도 977명에 불과하지만, 독일의 슈바인바이스 재단은 약 5,000명, 영국의 British Technology Group은 약 9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관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신용정보보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정보와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 또한 신용정보의 처리 절차를 엄격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제재 상향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

○ 그리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

▣ 금융보안과 관련된 신뢰성을 회복을 위해 금융권도 금융보안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의 금융인력 재교육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본 조사의 한계점

▣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조사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으나, 청소, 비서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인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의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Ⅰ.연구배경

□ 금융산업은 실물부문으로의 중개기능을 제공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미래의 성장동력인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임.

○ 특히 우리 경제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은 한층 더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그동안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에 치중해오면서 금융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국제성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 국내 1위 은행의 자산규모는 글로벌 Top5의 1/10 수준이며 해외점포 자산비중은 해외 주요금융기관의 60%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태임.

○ 금융산업의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주요국의 8%대에 비해 크게 낮은 6%대에 머물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이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지니고 있음.

○ 금융이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지닌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면 종국적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지원도 어려워지게 됨.

○ 또한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노령층을 중심으로 안전자산 또는 미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

□ 우리 금융산업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의 확보가 핵심적 과제임.

○ 금융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금융시장의 정보문제를 해결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지식 및 능력이 전문적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전문적인 금융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으로서의 발전동력을 갖추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5년 6월 3일 대통령 주재 금융허브회의에서『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함.

○ 민간전문가 중심으로『금융양성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 관점의 금융전문인력 양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6년 6월 14일 부총리 주재「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 바 있음.

□ 그리고 2007년 12월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매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음.

○ 금융연구원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통계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

○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인력수급 전망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2013년부터는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금융연구원에서 통계조사사업 및 수급전망 연구를 다시 수행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현재 금융인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력에 대한 자세한 현황조사와 더불어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 전망을 목적으로 함.

○ 금융업권별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종사자의 직무, 전공 등 특성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금융인력 기초통계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성장 및 금융산업 확장정도를 예측하여 금융인력의 수급전망을 실시하고자 함.

○ 금융회사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금융인력 현황조사 및 분석

1. 조사

가. 조사대상

1) 국내 금융기관 현황

□ 금융연구원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2014년도 금융인력 현황을 조사하였음.

○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중인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선물, 보험(생명·손해보험사), 자산운용/신탁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신용카드사, 리스할부사, 신기술금융사), 신협(신용협동조합) 등 7개 업권 1,36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 중 이번 금융인력 현황 조사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은행 37개사, 보험 24개사, 증권/선물 59개사, 자산운용/신탁 72개사, 상호저축은행 78개사, 여신전문 45개사 등 총 1,163개임.

<표 Ⅱ-1> 금융인력 현황 조사 설문회수율

(단위: 개, %)

구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상호저축	여신			신협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		신용카드	리스할부	신기술		
영업기관	58	25	31	61	86	7	11	87	9	46	18	926	1,365
응답회사	37	15	9	52	65	7	7	78	7	27	11	848	1,163
회수율(%)	63.8	60.0	29.0	85.2	75.6	100.0	63.6	89.7	77.8	58.7	61.1	91.6	85.2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조사 현황

□ 본 조사는 2014년 9월~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동 기간동안 자료 조사를 위한 관계자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조사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표 Ⅱ-2> 조사일정

일 자	조사 현황
2014. 9. 5	기초통계 조사 협조를 위한 관계자 회의
9. 7	금융전문인력 분과위원회 보고
9. 9	인사담당자 e-mail 파악
~10. 1	설문조사
~11. 31	조사독려
~12. 31	추가조사 및 조사종료

□ 2014년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1,365개의 금융기관 중 1,163개의 기관이 응답하여 85.2%의 응답률을 기록함.

○ 2013년 조사의 경우에는 1,383개 금융기관 중 1,070개의 금융기관이 응답하여 77.3%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는데, 2014년에는 85.2%가 응답하여 응답률이 1년 전에 비해 7.9%p 높아짐.

○ 응답기관 인원기준으로 보더라도 2013년 조사에서는 291,456명 중에서 206,699명이 응답하여 70.9%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286,218명중에서 231,702명이 응답하여 81.0%를 기록함.

<표 Ⅱ-3> 국내 금융기관 인력현황 및 응답기관 인원[1)]

(단위: 개, 명, %)

구 분	영업기관수	고용인원[2)]	응답기관수	응답기관 인원
은 행	58	139,430	37	131,891 (94.6)
보험	56	61,818	24	34,602 (56.0)
증권/선물	68	37,639	59	28,617 (76.0)
자산운용/신탁	97	5,731	72	3,165 (55.2)
상호저축	87	7,141	78	7,251 (101.5)
여신전문	73	24,728	45	17,800 (72.0)
신협	926	9,731	848	8,376 (86.1)
총 계	1,365	286,218	1,163	231,702 (81.0)

주 : 1) 영업기관수 및 고용인원은 2014년 6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신탁의 경우 협회자료 이용

2) 고용인원은 비상근임원을 제외한 총임직원과 기타 및 직원외인원이 포함된 수치임. 2013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시 비정규직(계약직)에 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비상근을 제외한 총임직원과 직원외 인원을 포함한 수치를 사용함. 직원외 인원은 촉탁 및 계약직, 파트 타이머 등을 포함함. 단, 은행의 경우 총임직원과 계약직을 포함한 직원외 인원, 해외근무임직원, 국외은행 임직원을 합한 수치에 비상근임원을 뺀 수치임.

3) ( )의 수치는 고용인원 대비 조사기관 인원의 비율임.

1) <참고> 금융통계월보 상 고용인원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총계
고용인원	137,124	63,522	42,796	5,948	7,570	25,909	18,091	300,960

자료: 금융통계월보

주: 금융권역별 고용인원은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금융월보」에 공시되어 있으나, 취합된 업무보고서가 상이하여 고용인원의 총합이 다를 수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나. 조사방법

□ 2014년 조사에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7개 업권 금융기관 직원의 81.0%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시장 인력구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

○ 과거 조사와 비슷하게 사회·경제·문화적인 현상과 금융인력시장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

○ 본 조사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외국계기관의 고용인원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금융기관 인력의 약 5.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기관과 외국계기관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음.

<표 Ⅱ-4> **조 사 항 목**

구 분	세 부 내 용
성별	남/여
직무	경영관리/영업·마케팅/영업지원/자산운용/자산관리/보험/투자은행/기타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총 근무기간	5년 미만/5~10년 미만/10~15년 미만/15~20년 미만/20년 이상
현직무 근무기간	현직무 5년 연속 근무자
직무연수	사내연수/외부연수/해외연수
자격증	변호사/회계사/국가기타/법정/공인/비공인/AICPA/CFA/FRM/국제기타
급여	2,500만원 미만/2,500~5,000만원 미만/5,000~7,500만원 미만/ 7,500~1억원미만/1억원~1.5억원 미만/1.5억원 이상
연령	20대 미만/20대/30대/40대/50대 이상
학력	고졸/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
전공	(대학) 경영·회계/경제/전산/법학/인문·사회/공학/기타
	(대학원) MBA/경영·경제/전산/인문·사회/공학/기타
어학능력	(영어) 상/중/하
	(제2외국어) 중국어/일본어/기타

□ 상기 조사항목 중 '직무' 부분은 8개 그룹으로 중분류된 기준을 기초로 하여 29개의 세분류된 직무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음.

○ 2013년도에는 7개 그룹, 27개의 세분류된 직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직무의 재분류 및 세부 직무항목을 추가해 8개 그룹, 29개 직무*로 조정하였음.

*** IT 보안, 기타(휴직자, 파견자) 추가**

□ 금번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규모'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3년의 경우 기초통계 조사와 더불어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가 실시됨.

○ 2014년 부가조사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채용계획 및 실제 채용 규모, 기간제 근로자,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음.

○ 그리고 자세한 성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항목마다 성별을 분류하여 조사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5> 금융업 직무 해설표

구 분	세부직무	직 무 개 요
경영 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경영기획, 경영평가, 예산, 자금, 회계, 세무
	인사·총무·홍보	인사, 노무관리, 교육, 비서, 사무행정, 총무, 자산관리, 언론홍보
	조사 연구· 리서치	경제 및 산업 분석, 금융동향 모니터링,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IT 시스템운영 및 개발	정보시스템관련 기획, 개발, 운영
	IT 보안	정보기기관리, 보안 등 관련업무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법무, 감사, 내부규율감독, 준법감시 등
영업· 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창구사무, 개인고객 여신심사 및 실행, 수신, 펀드, 신탁, 카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고객지원(콜센터)업무, 개인관련 외국환업무, 지점장, 보험영업소장 등
	기업영업(법인브로커)	기업영업, 기업여신심사 및 기업대상 방카슈랑스상품, 기타금융상품 판매, 수출입 외국환 관련업무
	상품개발	여수신상품, 펀드, 유가증권, 파생금융상품, 카드, 보험 및 기타자산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
	마케팅 기획· 고객관리	마케팅 전략기획, PR/광고, 고객관리
영업 지원	리스크관리	자산부채관리, 시장위험관리, 신용위험관리, 운영위험관리
	결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뒤 매도증권과 매수증권을 수수하는 업무
	채권추심	채무자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자산 운용	펀드(주식, 채권)	펀드거래 및 수익평가, 주식, 채권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파생상품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외환	단기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자산의 운용,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해외 발행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주식, 채권 등 기존투자대상이 아닌 제3의 자산에 대한 투자, PE, 헤지펀드, 부동산, 원자재, 금 투자 등
자산 관리	신탁	고객신탁의 기획, 운용 및 수탁재산의 관리, 기록 및 보고업무
	연금	퇴직연금, 종신연금, 개인연금 등 관리 및 고객의 연금투자계획 자문, 지급 등 연금계획과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
	투자자문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추천 등의 자문을 수행
	PB	거액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자산관리, 자산계획수립 지원 등
보험	Claim관리	클레임의 등록, 조사, 해결 등 클레임과 관련된 제반내용을 처리
	언더라이팅	보험가입 희망자의 건강상태, 직업, 취미 등의 고지내용과 청약내용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
	손해사정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수행
	보험계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투자 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국내의 PF과정에 참여, 심사 및 자문수행, 비유동성자산의 유동화, 회사보유 고유자산의 직접투자, 사모펀드 조성 및 투자 등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 Mgmt.)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주선, IPO등의 업무기획 및 개발, 이를 주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
	M&A	기업의 인수와 합병, 구조조정 등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휴직자, 파견자 등

<참고> 2013년 금융업 직무 해설표

구 분	세부직무	직 무 개 요
경영 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경영기획, 경영평가, 예산, 자금, 회계, 세무
	인사·총무·홍보	인사, 노무관리, 교육, 비서, 사무행정, 총무, 자산관리, 언론홍보
	조사 연구· 리서치	경제 및 산업 분석, 금융동향 모니터링,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IT	정보시스템관련 기획, 개발, 운영, 정보기기관리 등 관련업무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법무, 감사, 내부규율감독, 준법감시 등
영업· 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창구사무, 개인고객 여신심사 및 실행, 수신, 펀드, 신탁, 카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고객지원(콜센터)업무, 개인관련 외국환업무, 지점장, 보험영업소장 등
	기업영업(법인브로커)	기업영업, 기업여신심사 및 기업대상 방카슈랑스상품, 기타금융상품 판매, 수출입 외국환 관련업무
	상품개발	여수신상품, 펀드, 유가증권, 파생금융상품, 카드, 보험 및 기타자산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
	마케팅 기획· 고객관리	마케팅 전략기획, PR/광고, 고객관리
영업 지원	리스크관리	자산부채관리, 시장위험관리, 신용위험관리, 운영위험관리
	결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뒤 매도증권과 매수증권을 수수하는 업무
	채권추심	채무자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자산 운용	펀드(주식, 채권)	펀드거래 및 수익평가, 주식, 채권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파생상품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외환	단기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자산의 운용,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해외발행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주식, 채권 등 기존투자대상이 아닌 제3의 자산에 대한 투자, PE, 헤지펀드, 부동산, 원자재, 금 투자 등
자산 관리	신탁	고객신탁의 기획, 운용 및 수탁재산의 관리, 기록 및 보고업무
	연금	퇴직연금, 종신연금, 개인연금 등 관리 및 고객의 연금투자계획 자문, 지급 등 연금계획과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
	투자자문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추천 등의 자문을 수행
	PB	거액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자산관리, 자산계획수립 지원 등
보험	Claim관리	클레임의 등록, 조사, 해결 등 클레임과 관련된 제반내용을 처리
	언더라이팅	보험가입 희망자의 건강상태, 직업, 취미 등의 고지내용과 청약내용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
	손해사정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수행
	보험계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
투자 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국내의 PF과정에 참여, 심사 및 자문수행, 비유동성자산의 유동화, 회사보유 고유자산의 직접투자, 사모펀드 조성 및 투자 등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 Mgmt.)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주선, IPO등의 업무기획 및 개발, 이를 주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
	M&A	기업의 인수와 합병, 구조조정 등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상기 조사항목 중 '자격증' 부분은 국가자격, 법정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의 4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세부 자격증의 분류는 다음의 자격증 분류를 참고함.

<표 Ⅱ-6> 자격증 분류표

구 분	자격의 종류		
국가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법정자격	투자권유 자문인력	1종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2종	증권투자상담사
		3종	파생상품투자상담사
		4종	투자자문상담사
		5종	전문투자자상담사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상담관리사
	투자운용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조사분석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증권분석전문인력		자산평가분석사
	위험관리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집합투자전문인력		집합투자재산평가사
			집합투자재산계산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증권분석사		증권분석사
	보험판매인력		변액보험판매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민간자격	공인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관리사, 신용관리사, 재무설계사(AFPK)
	비공인		외환전문역1종/2종, 은행텔러,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언더라이터, 종합자산관리사(IFP), 기타
국제통용자격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기타		

□ 조사항목 중 '어학능력(영어)' 부분은 아래의 참고표를 기준으로 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조사함.

○ 어학능력(영어)은 TOEIC을 기준으로 875점 초과를 '상', 725~875점을 '중', 725점 미만을 '하'로 평가하고, TOEFL과 TEPS 및 OPIc의 성적은 아래의 어학성적 환산표를 참조하여 산정함.

<표 Ⅱ-7> 어학성적 환산 참고표

TOEIC	TOEFL			TEPS	OPIc	TOEIC	TOEFL			TEPS	OPIc
	CBT	iBT	PBT				CBT	iBT	PBT		
880	257	103	613	737~743	IM3	730	220	83	560	577~580	IM2
875	253	102	610	730~736	IM2	725	217	82	553	573~576	IM2
870	250	101	607	723~729	IM2	720	213	81	550	569~572	IM1

출처: TEPS관리위원회(2011.09기준).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

□ 업권 간의 응답률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표본편의(sample bias)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표본에 대한 전수화(全數化) 과정을 거쳐 분석을 시행

○ 업권별 분석에는 문제가 없으나, 각 업권의 자료를 통합하여 금융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응답률이 높은 업권에 의해 분석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의(bias)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권별 고용인원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적용하여 표본을 전수화하였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8> 업권별 전수화 가중치

업 권	가 중 치
은 행	1.057160837
보 험	1.78654413
증권/선물	1.315267149
자산운용/신탁	1.810742496
상호저축	0.984829679
여신전문	1.389213483
신협	1.161771729

주 : 가중치는 업권별로 [고용인원/응답기관인원]의 방법으로 산출함.

□ 한편 분석결과는 각 업권의 특성에 기인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권간 직접 비교는 해석상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예를 들면 보험업의 여성비중은 49.4%이고 자산운용/신탁업의 여성비중은 29.2%로, 두 업종의 여성비중은 20.2%p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데, 이와 같은 차이는 주로 업종별 특성이 기인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분석결과

가. 개요

□ 고용형태별 인력 비중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88.6%, 비정규직이 11.4%임.

○ 본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나와 있는 비정규 근로자 범위에 따르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 정의를 동일하게 사용함.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참고>를 참조하길 바람.**

○ 다만 본 조사에서는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은 제외하였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은 132,900명, 손해보험은 156,958명으로 나타나며, 전속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은 125,309명, 손해보험은 82,504명으로 나타남. 카드모집인의 경우에도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35,888명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간접고용 인력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사는 2015년 4월에 조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에 나와 있음.**

<표 Ⅱ-9> 고용형태별 인력 비중

(단위 : %)

구 분	인력비중
정규직	88.6
비정규직	11.4
계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비정규직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ㅇ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ㅇ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ㅇ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파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 가정 내 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 일일(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참고>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02. 7. 22.)**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 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성별 인력 비중

○ 조사대상 중 남성인력이 53.8%이고, 여성인력은 46.2%임.

<표 Ⅱ-10> 성별 인력 비중

(단위 : %)

구 분	인력비중
남성	53.8
여성	46.2
계	100.0

□ 직무별 인력 비중

○ 금융인력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마케팅(60.3%)이며, 다음으로 경영관리(14.5%), 영업지원(4.9%), 보험(3.2%), 자산관리(2.9%), 자산운용(2.3%), 투자은행(1.2%) 순으로 나타남.

<표 Ⅱ-11> 직무별 인력 비중

(단위 : %)

구 분	인력비중
경영관리	14.5
영업·마케팅	60.3
영업지원	4.9
자산운용	2.3
자산관리	2.9
보험	3.2
투자은행	1.2
기타	10.7
계	100.0

□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 급여수준별로는 2,500~5,000만원 소득자가 전체의 29.1%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5,000~7,500만원 미만(24.1%), 7,500만원~1억원 미만(17.9%), 1억~1.5억원 미만(16.6%), 2,500만원 미만(9.8%), 1.5억 이상(2.5%) 순으로 나타남.

<표 Ⅱ-12> 급여수준별 인력 비중

(단위 : %)

구 분	인력비중
2,500만원 미만	9.8
2,500~5,000만원 미만	29.1
5,000~7,500만원 미만	24.1
7,500만원~1억 미만	17.9
1억~1.5억 미만	16.6
1.5억 이상	2.5
계	100.0

□ 연령별 인력 비중

○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전체의 38.8%를 차지하고 40대가 31.5%, 20대 17.6%, 50대 이상 11.3%로 나타났으며, 20대 미만은 0.8%에 불과함.

<표 Ⅱ-13> 연령별 인력 비중

(단위 : %)

구 분	인력비중
20대 미만	0.8
20대	17.6
30대	38.8
40대	31.5
50대 이상	11.3
계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근무 기간별 인력 비중

○ 금융업 총 근무 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인력 비중이 37.7%이고, 20년 이상 22.0%, 5~10년 미만 19.0%, 15~20년 미만 10.9%, 10~15년 미만 10.4%로 나타남.

<표 Ⅱ-14> 근무기간별 인력 비중

(단위 : %)

구 분		인력비중
5년 미만		37.7
5~10년 미만		19.0
10년 이상		43.3
	10~15년 미만	10.4
	15~20년 미만	10.9
	20년 이상	22.0
계		100.0

□ 학력별 인력 비중

○ 학력별로는 대졸이 51.9%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고졸(21.1%), 전문대졸(14.3%), 대학원졸(12.7%) 순으로 나타남.

<표 Ⅱ-15> 학력별 인력 비중

(단위 : %)

구 분	인력비중
고졸	21.1
전문대졸	14.3
대졸	51.9
대학원졸	12.7
계	100.0

□ 전공(대졸)별 인력 비중

○ 대졸자의 전공별 인력 비중은 경영/회계(23.2%), 공학(16.6%), 인문/사회(14.7%), 법학(11.6%), 경제(9.2%), 전산(7.6%) 순으로 나타남.

<표 Ⅱ-16> 전공별 인력 비중(대졸자 대상)

(단위 : %)

구 분		인력비중
상경계		32.4
	경영/회계	23.2
	경제	9.2
전산		7.6
법학		11.6
인문/사회		14.7
공학		16.6
기타		17.1
계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나. 세부 항목별 금융인력 현황

1) 고용형태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인력구조는 정규직이 88.6%, 비정규직이 11.4%를 차지하고 있음.

○ 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권은 신협(93.4%), 은행(92.5%), 보험(89.6%)이고, 여신전문은 정규직 비율이 73.6%로 타 업권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67.6%[2]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에서의 고용이 다른 산업에서의 고용에 비하여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을 시사함.

<표 Ⅱ-17> 업권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정규직	253,458 (88.6)	129,028 (92.5)	55,372 (89.6)	31,001 (82.3)
비정규직	32,767 (11.4)	10,392 (7.5)	6,444 (10.4)	6,662 (17.7)
계	286,225 (100.0)	139,420 (100.0)	61,816 (100.0)	37,663 (100.0)
구분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정규직	4,956 (86.5)	5,799 (81.2)	18,210 (73.6)	9,093 (93.4)
비정규직	771 (13.5)	1,342 (18.8)	6,518 (26.4)	638 (6.6)
계	5,727 (100.0)	7,141 (100.0)	24,728 (100.0)	9,731 (100.0)

2)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산업/근로형태별 취업자 조사」 참조

(2) 성별 형태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 인력중에서 남성 정규직 비중은 91.3%, 여성 정규직 비중은 85.4%로, 남성의 정규직 비중이 5.9%p 더 높게 나타남.

<표 Ⅱ-18> 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구 분	남성	여성
정규직	91.3	85.4
비정규직	8.7	14.6
계	100.0	100.0

***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 형태**

	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
정규직	67.6	38.6	86.9	62.9	50.3	66.6	60.6	71.9
비정규직	32.4	61.4	13.1	37.1	49.7	33.4	39.4	28.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2014년 8월 기준)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19> 전산업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임금근로자		16,104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18,776
정규직		10,658	10,725	11,362	11,515	11,823	12,295	12,699
비정규직		5,445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33.8)	(34.9)	(33.3)	(34.2)	(33.3)	(32.6)	(32.4)
	한시적	60.4	60.9	57.7	57.4	57.6	57.7	57.7
	시간제	22.6	24.8	28.5	28.4	30.9	31.7	33.4
	비전형	39.2	39.7	40.3	40.5	38.7	37.2	34.8

주 : 1)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2014년 8월 기준)

<표 Ⅱ-20> 전산업 남자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임금근로자		9,366	9,515	9,783	10,034	10,134	10,392	10,635
정규직		6,667	6,833	7,134	7,242	7,377	7,634	7,809
비정규직		2,699	2,681	2,649	2,791	2,757	2,758	2,826
		(28.8)	(28.2)	(27.1)	(27.8)	(27.2)	(26.5)	(26.6)
	한시적	63.0	62.8	59.5	58.9	60.5	59.6	61.1
	시간제	13.8	13.7	16.1	16.8	18.4	19.1	20.8
	비전형	41.4	43.1	45.9	45.0	43.6	42.8	39.5

주 : 1)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2014년 8월 기준)

<표 Ⅱ-21> 전산업 여자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임금근로자		6,737	6,964	7,265	7,476	7,600	7,848	8,141
정규직		3,991	3,891	4,228	4,273	4,445	4,661	4,890
비정규직		2,746	3,073	3,037	3,203	3,154	3,187	3,251
		(40.8)	(44.1)	(41.8)	(42.8)	(41.5)	(40.6)	(39.9)
	한시적	57.8	59.4	56.1	56.1	55.0	56.1	54.8
	시간제	31.2	34.4	39.3	38.5	41.8	42.6	44.4
	비전형	37.1	36.7	35.4	36.5	34.4	32.4	30.7

주 : 1)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자료: 통계청(2014년 8월 기준)

<표 Ⅱ-22>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규모 (1)

(단위 : 천명,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비정규직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비율	농림어업	1.9	2.1	2.0	1.5	1.4	1.3
	광·제조업	9.1	9.2	9.0	8.5	8.5	8.3
	(제조업)	9.1	9.1	9.0	8.4	8.5	8.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89.0	88.7	89.0	90.0	90.1	90.5
	(건설업)	12.6	12.6	12.0	11.7	11.6	11.1
	(도소매·음식숙박업))	18.3	18.6	18.1	18.7	19.0	19.7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47.6	47.5	48.3	49.2	48.4	49.1
	(전기·운수·통신·금융)	10.4	10.0	10.6	10.4	11.0	10.6

자료: 통계청(2014년 8월 기준)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23>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규모 (2)

(단위 : 천명,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비정규직		5,754	5,685	5,995	5,911	5,946	6,077
비율	관리자・전문가	15.4	16.7	18.1	17.5	17.8	17.7
	사무 종사자	11.0	11.3	11.4	11.6	11.9	11.4
	서비스·판매 종사자	22.1	22.7	22.5	24.1	23.5	24.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4	0.6	0.5	0.5	0.4	0.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6.9	16.4	16.3	15.8	15.8	15.7
	단순노무 종사자	34.2	32.2	31.2	30.4	30.7	30.8

자료: 통계청(2014년 8월 기준)

2) 성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조사대상인 7개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여성 고용비율은 46.2%로 나타남.

□ 업권별 여성 고용비율은 보험이 49.4%로 가장 높고, 은행(48.7%), 여신전문(47.1%), 신협(42.9%), 상호저축(40.3%), 증권/선물(35.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권은 자산운용/신탁(29.2%)으로 조사됨.

<표 Ⅱ-24> 업권별 남녀 비중

(단위 : %)

구 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남성	53.8	51.3	50.6	64.4
여성	46.2	48.7	49.4	35.6
계	100.0	100.0	100.0	100.0
구 분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남성	70.8	59.7	52.9	57.1
여성	29.2	40.3	47.1	42.9
계	100.0	100.0	100.0	100.0

3) 직무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조사대상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인력 비중을 차지한 직무는 영업·마케팅(60.27%)이며, 다음으로 경영관리(14.50%), 영업지원(4.94%), 보험(3.19%), 자산관리(2.94%), 자산운용(2.30), 투자은행(1.16%) 순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 업권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서 영업·마케팅 직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은행의 영업·마케팅 직무에 투입된 인력 비율이 높은 것은 대고객 창구를 통한 개인영업을 위주로 하는 국내 은행의 특성을 반영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자산운용/신탁 업권의 경우 자산운용 직무 비중이 42.02%를 차지하고 이어 경영관리 직무 비중이 24.17%로 높게 나타남.

<표 Ⅱ-25> 업권별 직무 비중

(단위 : %)

구 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경영관리	14.50	8.39	19.71	19.02
영업·마케팅	60.27	66.66	59.64	49.62
영업지원	4.94	2.67	1.24	3.59
자산운용	2.30	0.76	1.26	5.67
자산관리	2.94	1.73	1.16	12.59
보험	3.19	0.01	14.71	0.01
투자은행	1.16	0.41	0.05	6.82
기타	10.70	19.38	2.24	2.67
계	100.0	100.0	100.0	100.0
구 분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경영관리	24.17	19.57	16.61	36.57
영업·마케팅	18.20	62.39	52.74	56.36
영업지원	5.37	14.88	25.92	5.55
자산운용	42.02	0.23	0.43	0.93
자산관리	9.29	0.01	0.02	-
보험	0.03	0.19	-	-
투자은행	-	0.23	0.57	-
기타	0.92	2.48	3.72	0.59
계	100.0	100.0	100.0	100.0

(2) 성별 형태

□ 직무별 여성 인력의 고용비율은 영업·마케팅 직무가 49.8%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영업지원(44.3%), 자산관리(35.3%), 보험(33.6%), 경영관리(30.1%) 직무 순으로 여성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 영업·마케팅 직무의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고객을 접하는 창구영업 등에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금융계 관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운용 및 투자은행 직무의 경우 여성 인력 비중이 각각 23.7%, 16.4%로 타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기타 항목인 휴직자, 파견자 등에서의 여성 비율은 63.0%로 높게 나타남.

<표 Ⅱ-26> 직무별 남녀 고용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경영관리	영업·마케팅	영업지원	자산운용	자산관리	보험	투자은행	기타
남성	53.8	69.9	50.2	55.7	76.3	64.7	66.4	83.6	37.0
여성	46.2	30.1	49.8	44.3	23.7	35.3	33.6	16.4	6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조사대상 금융기관에서 영업·마케팅 직무에 전체 여성인력의 65.0%가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권에서 여성인력이 영업·마케팅 직무에 편중되어 있음.

○ 여성인력이 영업·마케팅 직무에 편중된 업권은 상호저축(75.5%), 신협(72.5%), 보험(69.2%), 은행(67.4%), 증권/선물(56.9%), 여신전문(51.6%)으로 조사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자산운용/신탁 업권의 경우 영업·마케팅의 여성인력 비중이 17.1%로 낮은 반면, 경영관리 및 자산운용에 여성인력이 각각 33.6% 및 31.2%로 상대적으로 높음.

○ 은행의 경우 여성인력이 영업·마케팅 직무에 67.4% 분포되어 있으며, 그 외에 휴직자, 파견자 등을 포함한 기타 항목이 24.1%로 높게 나타남.

<표 Ⅱ-27> 여성의 직무 분포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경영관리	9.5	4.1	15.1	14.8
영업·마케팅	65.0	67.4	69.2	56.9
영업지원	4.7	1.8	0.7	5.5
자산운용	1.2	0.5	0.5	3.5
자산관리	2.2	1.9	0.6	10.2
보험	2.3	-	10.0	-
투자은행	0.4	0.2	-	3.1
기타	14.6	24.1	3.8	6.0
계	100.0	100.0	100.0	100.0
구분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경영관리	33.6	11.4	10.8	23.9
영업·마케팅	17.1	75.5	51.6	72.5
영업지원	10.3	7.5	31.2	1.5
자산운용	31.2	0.2	0.1	1.1
자산관리	5.7	-	-	-
보험	0.1	0.3	-	-
투자은행	-	-	0.1	-
기타	2.0	5.2	6.2	1.1
계	100.0	100.0	100.0	100.0

4) 급여수준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전체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61.1%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 금융기관 직원의 급여 수준에 따른 인력비율은 2,500만원 ~ 5,000만원 미만 구간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5,000만원 ~ 7,500만원 미만이 24.1%, 7,500만원 ~ 1억원 미만 17.9%, 1억원 ~ 1.5억원 미만 16.6%, 2,500만원 미만 9.8%, 1.5억원 이상이 2.5%이었음.

□ 업권별로는 자산운용/신탁 및 증권/선물의 1.5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중은 각각 9.8% 및 5.7%로 전체 평균인 2.5%를 크게 웃돌고 있음.

○ 1억 이상 연봉자의 비중은 2012년 9.9%, 2013년 16.5%, 2014년 19.2%로 꾸준히 증가함.

○ 2012년 이후 1억원 이상 연봉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고액연봉자가 증가한 데도 일부 기인하지만 고액연봉자 비중이 높은 은행권의 응답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은행권의 응답인원은 2012년 74,919명에서 2013년 113,531명으로 약 51.5%(38,612명 증가)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31,891명으로 전년대비 약 16.1% 증가함.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은행의 업권별 비중도 2012년 40.7%에 이어 2013년 47.4%로 크게 상승하였고, 2014년에는 48.7%로 상승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28> 업권별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구 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500만원 미만	9.8	12.8	5.3	5.0	2.4	14.9	6.6	18.3
2,500~5,000만원 미만	29.1	22.0	33.0	29.7	27.4	54.4	41.8	52.3
5,000~7,500만원 미만	24.1	19.1	31.0	29.8	25.6	21.8	29.4	22.2
7,500만원~1억 미만	17.9	21.0	15.7	19.0	18.7	5.5	12.3	6.3
1억~1.5억 미만	16.6	23.0	13.0	10.8	16.2	2.2	8.1	0.9
1.5억 이상	2.5	2.1	2.0	5.7	9.8	1.2	1.8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성별 형태

□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남성인력은 72.3%, 여성인력은 44.6%인 것으로 조사됨.

<표 Ⅱ-29> 성별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2,500만원 미만	13.1	4.9
2,500~5,000만원 미만	14.6	50.5
5,000~7,500만원 미만	23.2	25.3
7,500만원~1억 미만	21.1	13.0
1억~1.5억 미만	23.9	5.8
1.5억 이상	4.0	0.4
계	100.0	100.0

5) 연령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연령별로 2014년 금융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30대(38.8%)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31.5%), 20대(17.6%), 50대 이상(11.3%), 20대 미만(0.8%)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금융인력 구조는 중간층이 두터운 항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업권별로 50대 이상 연령 비중을 보면, 신협과 은행이 각각 16.0%로 업권 전체 평균인 11.3%보다 높고, 이어 자산운용/신탁(10.0%), 증권/선물(8.6%), 상호저축(7.9%), 보험(5.0%), 여신전문(4.1%) 순으로 나타남.

○ 30대 비율은 7개 업권 중 상호저축이 47.3%로 가장 높고, 이어 여신전문(46.4%), 자산운용/신탁(45.8%), 증권/선물(43.5%), 보험(43.3%), 신협(34.8%), 은행(33.7%) 순으로 나타남.

<표 Ⅱ-30> 업권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0대 미만	0.8	0.9	1.1	0.7	0.1	0.4	0.4	0.7
20대	17.6	16.7	17.2	14.9	14.4	24.6	24.6	22.8
30대	38.8	33.7	43.3	43.5	45.8	47.3	46.4	34.8
40대	31.5	32.8	33.5	32.3	29.7	19.8	24.5	25.6
50대 이상	11.3	16.0	5.0	8.6	10.0	7.9	4.1	1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남성은 40대가 40.7%, 30대 31.2%, 50대 이상이 18.8%인 것으로 조사됨.

○ 반면 20대 및 20대 미만은 각각 9.1%, 0.1%로 낮게 나타남.

□ 여성은 30대가 4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대가 27.5%, 40대 20.8%, 50대 이상 2.5%, 20대 미만 1.6% 순으로 나타남.

○ 금융권 남성인력 중 40대 이상 비율이 59.5%로 과반수인데 반해, 여성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은 23.3%에 불과함.

<표 Ⅱ-31> 성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20대 미만	0.1	1.6
20대	9.1	27.5
30대	31.2	47.6
40대	40.7	20.8
50대 이상	18.8	2.5
계	100.0	100.0

6) 근무기간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금융기관 전체 종사자의 금융업 총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43.3%로 높게 나타났음.

○ 금융인력의 근무기간별 비중은 5년 미만이 37.7%로 가장 높고 그 뒤로 20년 이상이 22.0%, 5~10년 미만이 19.0%, 15~20년 미만이 10.9%, 10~15년 미만이 10.4%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인력구조의 중간 부분인 10~20년 경력자의 비율이 낮은 표주박형 인력구조를 보이는 것은,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수익성 부진 등으로 금융기관의 신규 채용이 위축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업권별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을 보면, 은행(52.6%)이 가장 높고 이어 보험(42.9%), 신협(42.4%), 증권/선물(30.0%), 여신전문(27.5%), 상호저축(14.1%), 자산운용/신탁(12.0%) 순으로 나타남.

<표 Ⅱ-32>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5년 미만	37.7	31.0	39.4	40.3	61.3	69.4	53.5	36.6
5~10년 미만	19.0	16.4	17.8	29.7	26.7	16.5	19.0	21.0
10년 이상	43.3	52.6	42.9	30.0	12.0	14.1	27.5	42.4
10~15년 미만	10.4	8.0	12.7	11.4	7.5	8.5	15.0	16.9
15~20년 미만	10.9	10.2	16.1	10.3	3.5	2.5	7.3	11.9
20년 이상	22.0	34.5	14.0	8.3	1.0	3.1	5.3	1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성별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을 보면, 남성인력의 52.0%, 여성인력의 33.1%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것으로 조사됨.

○ 남성인력은 5년 미만 근속자(31.9%)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52.0%)이 높고, 인력구조의 중간층인 5~10년 미만 비율이 16.0%로 낮은 표주박형 인력구조를 보임.

○ 여성인력은 5년 미만 근속자(44.4%) 비율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력자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대체로 피라미드형 인력구조를 보임.

<표 Ⅱ-33>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5년 미만		31.9	44.4
5~10년 미만		16.0	22.5
10년 이상		52.0	33.1
	10~15년 미만	9.9	10.9
	15~20년 미만	12.7	8.9
	20년 이상	29.4	13.3
계		100.0	100.0

7) 학력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전체 금융기관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51.9%로 과반을 차지하고, 이어 고졸(21.1%), 전문대졸(14.3%), 대학원졸(12.7%)의 순으로 나타남.

○ 금융인력 중 대졸 비율은 2013년 59.5%에서 2014년 51.9%로 소폭 감소한 반면, 대학원졸 비율은 2013년 7.2%에서 2014년 12.7%로 증가하였음.

□ 업권별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을 보면, 자산운용/신탁이 93.3%로 가장 높고, 이어 증권/선물(77.8%), 상호저축(66.6%), 은행(64.4%), 여신전문(62.3%), 보험(58.9%), 신협(45.5%) 순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34>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고졸	21.1	24.6	23.2	9.5	3.1	14.4	16.7	26.1
전문대졸	14.3	11.0	18.0	12.7	3.6	19.0	21.0	28.4
대졸이상	64.6	64.4	58.9	77.8	93.3	66.6	62.3	45.5
대졸	51.9	52.2	48.6	58.6	53.1	57.4	51.0	42.3
대학원졸	12.7	12.2	10.3	19.2	40.2	9.2	11.3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전체 남성인력 중 대졸자는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인력의 경우 49.9%가 대졸자로 조사됨.

○ 고졸비율은 여성인력이 남성인력보다 높고 대학원졸업자 비율은 남성인력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Ⅱ-35> 성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고졸	17.5	24.1
전문대졸	8.4	19.0
대졸	54.3	49.9
대학원졸	19.8	7.0
계	100.0	100.0

8) 전공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대졸자의 전공은 경영/회계 23.2%, 공학 16.6%, 인문/사회 14.7%, 법학 11.6%, 경제 9.2%, 전산 7.6%, 기타 17.1%로 나타남.

○ 전공 분류 중 기타 항목은 2013년 조사에서는 48.8%를 기록하였는데, 2014년 조사에서 전공 항목의 세분화로 기타 전공 비율이 17.1%로 현저히 감소함.

○ 특히 2014년 조사에 추가된 공학 및 인문/사회 전공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남.

□ 신협 및 상호저축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대졸자 전공 비중은 경영/회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신협과 상호저축의 경우 공학 전공자가 각각 25.1%,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Ⅱ-36>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상경계	32.4	31.5	29.0	42.2	39.8	30.8	30.2	29.7
경영/회계	23.2	23.0	19.7	30.0	31.1	20.9	21.8	21.0
경제	9.2	8.4	9.3	12.2	8.7	9.9	8.4	8.7
전산	7.6	6.8	10.4	6.0	8.6	7.6	8.8	5.3
법학	11.6	9.1	19.6	10.1	8.7	11.3	11.7	8.2
인문/사회	14.7	15.3	14.1	13.4	15.4	13.2	15.1	13.0
공학	16.6	17.4	13.7	15.8	12.1	21.4	16.3	25.1
기타	17.1	19.9	13.3	12.4	15.4	15.7	17.9	1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MBA 27.2%, 공학 13.5%, 전산 4.0%, 인문/사회 3.1%, 경영/경제 2.9% 순으로 나타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37>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MBA	27.2	26.5	19.8	35.7	26.0	21.2	28.7	42.5
경영/경제	2.9	1.5	5.5	3.0	1.1	1.8	7.4	1.5
전산	4.0	3.4	5.2	3.9	3.2	4.7	6.0	5.9
인문/사회	3.1	2.1	2.9	4.8	6.1	2.4	3.6	1.1
공학	13.5	13.3	11.7	14.8	14.1	7.8	15.7	24.9
기타	49.3	53.3	54.8	37.8	49.5	62.1	38.7	2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성별 형태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 중 대졸자의 전공 비율은 남녀 모두 경영/회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인력의 경우 상경계(경영/회계 및 경제)와 인문/사회 전공자 비율이 각각 33.3%, 20.5%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인력의 경우 상경계(경영/회계 및 경제) 31.7%, 법학 18.9% 순으로 조사됨.

<표 Ⅱ-38>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상경계		33.3	31.7
	경영/회계	24.0	22.6
	경제	9.3	9.1
전산		5.0	9.9
법학		3.3	18.9
인문/사회		20.5	9.6
공학		5.6	3.7
기타		32.3	26.2
계		100.0	100.0

□ 전체 금융기관 종사자의 대학원 전공 비율은 남녀 모두 MBA, 공학, 전산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인력의 경우 MBA 전공자가 32.2%로 여성 MBA 전공자 비율이 15.5%인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Ⅱ-39> 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MBA	32.2	15.5
경영/경제	3.2	2.0
전산	4.1	3.8
인문/사회	3.9	1.3
공학	14.3	11.9
기타	42.3	65.4
계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다. 기술금융 인력 현황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 중 기술금융 인력은 남성 277명, 여성 19명으로 총 296명인 것으로 조사됨.

○ 다만 기술금융 인력 현황은 조사대상 금융기관 중 은행 6개, 상호저축 2개 기관만 응답하여, 전수화하기에는 응답률이 너무 낮아서 동 수치는 전수화하지 않은 수치를 보고함.

1) 고용형태별 현황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인력은 정규직 비중이 91.2%, 비정규직 비중이 8.8%로 나타남.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88.6%인 점을 감안하면, 기술금융에서의 정규직 비중은 전체 정규직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금융 직무에 종사 중인 남성의 정규직 비중은 92.4%, 여성의 정규직 비중은 73.7%로 남성인력의 정규직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표 Ⅱ-40> 기술금융 인력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정규직	91.2	92.4	73.7
비정규직	8.8	7.6	26.3
계	100.0	100.0	100.0

2) 성별 현황

□ 기술금융 인력 중 남성비율은 93.6%로 남성이 기술금융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비율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기술금융 종사 여성비율은 조사 금융기관 전체의 여성 고용비율 46.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

<표 Ⅱ-41> 기술금융 인력 남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93.6
여성	6.4
계	100.0

3) 급여수준별 현황

□ 기술금융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94.0%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기술금융 인력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급여 구간은 1억 ~ 1.5억원 미만이 49.2%, 7,500만원 ~ 1억원 미만이 31.9%, 5,000만원 ~ 7,500만원 미만이 11.0% 2,500만원 ~ 5,000만원 미만이 4.7%, 1.5억 이상이 2.0%, 2,500만원 미만이 1.3% 순으로 나타남.

○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65.2%인 것과 비교하면 기술금융 직무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기술금융 인력 중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남성은 96.7%에 달하고, 여성은 64.0%인 것으로 조사됨.

<표 Ⅱ-42> 기술금융 인력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500만원 미만	1.3	-	16.0
2,500~5,000만원 미만	4.7	3.3	20.0
5,000~7,500만원 미만	11.0	10.5	16.0
7,500만원~1억 미만	31.9	32.6	24.0
1억~1.5억 미만	49.2	51.4	24.0
1.5억 이상	2.0	2.2	-
계	100.0	100.0	100.0

4) 연령별 현황

□ 기술금융 직무의 인력구조는 40대(66.1%)가 가장 많고, 그 뒤로 30대(17.6%), 50대 이상(11.6%), 20대(4.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대 미만의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금융 직무에 종사하는 남성인력은 40대가 7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금융 종사 여성의 경우 20대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술금융 종사 남성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이 82.7%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반해, 여성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은 33.3%에 불과함.

<표 Ⅱ-43> 기술금융 인력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20대 미만	-	-	-
20대	4.7	0.7	40.0
30대	17.6	16.6	26.7
40대	66.1	70.5	26.7
50대 이상	11.6	12.2	6.7
계	100.0	100.0	100.0

5) 근무기간별 현황

□ 기술금융 종사자의 총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81.5%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48.5%에 달함.

○ 금융기관 전체의 10년 이상 근무자 비중이 43.3%인 것을 감안하면, 기술금융 종사자들의 근속연수가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음.

□ 기술금융 종사 남성인력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86.3%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 반면, 10년 이상 근속한 기술금융 종사 여성인력은 40.6%인 것으로 조사됨.

○ 기술금융 종사 남성인력은 20년 이상 근속자가 51.3%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인력의 경우 5년 미만 근무한 인력이 46.9%로 높게 나타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44> 기술금융 인력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5년 미만		11.9	7.7	46.9
5~10년 미만		6.6	5.9	12.5
10년 이상		81.5	86.3	40.6
	10~15년 미만	5.9	6.3	3.1
	15~20년 미만	27.1	28.8	12.5
	20년 이상	48.5	51.3	25.0
계		100.0	100.0	100.0

6) 학력별 현황

□ 전체 기술금융 인력 중 대졸 비율이 45.9%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대학원졸(29.1%), 고졸(23.2%), 전문대졸(1.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술금융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인력의 대졸 이상 비율은 각각 75.1%, 73.5%로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남.

<표 Ⅱ-45> 기술금융 인력 학력별 남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고졸	23.2	24.3	11.8
전문대졸	1.8	0.6	14.7
대졸	45.9	44.9	55.9
대학원졸	29.1	30.2	17.6
계	100.0	100.0	100.0

7) 전공별 현황

□ 기술금융 종사자 중 대졸자의 전공은 경영/회계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사회 18.5%, 경제 15.2%, 공학 10.1%, 법학 5.1%, 전산 1.7%로 조사됨.

○ 남성인력과 여성인력 모두 상경계(경영/회계 및 경제) 전공자가 각각 48.4%,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Ⅱ-46> 기술금융 인력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상경계		47.8	48.4	42.1
	경영/회계	32.6	32.7	31.6
	경제	15.2	15.7	10.5
전산		1.7	1.3	5.3
법학		5.1	5.7	-
인문/사회		18.5	18.2	21.1
공학		10.1	8.8	21.1
기타		16.9	17.6	10.5
계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광의의 기술금융 인력>

□ 본 조사에서 기술금융인력은 296명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서 기술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는 금융기관 자체 고용인력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외부 전문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함.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임.

○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와 신용 상거래 촉진을 위해 국책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이 설립한 기업신용조사 및 평가기관으로 국내최대의 기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나이스평가정보는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합병으로 설립되었는데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시장인지도를 바탕으로 개인신용평가 및 기업정보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 전담인력은 681명으로 파악되는데, 본 금융인력조사에서 파악된 296명을 합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총 977명의 기술금융 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Ⅱ-47>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금융인력 현황

(단위 : 명)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기술신용평가 전담인력	545	68	68
(전문인력)	(143)	(17)	(25)

라. 금융보안 인력 현황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금융보안 인력은 전체 금융인력의 0.8%를 차지함.

○ 금융보안 인력 현황은 전수화된 결과임.

1) 고용형태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금융보안 인력은 정규직 비중이 94.6%, 비정규직 비중이 5.4%로 나타남.

○ 금융보안 인력의 정규직 비중이 높은 업권은 보험(96.9%), 은행(95.3%), 상호저축(95.1%), 증권/선물(93.7%), 여신전문(92.2%), 자산운용/신탁(78.2%)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신협의 경우 응답 기관 중 금융보안 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없었음.

<표 Ⅱ-48>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정규직	2,237 (94.6)	1,004 (95.3)	495 (96.9)	292 (93.7)
비정규직	128 (5.4)	50 (4.7)	16 (3.1)	20 (6.3)
계	2,365 (100.0)	1,054 (100.0)	511 (100.0)	312 (100.0)
구분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정규직	39 (78.2)	76 (95.1)	331 (92.2)	0 (-)
비정규직	11 (21.8)	4 (4.9)	28 (7.8)	0 (-)
계	50 (100.0)	80 (100.0)	359 (100.0)	0 (-)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조사대상 금융기관에서 금융보안 직무에 종사 중인 남성의 정규직 비중이 94.9%, 여성 정규직 비중은 92.7%로 남성 정규직 비중이 여성 정규직 비중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 전체의 정규직 비중이 88.6%인 것을 감안하면 금융보안 직무에서의 정규직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치임.

<표 Ⅱ-49> 금융보안 인력 성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정규직	94.9	92.7
비정규직	5.1	7.3
계	100.0	100.0

2) 성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용비율은 조사대상 7개 금융업권 전체에서 14.4%로 나타남.

□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여성의 고용비율이 높은 업권은 여신전문(20.5%), 보험(18.8%), 증권/선물(13.9%), 은행(11.4%), 상호저축(7.4%) 순으로 조사됨.

○ 여성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권은 자산운용/신탁(1.8%)으로 조사됨.

<표 Ⅱ-50>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남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남성	85.6	88.6	81.2	86.1
여성	14.4	11.4	18.8	13.9
계	100.0	100.0	100.0	100.0
구분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남성	98.2	92.6	79.5	-
여성	1.8	7.4	20.5	-
계	100.0	100.0	100.0	-

3) 급여수준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조사대상 금융기관에서 금융보안에 종사하는 직원 중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7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금융보안 직무 종사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비율은 5,000~7,500만원 미만 구간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억~1.5억원 미만 23.6%, 7,500만원~1억원 미만 21.9%, 2,500~5,000만원 미만 20.8%, 1.5억 이상 1.8%, 2,500만원 미만 1.6%이었음.

○ 2014년 조사대상 금융기관 전체 직원 중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65.2%인 것과 비교하면, 금융보안 인력이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임.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51>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500만원 미만	1.6	2.3	0.7	-	-	3.7	1.6	-
2,500~5,000만원 미만	20.8	20.6	14.1	21.4	25.7	55.6	21.7	-
5,000~7,500만원 미만	30.2	22.0	41.9	34.8	28.6	38.3	32.9	-
7,500만원~1억 미만	21.9	18.5	28.1	32.6	45.7	2.5	18.2	-
1억~1.5억 미만	23.6	35.1	13.3	10.2	-	-	22.1	-
1.5억 이상	1.8	1.6	1.9	1.1	-	-	3.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 성별 형태

□ 금융보안 직무에 종사하는 남성 직원의 80.7%, 여성 직원의 59.2%가 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Ⅱ-52> 금융보안 인력 성별 급여 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2,500만원 미만	0.8	6.5
2,500~5,000만원 미만	18.5	34.3
5,000~7,500만원 미만	30.1	31.0
7,500만원~1억 미만	22.7	17.7
1억~1.5억 미만	25.8	10.5
1.5억 이상	2.1	-
계	100.0	100.0

4) 연령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금융보안 직무의 인력구조는 40대(42.9%)가 가장 많고, 이어 30대(34.8%), 50대 이상(11.6%), 20대(10.4%), 20대 미만(0.3%)의 순으로 조사됨.

○ 다만 은행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는 30대 비율이 40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Ⅱ-53>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0대 미만	0.3	0.2	-	0.9	-	-	0.8	-
20대	10.4	6.9	9.4	9.1	7.3	19.2	21.3	-
30대	34.8	23.2	45.5	47.2	49.1	48.7	38.4	-
40대	42.9	48.8	40.9	39.0	40.0	30.8	34.9	-
50대 이상	11.6	20.9	4.2	3.9	3.6	1.3	4.7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 성별 형태

□ 금융보안 직무 종사 남성인력 중 40대가 46.4%, 30대가 33.3%, 50대 이상 13.0%인 것으로 조사됨.

○ 금융권 종사 남성 중 20대 및 20대 미만은 각각 7.3%, 0.1%로 낮게 나타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금융보안 직무의 여성인력은 30대가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대 28.9%, 40대 22.0%, 50대 이상 3.3%, 20대 미만 1.5% 순으로 나타남.

○ 금융보안 남성인력 중 40대 이상 비율이 59.4%로 과반수인데 반해, 여성인력의 40대 이상 비율은 25.4%에 불과함.

□ 한편 금융보안 직무의 성별분포는 전체 조사대상 금융기관의 성별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남.

<표 Ⅱ-54> 금융보안 인력 성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20대 미만	0.1	1.5
20대	7.3	28.9
30대	33.3	44.2
40대	46.4	22.0
50대 이상	13.0	3.3
계	100.0	100.0

5) 근무기간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금융보안 종사자의 총 근무기간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의 비중이 53.0%로 높게 나타났으며, 5년 미만 31.7%, 20년 이상 20.3% 순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 금융인력 전체의 10년 이상 근무자 비중이 43.3%인 것과 비교하면 금융보안 직무의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긴 것을 알 수 있음.

□ 업권별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을 보면, 은행(70.8%)이 가장 높고 이어 보험(42.0%), 증권/선물(40.4%), 여신전문(39.5%), 자산운용/신탁(18.9%), 상호저축(18.5%) 순으로 나타남.

<표 Ⅱ-55>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5년 미만	31.7	18.9	38.1	34.8	43.4	74.1	46.9	-
5~10년 미만	15.2	10.3	19.9	24.8	37.7	7.4	13.6	-
10년 이상	53.0	70.8	42.0	40.4	18.9	18.5	39.5	-
10~15년 미만	16.9	9.7	29.0	19.6	18.9	12.3	19.4	-
15~20년 미만	15.8	24.8	8.0	13.9	-	3.7	7.0	-
20년 이상	20.3	36.2	4.9	7.0	-	2.5	13.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성별로 금융보안 직무의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을 보면, 남성인력은 55.5%, 여성인력 38.0%로 조사됨.

○ 남성인력은 5년 미만 근속자(29.8%)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55.5%)이 높고, 인력구조의 중간층인 5~10년 미만 비율이 14.7%로 낮게 나타남.

○ 여성인력은 5년 미만 근속자(43.5%) 비율이 높고 10~15년 미만(19.7%), 5~10년 미만(18.5%), 20년 이상(11.2%), 15~20년 미만 근속자(7.1%)로 나타남.

<표 Ⅱ-56> 금융보안 인력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5년 미만		29.8	43.5
5~10년 미만		14.7	18.5
10년 이상		55.5	38.0
	10~15년 미만	16.5	19.7
	15~20년 미만	17.3	7.1
	20년 이상	21.8	11.2
계		100.0	100.0

6) 학력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금융보안 종사 직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이 61.8%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이어 대학원졸(17.0%), 고졸(11.7%), 전문대졸(9.5%)의 순으로 나타남.

○ 금융보안 인력의 대졸이상 비율은 78.8%로, 전체 금융인력 중 대졸이상 비율이 64.6%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을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89.5%로 가장 높고, 이어 여신전문(88.3%), 자산운용/신탁(87.3%), 상호저축(81.3%), 증권/선물(79.8%), 은행(69.4%) 순임.

<표 Ⅱ-57>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고졸		11.7	22.2	2.4	3.4	-	5.0	4.1	-
전문대졸		9.5	8.4	8.0	16.7	12.7	13.8	7.5	-
대졸이상		78.8	69.4	89.5	79.8	87.3	81.3	88.3	-
	대졸	61.8	53.6	72.5	62.7	68.3	73.8	66.5	-
	대학원졸	17.0	15.8	17.1	17.2	19.0	7.5	21.8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성별로 금융보안 종사 남성인력의 56.9%, 여성인력의 94.7%가 대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 남성인력은 대학원 졸업자가 33.6%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인력의 경우 대부분의 인원이 대졸자(89.9%)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58> 금융보안 인력 성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고졸	24.7	2.2
전문대졸	18.4	3.1
대졸	23.3	89.9
대학원졸	33.6	4.8
계	100.0	100.0

7) 전공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전체 금융보안 인력 중 대졸자의 전공은 경제 48.5%, 인문/사회 17.2%, 공학 13.3%, 전산 10.8%, 법학 3.1%, 경영/회계 2.6%로 나타남.

○ 조사대상 전체 금융기관의 전공별 현황에서는 경영/회계 전공자 비율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상이한 결과임.

<표 Ⅱ-59>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상경계	51.1	55.1	41.8	52.1	74.4	59.3	49.7	-
경영/회계	2.6	2.2	1.0	2.7	4.7	-	6.2	-
경제	48.5	52.9	40.9	49.3	69.8	59.3	43.5	-
전산	10.8	10.2	17.8	5.5	2.3	5.1	8.5	-
법학	3.1	2.6	5.8	2.1	4.7	-	1.7	-
인문/사회	17.2	15.3	15.9	23.3	9.3	27.1	17.5	-
공학	13.3	12.4	15.9	12.3	9.3	5.1	14.7	-
기타	4.5	4.4	2.9	4.8	-	3.4	7.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전체 금융보안 인력 중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은 경영/경제 22.7%, 공학 11.8%, 인문/사회 10.9%, MBA 9.9%, 전산 1.9% 순으로 나타남.

<표 Ⅱ-60> 금융보안 인력 업권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MBA	9.9	10.7	4.1	17.5	-	16.7	10.3	-
경영/경제	22.7	23.3	26.5	17.5	-	16.7	24.1	-
전산	1.9	1.3	2.0	7.5	-	-	-	-
인문/사회	10.9	11.9	10.2	12.5	16.7	-	8.6	-
공학	11.8	9.4	14.3	2.5	-	-	22.4	-
기타	42.8	43.4	42.9	42.5	83.3	66.7	34.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금융보안 인력의 대졸자 전공 분포는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금융보안 종사 남성인력의 경우 전산 전공자가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공학(15.4%), 경영/회계(4.3%) 순으로 나타남.

○ 금융보안 종사 여성인력의 경우 경제 전공자가 57.1%로 과반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인문/사회 19.7%, 공학 12.9%로 조사됨.

<표 Ⅱ-61> 금융보안 인력 성별 대졸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상경계		7.4	59.4
	경영/회계	4.3	2.3
	경제	3.1	57.1
전산		51.2	3.1
법학		2.9	3.2
인문/사회		3.9	19.7
공학		15.4	12.9
기타		19.3	1.7
계		100.0	100.0

□ 전체 금융보안 직무 종사자 중 대학원 전공 분포 또한,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금융보안 종사 남성인력의 경우, 경영/경제(24.3%), 인문/사회(12.5%), MBA(11.0%), 공학(10.9%), 전산(2.3%) 순으로 조사됨.

○ 금융보안 종사 여성인력의 경우, 공학(16.1%), 경영/경제 (14.7%), MBA(4.2%), 인문/사회(3.2%) 순으로 나타났고, 전산 전공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Ⅱ-62> 금융보안 인력 성별 대학원 졸업자 전공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MBA	11.0	4.2
경영/경제	24.3	14.7
전산	2.3	-
인문/사회	12.5	3.2
공학	10.9	16.1
기타	39.0	61.8
계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마. 시간제 일자리 현황

□ 시간제 근로자 수는 은행을 중심으로 총 1,506명인 것으로 조사됨.

○ 시간제 일자리 현황은 전수화된 결과임.

<표 Ⅱ-63> 시간제 일자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일자리수	1,506	766	339	216	7	13	72	92
비중(%)	100.0	50.9	22.5	14.3	0.5	0.9	4.8	6.1

주 : 1) 2014년

1) 성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금융기관의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87.1%로 높게 나타남.

○ 7개의 모든 업권에서 시간제 근로자의 여성비율이 모두 과반수인 것으로 조사됨.

<표 Ⅱ-64>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남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남성	12.9	5.7	19.5	15.9	25.0	7.7	13.5	41.8
여성	87.1	94.3	80.5	84.1	75.0	92.3	86.5	5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급여수준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조사대상 금융기관에서 시간제 근로자 중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상호저축, 여신전문 업권에서는 모든 시간제 근로자가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증권/선물 업권에서는 99.3%, 보험 88.4%, 신협 59.4%, 자산운용/신탁 50.0%가 2,500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Ⅱ-65>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급여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1,000만원 미만	13.9	12.0	7.9	34.5	-	23.1	18.9	2.9
1,000~2,500만원 미만	81.0	88.0	80.5	64.8	50.0	76.9	81.1	56.5
2,500~5,000만원 미만	4.5	-	11.6	0.7	50.0	-	-	29.0
5,000~7,500만원 미만	0.4	-	-	-	-	-	-	7.2
7,500만원 ~1억 미만	0.2	-	-	-	-	-	-	2.9
1억 이상	0.1	-	-	-	-	-	-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시간제 근로자중 연 2,5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남성 직원은 84.6%, 여성 직원은 98.2%인 것으로 조사됨.

<표 Ⅱ-66> 시간제 일자리 성별 급여수준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1,000만원 미만	22.4	11.2
1,000~2,500만원 미만	62.3	87.0
2,500~5,000만원 미만	13.1	1.7
5,000~7,500만원 미만	1.3	0.1
7,500만원 ~1억 미만	0.7	-
1억 이상	0.3	-
계	100.0	100.0

3) 연령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시간제 일자리의 인력구조는 30대(35.0%)가 가장 많고, 이어 40대(27.8%), 20대(27.5%), 50대 이상(8.6%), 20대 미만(1.0%)의 순으로 조사됨.

○ 여신전문 업권에서는 모든 시간제 근로자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67>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0대 미만	1.0	1.1	1.1	-	-	-	-	3.1
20대	27.5	20.4	23.2	20.2	33.3	30.8	100.0	43.8
30대	35.0	45.1	36.8	27.6	33.3	15.4	-	15.6
40대	27.8	33.2	27.9	20.2	33.3	30.8	-	31.3
50대 이상	8.6	0.2	11.1	31.9	-	23.1	-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성별 형태

□ 남성 시간제 근로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53.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뒤로 50대 이상(25.3%), 40대(12.3%), 30대(8.3%), 20대 미만(0.6%)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연령대는 30대가 39.2%로 가장 많고, 40대 30.2%, 20대 23.5%, 50대 이상 6.1%, 20대 미만 1.1%인 것으로 조사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68> 시간제 일자리 성별 연령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20대 미만	0.6	1.1
20대	53.5	23.5
30대	8.3	39.2
40대	12.3	30.2
50대 이상	25.3	6.1
계	100.0	100.0

4) 근무기간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7개 업권 전체의 시간제 근로자 중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전체의 81.7%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여신전문과 은행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시간제근로자가 각각 100.0%, 93.1%인 것으로 나타남.

□ 업권 전체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1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신협과 상호저축의 경우 2년 이상 근무자가 각각 50.8%, 46.2%로 높게 나타남.

<표 Ⅱ-69>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6개월 미만	58.6	65.0	63.2	43.3	40.0	38.5	79.2	15.9
7~12개월 미만	23.1	28.1	12.1	28.7	20.0	7.7	20.8	22.2
13~24개월 미만	6.4	2.3	12.1	8.5	20.0	7.7	-	11.1
24~60개월 미만	6.4	2.7	8.9	9.1	20.0	23.1	-	19.0
60개월 이상	5.5	2.0	3.7	10.4	-	23.1	-	3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성별 형태

□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 중인 남성인력과 여성인력 모두 1년 미만의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남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2개월 미만 근로자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 8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Ⅱ-70> 시간제 일자리 성별 총 근무기간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6개월 미만	63.6	57.8
7~12개월 미만	12.4	24.8
13~24개월 미만	11.5	5.6
24~60개월 미만	1.2	7.2
60개월 이상	11.3	4.6
계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5) 학력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42.9%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대졸(33.4%), 전문대졸(21.9%), 대학원졸(1.8%) 순으로 많음.

○ 다만, 자산운용/신탁, 증권/선물, 여신전문의 경우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Ⅱ-71> 시간제 일자리 업권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고졸	42.9	51.7	42.9	20.0	-	70.0	18.9	42.0
전문대졸	21.9	16.0	25.8	30.0	-	20.0	39.6	21.7
대졸이상	35.2	32.3	31.3	50.0	100.0	10.0	41.5	36.2
대졸	33.4	31.6	28.6	46.4	80.0	10.0	41.5	33.3
대학원졸	1.8	0.7	2.7	3.6	20.0	-	-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성별 형태

□ 남성 시간제 근로자의 고졸 비율은 51.4%이며, 여성의 경우 고졸 비율이 41.6%로 조사됨.

○ 많은 수의 시간제 근로자가 고졸인 것을 알 수 있음.

<표 Ⅱ-72> 시간제 일자리 성별 학력 비중

(단위 : %)

구분	남성	여성
고졸	51.4	41.6
전문대졸	13.7	23.1
대졸	33.1	33.5
대학원졸	1.8	1.8
계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바. 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

□ 신규채용 및 이·퇴직 현황은 전수화 된 결과임.

1) 신규채용 현황

□ '13.9월~'14.8월 말 입직자 수는 신규 14,158명, 경력 9,108명으로 총 23,266명인 것으로 조사됨.

<표 Ⅱ-73> 신규채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신규	14,158	3,959	3,877	809	197	600	4,040	676
경력	9,108	464	2,012	2,653	770	1,329	1,664	217
계	23,266	4,423	5,888	3,462	967	1,928	5,704	893

□ 고용형태별 신규채용 현황

○ '13.9월~'14.8월 말 입직자 수를 살펴보면, 신규직은 정규직으로 35.7%, 경력직은 48.8%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

<표 Ⅱ-74> 고용형태별 신규채용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정규직	40.7	35.7	48.8
비정규직	59.3	64.3	51.2
계	100.0	100.0	100.0

□ 성별 신규채용 인력 현황

○ 해당기간 동안 신규직의 경우 여성인력이 67.1%의 높은 비중으로 채용되었으며, 경력직의 경우 남성인력이 63.7%를 차지함.

<표 Ⅱ-75> 성별 신규채용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남성	44.9	32.9	63.7
여성	55.1	67.1	36.3
계	100.0	100.0	100.0

□ 업권별 신규채용 현황

○ 해당기간에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이 60.9%, 경력직 채용이 39.1% 이루어짐.

○ 신규직 채용비율은 은행이 89.5%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직 채용비율은 자산운용/신탁이 79.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Ⅱ-76> 업권별 신규채용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신규	60.9	89.5	65.8	23.4	20.4	31.1	70.8	75.7
경력	39.1	10.5	34.2	76.6	79.6	68.9	29.2	2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급여수준별 신규채용 현황

○ 신규직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92.4%에 달하고, 경력직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45.7%인 것으로 조사됨.

<표 Ⅱ-77> 급여수준별 신규채용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2,500만원 미만	28.4	34.2	19.3
2,500~5,000만원 미만	49.2	58.2	35.0
5,000~7,500만원 미만	13.4	5.7	25.6
7,500만원~1억 미만	4.8	0.8	11.2
1억~1.5억 미만	2.3	0.5	5.1
1.5억 이상	1.9	0.7	3.7
계	100.0	100.0	100.0

□ 연령별 신규채용 현황

○ 신규직 채용자 중 30대 미만인 인력은 62.4%이며, 경력직의 경우 30대 이상이 8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78> 연령별 신규채용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20대 미만	3.9	6.2	0.2
20대	42.1	56.2	19.3
30대	33.2	25.1	46.3
40대	15.3	9.3	25.1
50대 이상	5.5	3.2	9.2
계	100.0	100.0	100.0

□ 근무 기간별 신규채용 현황

○ 신규직과 경력직 모두 근무기간 5년 미만인 인력이 채용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Ⅱ-79> 근무기간별 신규채용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5년 미만		97.8	99.7	94.9
5~10년 미만		0.8	0.1	2.0
10년 이상		1.3	0.2	3.1
	10~15년 미만	0.5	0.1	1.2
	15~20년 미만	0.3	-	0.9
	20년 이상	0.5	0.2	1.1
계		100.0	100.0	100.0

□ 학력별 신규채용 현황

○ 신규직과 경력직 모두 대졸자 비중이 각 각 53.0%, 62.4%로 높게 나타남.

<표 Ⅱ-80> 학력별 신규채용 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고졸	19.2	23.1	13.1
전문대졸	17.4	20.9	11.6
대졸	56.6	53.0	62.4
대학원졸	6.8	3.0	12.8
계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전공(대졸)별 신규채용 현황

○ 신규직과 경력직 모두 상경계 전공자 비율이 각각 34.8%, 45.1%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문/사회 전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Ⅱ-81> 전공별 신규채용 현황(대졸자 대상)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상경계		39.2	34.8	45.1
	경영/회계	27.1	23.6	31.9
	경제	12.1	11.2	13.2
전산		5.7	4.4	7.6
법학		4.1	3.5	5.0
인문/사회		16.0	16.9	14.7
공학		6.1	6.1	6.2
기타		28.9	34.3	21.5
계		100.0	100.0	100.0

2) 이·퇴직 현황

(1) 업권별 이·퇴직 현황

□ 금융기관 이·퇴직 현황 설문에 응답한 기관들의 '13.9월~'14.8월 말 기간의 총 이·퇴직자 수는 27,590명인 것으로 조사됨.

○ 해당기간의 전체 이·퇴직자 중 자발적 이직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순임.

○ 업권별로는 보험, 증권/선물, 은행에서 해당기간 동안 이·퇴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이·퇴직 현황은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 전수화된 추정치로 실제 이·퇴직자 수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자산운용/신탁(89.0%), 보험(88.8%)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여신전문(43.5%), 정년퇴직자 비율은 은행(5.2%)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Ⅱ-82> 업권별 이·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9,908	3,796	8,177	4,298	675	749	1,586	625
	(72.2)	(61.4)	(88.8)	(63.0)	(89.0)	(77.2)	(55.5)	(79.5)
비자발적 이직	6,675	2,009	861	2,191	83	204	1,243	84
	(24.2)	(32.5)	(9.3)	(32.1)	(11.0)	(21.0)	(43.5)	(10.6)
정년퇴직	567	319	155	45	0	6	4	37
	(2.1)	(5.2)	(1.7)	(0.7)	(-)	(0.6)	(0.1)	(4.7)
기타	440	55	20	289	0	12	24	41
	(1.6)	(0.9)	(0.2)	(4.2)	(-)	(1.2)	(0.8)	(5.2)
계	27,590	6,179	9,213	6,824	759	971	2,858	7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업권별 남성 이·퇴직 현황

□ 남성 이·퇴직자는 총 13,063명으로 전체 인원 중 47.3%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 중 71.7%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22.5%), 정년퇴직(3.9%) 순으로 조사됨.

○ 업권별로는 특히 증권/선물에서 남성 이·퇴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83> 업권별 남성 이·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9,363	1,916	2,973	2,533	496	430	789	225
	(71.7)	(65.7)	(85.8)	(62.8)	(91.0)	(77.1)	(63.5)	(73.8)
비자발적이직	2,939	676	332	1,303	49	113	431	35
	(22.5)	(23.2)	(9.6)	(32.3)	(9.0)	(20.3)	(34.6)	(11.4)
정년퇴직	510	286	145	43	0	6	4	26
	(3.9)	(9.8)	(4.2)	(1.1)	(-)	(1.1)	(0.3)	(8.4)
기타	252	38	14	151	0	9	19	20
	(1.9)	(1.3)	(0.4)	(3.8)	(-)	(1.6)	(1.6)	(6.5)
계	13,063	2,916	3,464	4,031	545	558	1,243	3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업권별 여성 이·퇴직 현황

□ 해당기간의 여성 이·퇴직자는 총 14,526명으로 전체 인원 중 52.7%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남성인력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이직(72.6%), 비자발적 이직(25.7%), 정년퇴직(0.4%) 순임.

○ 다만, 여성 정년퇴직자는 56명으로 남성 정년퇴직자 510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로는 특히 보험에서 여성 이·퇴직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Ⅱ-84> 업권별 여성 이·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0,545	1,881	5,204	1,765	179	319	797	400
	(72.6)	(57.6)	(90.5)	(63.2)	(83.9)	(77.3)	(49.4)	(83.1)
비자발적 이직	3,736	1,333	529	888	34	91	813	49
	(25.7)	(40.8)	(9.2)	(31.8)	(16.1)	(22.0)	(50.3)	(10.1)
정년퇴직	56	33	11	1	0	0	0	12
	(0.4)	(1.0)	(0.2)	(0.0)	(-)	(-)	(-)	(2.4)
기타	188	17	5	138	0	3	4	21
	(1.3)	(0.5)	(0.1)	(4.9)	(-)	(0.7)	(0.3)	(4.3)
계	14,526	3,263	5,749	2,792	214	413	1,614	4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4)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 현황

□ 해당기간의 정규직 이·퇴직자는 총 16,298명으로 전체 인원 중 59.5%를 차지하고 있음.

○ 정규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8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업권별로는 보험(95.2%), 자산운용/신탁(93.6%), 여신전문(90.1%)의 자발적 이직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남.

<표 Ⅱ-85>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3,649	2,978	5,193	3,168	583	402	845	480
	(83.7)	(87.0)	(95.2)	(66.4)	(93.6)	(83.6)	(90.1)	(79.0)
비자발적 이직	1,705	98	96	1,280	40	61	69	60
	(10.5)	(2.9)	(1.8)	(26.8)	(6.4)	(12.7)	(7.4)	(9.9)
정년퇴직	529	301	148	39	0	6	1	33
	(3.2)	(8.8)	(2.7)	(0.8)	(-)	(1.2)	(0.1)	(5.4)
기타	414	47	16	283	0	12	22	35
	(2.5)	(1.4)	(0.3)	(5.9)	(-)	(2.5)	(2.4)	(5.7)
계	16,298	3,424	5,454	4,770	623	481	938	6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 현황

□ 해당기간의 비정규직 이·퇴직자는 총 11,083명으로 전체인원 중 40.5%를 차지하고 있음.

○ 비정규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4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규직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10.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 특히 은행(69.5%), 여신전문(61.1%)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발적 이직 비율이 높은 업권은 신협(81.6%), 보험(77.7%), 자산운용/신탁(72.3%)으로 조사됨.

<표 Ⅱ-86>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6,053	820	2,867	1,097	109	279	742	139
	(54.6)	(29.8)	(77.7)	(55.5)	(72.3)	(66.3)	(38.6)	(81.6)
비자발적 이직	4,974	1,915	815	867	42	141	1,174	22
	(44.9)	(69.5)	(22.1)	(43.9)	(27.7)	(33.5)	(61.1)	(12.9)
정년퇴직	31	13	5	5	0	1	3	3
	(0.3)	(0.5)	(0.1)	(0.3)	(-)	(0.2)	(0.1)	(2.0)
기타	25	7	4	7	0	0	1	6
	(0.2)	(0.3)	(0.1)	(0.3)	(-)	(-)	(0.1)	(3.4)
계	11,083	2,755	3,691	1,976	150	421	1,920	17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6) 급여수준별 이·퇴직 현황

□ 급여수준별로 살펴보면, 2,500~5,000만원 미만 급여 구간의 이·퇴직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자발적 이직자는 급여 2,500~5,0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자발적 이직자는 2,500만원 미만, 정년퇴직의 경우 1.5억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표 Ⅱ-87> 급여수준별 이·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2,500만원 미만	2,500~5,000만원 미만	5,000~7,500만원 미만	7,500만원~1억 미만	1억~1.5억 미만	1.5억 이상
자발적 이직	18,166	3,335	7,308	3,226	1,533	2,128	635
	(73.1)	(59.9)	(75.9)	(78.7)	(75.7)	(85.6)	(60.9)
비자발적 이직	5,843	2,201	2,196	638	334	230	243
	(23.5)	(39.5)	(22.8)	(15.6)	(16.5)	(9.3)	(23.4)
정년퇴직	438	12	56	85	81	97	107
	(1.8)	(0.2)	(0.6)	(2.1)	(4.0)	(3.9)	(10.2)
기타	411	23	73	151	76	30	57
	(1.7)	(0.4)	(0.8)	(3.7)	(3.8)	(1.2)	(5.5)
계	24,858	5,571	9,634	4,100	2,025	2,486	1,04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연령별 이·퇴직 현황

□ 연령별 이·퇴직자는 30대가 9,93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30대가 80.1%로 가장 높고,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20대 미만, 20대가 각각 33.5%, 32.2%로 높게 나타남.

○ 정년퇴직자는 50대 이상이 정년퇴직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Ⅱ-88> 연령별 이·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자발적 이직	18,508	152	4,245	7,954	4,011	2,146
	(71.9)	(66.5)	(67.1)	(80.1)	(72.3)	(58.0)
비자발적 이직	6,347	77	2,035	1,807	1,398	1,031
	(24.7)	(33.5)	(32.2)	(18.2)	(25.2)	(27.9)
정년퇴직	441	0	2	1	8	430
	(1.7)	(-)	(0.0)	(0.0)	(0.1)	(11.6)
기타	428	0	41	169	128	90
	(1.7)	(-)	(0.7)	(1.7)	(2.3)	(2.4)
계	25,724	229	6,324	9,930	5,544	3,6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3) 신규채용 계획

□ '14.9월~'15.8월 말 입직자 예상 수는 신규 4,518명, 경력 2,391명으로 총 6,909명인 것으로 조사됨.

○ 아직 조사시점까지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신규채용 계획이 있더라도 응답하지 않은 기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직자 예상수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함.

<표 Ⅱ-89> 신규채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신규	4,518	2,093	1,206	351	71	269	260	268
경력	2,391	332	334	848	297	175	383	21
계	6,909	2,425	1,540	1,200	368	444	643	289

□ 고용형태별 신규채용 계획

○ '14.9월~'15.8월 말 입직자 예상수를 살펴보면, 신규직은 정규직으로 63.4%, 경력직은 38.7%를 채용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Ⅱ-90> 고용형태별 신규채용 계획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정규직	55.2	63.4	38.7
비정규직	44.8	36.6	61.3
계	100.0	100.0	100.0

□ 성별 신규채용 계획

○ 해당기간 동안 여성인력은 신규직의 경우 전체인원의 52.6%, 경력직의 경우 31.2%의 비율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됨.

<표 Ⅱ-91> 성별 신규채용 계획

(단위 : 명,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남성	3,788 (54.8)	2,142 (47.4)	1,646 (68.8)
여성	3,121 (45.2)	2,376 (52.6)	745 (31.2)
계	6,909 (100.0)	4,518 (100.0)	2,391 (100.0)

□ 업권별 신규채용 계획

○ 해당기간에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신규채용이 65.4%, 경력직 채용이 34.6%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업권별로 살펴보면 신규직 예상 채용비율은 은행이 86.3%로 가장 높고, 경력직 예상 채용비율은 자산운용/신탁이 80.8%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Ⅱ-92> 업권별 신규채용 계획

(단위 :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신규	65.4	86.3	78.3	29.3	19.2	60.5	40.4	92.8
경력	34.6	13.7	21.7	70.7	80.8	39.5	59.6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93> 업권별 남녀 신규채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남성	신규	2,142	1,055	425	187	58	125	181	112
	경력	1,646	121	202	708	255	119	228	13
	계	3,788	1,176	627	894	313	244	408	124
여성	신규	2,376	1,038	781	164	13	144	79	157
	경력	745	211	132	141	42	56	156	8
	계	3,121	1,249	913	305	54	200	235	165

□ 급여수준별 신규채용 계획

○ 신규직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83.6%에 달하고, 경력직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비율이 44.1%일 것으로 조사됨.

<표 Ⅱ-94> 급여수준별 신규채용 계획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2,500만원 미만	25.6	29.1	18.5
2,500~5,000만원 미만	49.0	54.6	37.4
5,000~7,500만원 미만	17.5	14.2	24.5
7,500만원~1억 미만	4.0	0.7	10.8
1억~1.5억 미만	2.6	0.7	6.7
1.5억 이상	1.2	0.8	2.2
계	100.0	100.0	100.0

□ 연령별 신규채용 인력 비중

○ 해당기간 예상 신규직 채용자 중 30대 미만인 인력은 75.8%이고, 경력직의 경우 30대 이상이 75.7%를 차지할 것으로 조사됨.

<표 Ⅱ-95> 연령별 신규채용 계획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20대 미만	2.9	4.2	-
20대	57.5	71.6	24.3
30대	23.3	15.6	41.3
40대	9.4	3.8	22.7
50대 이상	6.9	4.8	11.7
계	100.0	100.0	100.0

□ 학력별 신규채용 계획

○ 신규직과 경력직의 대졸자 비중은 각 각 62.4%, 76.6%로, 해당기간 동안 대졸자가 많이 채용 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표 Ⅱ-96> 학력별 신규채용 계획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고졸	13.0	15.5	7.0
전문대졸	17.0	20.2	9.6
대졸	66.7	62.4	76.6
대학원졸	3.4	1.9	6.8
계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전공(대졸)별 신규채용 인력 비중

○ 해당기간의 신규직과 경력직의 상경계 전공자 비율은 각각 62.2%, 63.7% 일 것으로 예상됨.

<표 Ⅱ-97> 전공별 신규채용 계획(대졸자 대상)

(단위 : %)

구분		전체	신규	경력
상경계		62.7	62.2	63.7
	경영/회계	50.4	49.8	51.5
	경제	12.3	12.4	12.2
전산		4.1	2.8	6.7
법학		3.2	2.7	4.1
인문/사회		8.9	10.0	6.7
공학		3.1	2.6	3.9
기타		18.0	19.7	14.8
계		100.0	100.0	100.0

4) 이·퇴직 전망

(1) 업권별 이·퇴직 전망

□ 금융기관 이·퇴직 현황 설문에 응답한 기관들의 '14.9월~'15.8월 말 기간의 총 이·퇴직자 전망은 5,562명인 것으로 조사됨.

○ 금융기관 이·퇴직 전망에 응답하지 않은 기관들이 많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해당기간의 전체 이·퇴직자 중 자발적 이직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 순으로 많을 것이라 예상됨.

○ 업권별로는 은행, 보험, 증권/선물에서 해당기간 동안 이·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자산운용/신탁(88.2%), 보험(85.2%)이 높고,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은 여신전문(44.4%), 정년퇴직자 비율은 은행(11.2%)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

<표 Ⅱ-98> 업권별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3,880	1,001	1,265	1,029	109	162	233	81
	(69.8)	(56.1)	(85.2)	(72.5)	(88.2)	(80.5)	(55.6)	(63.1)
비자발적 이직	1,360	579	164	354	14	36	186	26
	(24.5)	(32.4)	(11.1)	(25.0)	(11.8)	(18.0)	(44.4)	(19.8)
정년퇴직	306	200	52	36	0	3	0	16
	(5.5)	(11.2)	(3.5)	(2.5)	(-)	(1.5)	(-)	(12.6)
기타	15	5	4	0	0	0	0	6
	(0.3)	(0.3)	(0.2)	(-)	(-)	(-)	(-)	(4.5)
계	5,562	1,786	1,485	1,418	123	202	420	1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업권별 남성 이·퇴직 전망

□ 해당기간의 남성 이·퇴직자 규모는 총 2,781명으로 전체인원의 50.0%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

○ 자발적 이직은 전체 이·퇴직자 중 69.2%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 이직(20.1%), 정년퇴직(10.4%) 순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업권별로는 특히 은행과 증권/선물, 보험에서 남성 이·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Ⅱ-99> 업권별 남성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924	501	534	621	78	92	72	27
	(69.2)	(54.9)	(85.2)	(70.9)	(89.6)	(76.2)	(71.2)	(46.9)
비자발적 이직	559	211	43	220	9	27	29	20
	(20.1)	(23.2)	(6.8)	(25.1)	(10.4)	(22.1)	(28.8)	(34.7)
정년퇴직	288	195	48	36	0	2	0	8
	(10.4)	(21.3)	(7.7)	(4.1)	(-)	(1.6)	(-)	(14.3)
기타	9	5	2	0	0	0	0	2
	(0.3)	(0.6)	(0.3)	(-)	(-)	(-)	(-)	(4.1)
계	2,781	912	627	876	87	120	101	5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업권별 여성 이·퇴직 전망

□ 해당기간의 여성 이·퇴직자는 총 2,781명으로 전체 인원 중 50.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적으로 남성인력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이직(70.3%), 비자발적 이직(28.8%), 정년퇴직(0.6%) 순일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성의 예상 정년퇴직자는 18명으로 남성의 예상 정년퇴직자가 288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업권별로는 특히 보험과 은행에서 여성 이·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조사됨.

<표 Ⅱ-100> 업권별 여성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956	500	731	408	31	71	161	55
	(70.3)	(57.3)	(85.2)	(75.2)	(85.0)	(86.7)	(50.7)	(75.8)
비자발적 이직	802	368	121	134	5	10	157	6
	(28.8)	(42.1)	(14.2)	(24.8)	(15.0)	(12.0)	(49.3)	(8.1)
정년퇴직	18	5	4	0	0	1	0	8
	(0.6)	(0.6)	(0.4)	(-)	(-)	(1.2)	(-)	(11.3)
기타	5	0	2	0	0	0	0	3
	(0.2)	(-)	(0.2)	(-)	(-)	(-)	(-)	(4.8)
계	2,781	873	858	542	36	82	318	7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4)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 전망

□ 해당기간의 정규직 이·퇴직자 전망은 총 2,816명인 것으로 조사됨.

○ 정규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87.1%에 달하고, 정년퇴직이 10.4%, 비자발적 이직이 2.3%일 것으로 예상됨.

<표 Ⅱ-101>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2,452	779	627	764	51	83	94	53
	(87.1)	(77.4)	(91.6)	(94.6)	(93.3)	(96.6)	(100.0)	(63.9)
비자발적 이직	64	25	11	9	4	1	0	14
	(2.3)	(2.5)	(1.6)	(1.1)	(6.7)	(1.1)	(-)	(16.7)
정년퇴직	294	198	46	34	0	2	0	14
	(10.4)	(19.6)	(6.8)	(4.2)	(-)	(2.3)	(-)	(16.7)
기타	7	4	0	0	0	0	0	2
	(0.2)	(0.4)	(-)	(-)	(-)	(-)	(-)	(2.8)
계	2,816	1,006	684	808	54	86	94	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업권별 정규직 이·퇴직자 전망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규모와 차이가 있음.

(5)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 전망

□ 해당기간의 비정규직 이·퇴직자는 총 2,306명으로 전망됨.

○ 비정규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전체 이·퇴직의 4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규직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 비자발적 이직자 비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특히 은행(71.1%), 자산운용/신탁(62.5%)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자발적 이직 비율이 높은 업권은 보험(78.6%), 상호저축(69.2%)일 것으로 나타남.

<표 Ⅱ-102>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자발적 이직	1,183	222	559	151	5	80	139	27
	(51.3)	(28.5)	(78.6)	(47.5)	(37.5)	(69.2)	(42.7)	(62.2)
비자발적 이직	1,102	554	143	163	9	35	186	12
	(47.8)	(71.1)	(20.1)	(51.2)	(62.5)	(30.8)	(57.3)	(27.0)
정년퇴직	13	2	5	4	0	0	0	1
	(0.5)	(0.3)	(0.8)	(1.2)	(-)	(-)	(-)	(2.7)
기타	8	1	4	0	0	0	0	3
	(0.4)	(0.1)	(0.5)	(-)	(-)	(-)	(-)	(8.1)
계	2,306	779	711	318	14	115	325	4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업권별 비정규직 이·퇴직자 전망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규모와 차이가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6) 급여수준별 이·퇴직 전망

□ 급여수준별로 살펴보면, 해당기간에 5,000만원 미만 급여 구간의 이·퇴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자발적 이직자는 2,500~5,000만원 미만 급여구간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고, 비자발적 이직자는 2,500만원 미만, 정년퇴직의 경우 1.5억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Ⅱ-103> 급여수준별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2500 미만	2500~5000만원 미만	5000~7500만원 미만	7500만원~1억 미만	1억~1.5억 미만	1.5억 이상
자발적 이직	3,450	926	1,204	529	255	413	124
	(68.1)	(56.7)	(78.8)	(77.3)	(63.0)	(79.0)	(42.2)
비자발적 이직	1,333	699	303	145	83	66	38
	(26.3)	(42.8)	(19.8)	(21.1)	(20.4)	(12.6)	(12.9)
정년퇴직	269	7	17	8	67	41	130
	(5.3)	(0.4)	(1.1)	(1.2)	(16.5)	(7.8)	(44.5)
기타	15	2	5	3	0	3	1
	(0.3)	(0.1)	(0.3)	(0.4)	(-)	(0.6)	(0.4)
계	5,067	1,634	1,529	684	405	523	2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급여수준별 이·퇴직자 전망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규모와 차이가 있음.

(7) 연령별 이·퇴직 전망

□ 연령별 이·퇴직자는 30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모든 연령층에서 자발적 이직자 예상 비율이 가장 높음.

○ 해당기간에 정년퇴직자는 50대 이상이 정년퇴직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표 Ⅱ-104> 연령별 이·퇴직자 전망

(단위 : 명, %)

구분	전체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자발적 이직	3,172	20	798	1,376	540	438
	(68.9)	(95.1)	(72.9)	(80.9)	(66.6)	(44.9)
비자발적 이직	1,156	1	294	321	266	274
	(25.1)	(4.9)	(26.9)	(18.8)	(32.9)	(28.1)
정년퇴직	261	0	0	0	0	261
	(5.7)	(-)	(-)	(-)	(-)	(26.7)
기타	15	0	2	5	4	3
	(0.3)	(-)	(0.2)	(0.3)	(0.5)	(0.3)
계	4,604	21	1,094	1,702	810	97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연령별 이·퇴직자 전망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규모와 차이가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3.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

가. 조사현황 및 개요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주요 7개 금융업권 1,365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1년 이내(2014년 9월 기준) 추가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금융기관 중 306개의 기관에서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Ⅱ-105> 추가채용 규모 조사대상기관

(단위: 개, %)

구분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저축은행	여신전문	신협	전체
조사기관	58	56	68	97	87	73	926	1,365
응답기관	17	15	21	33	39	39	142	306
회수율(%)	29.3	26.8	30.9	34.0	44.8	53.4	15.3	22.4

주: 1) 응답기관의 수는 향후 1년 이내 채용계획이 있는 기관만을 표시한 것으로, 무응답 기관과 1년 이내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모두 무응답으로 처리함. 따라서 응답기관은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에 가까움.

□ 그러나 '14년에 이루어진 「향후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는 전수조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률이 저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응답률에 따라 통계의 정확도가 결정되는 한계가 있음.

나. 조사결과[3)]

1 전체 채용 예상 규모

□ 응답 금융기관들의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는 총 5,056명으로 조사됨.

○ 은행과 증권/선물 업권에서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의 70.1%를 채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 규모는 전수화되지 않은 결과임.

<표 Ⅱ-106> 업권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예정인원	5,056	2,279	576	758	273	573	285	312
비중	(100.0)	(45.1)	(11.4)	(15.0)	(5.4)	(11.3)	(5.6)	(6.2)

□ 가장 많은 채용이 계획된 직무는 영업·마케팅으로 전체의 70.0%에 달하는 인원을 채용 예정이며, 경영관리가 18.2%로 뒤를 이름.

<표 Ⅱ-107> 직무별 추가채용 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경영관리	영업·마케팅	영업지원	자산운용	자산관리	보험	투자은행	기타	전체
예정인원	897	3,441	139	236	65	71	64	3	4,916
비중	(18.2)	(70.0)	(2.8)	(4.8)	(1.3)	(1.4)	(1.3)	(0.1)	(100.0)

주: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3) 이는 전수화하지 않은 통계임.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세부 채용 예상 규모

1) 고용형태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고용형태별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보험, 증권/선물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과반수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으로 보임.

○ 업권별 정규직 예상채용 비율은 자산운용/신탁(79.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협(77.1%), 여신전문(71.6%), 은행(68.5%), 상호저축(65.6%), 보험(48.9%), 증권/선물(21.3%) 순으로 나타남.

<표 Ⅱ-108> 고용형태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정규직	2,800	1,425	277	134	155	376	204	229
	(60.5)	(68.5)	(48.9)	(21.3)	(79.5)	(65.6)	(71.6)	(77.1)
비정규직	1,827	656	290	495	40	197	81	68
	(39.5)	(31.5)	(51.1)	(78.7)	(20.5)	(34.4)	(28.4)	(22.9)
계	4,627	2,081	567	629	195	573	285	2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고용형태 따른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2) 성별 형태

□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정규직으로 남성인력의 65.4%, 여성인력의 54.1%를 채용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표 Ⅱ-109> 고용형태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정규직	1,727	1,074
	(65.4)	(54.1)
비정규직	915	912
	(34.6)	(45.9)
계	2,642	1,986
	(100.0)	(100.0)

주: 1) 고용형태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2) 성별 현황

(1) 업권별 형태

□ 조사대상 금융업권 전체적으로 여성의 채용 예상 비율은 43.8%로 나타남.

□ 업권별 여성의 채용 예상 비율은 신협(52.6%), 보험(52.3%), 은행(51.1%)이 과반수를 넘고, 이어 상호저축(39.8%), 여신전문(35.4%), 증권/선물(26.8%), 자산운용/신탁(19.8%) 순으로 조사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Ⅱ-110> 업권별 남녀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남성	2,840	1,114	275	555	219	345	184	148
	(56.2)	(48.9)	(47.7)	(73.2)	(80.2)	(60.2)	(64.6)	(47.4)
여성	2,216	1,165	301	203	54	228	101	164
	(43.8)	(51.1)	(52.3)	(26.8)	(19.8)	(39.8)	(35.4)	(52.6)
계	5,056	2,279	576	758	273	573	285	3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3) 직무별 인력현황

(1) 업권별 형태

□ 직무분류에 따른 업권별 예상채용 인력을 보면, 자산운용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영업·마케팅 직무로 과반수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 영업·마케팅 직무의 예상채용 비율을 보면 신협 79.5%, 상호저축 78.9%, 보험 76.4%, 은행 75.2%, 여신전문 68.4%, 증권/선물 58.7%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운용/신탁 업권은 10.6%로 조사됨.

○ 자산운용/신탁은 자산운용 직무를 가장 많이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표 Ⅱ-111> 직무 분류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경영관리	897	549	57	85	60	49	46	51
	(18.2)	(24.1)	(9.9)	(13.8)	(22.0)	(8.6)	(16.1)	(16.3)
영업·마케팅	3,441	1,714	440	363	29	452	195	248
	(70.0)	(75.2)	(76.4)	(58.7)	(10.6)	(78.9)	(68.4)	(79.5)
영업지원	139	10	7	8	11	69	24	10
	(2.8)	(0.4)	(1.2)	(1.3)	(4.0)	(12.0)	(8.4)	(3.2)
자산운용	236	4	1	69	150	0	11	1
	(4.8)	(0.2)	(0.2)	(11.2)	(54.9)	(-)	(3.9)	(0.3)
자산관리	65	1	1	40	23	0	0	0
	(1.3)	(0.0)	(0.2)	(6.5)	(8.4)	(-)	(-)	(-)
보험	71	1	70	0	0	0	0	0
	(1.4)	(0.0)	(12.2)	(-)	(-)	(-)	(-)	(-)
투자은행	64	0	0	53	0	2	9	0
	(1.3)	(-)	(-)	(8.6)	(-)	(0.3)	(3.2)	(-)
기타	3	0	0	0	0	1	0	2
	(0.1)	(-)	(-)	(-)	(-)	(0.2)	(-)	(0.6)
계	4,916	2,279	576	618	273	573	285	3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성별 예상채용 규모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인력 모두 영업·마케팅 직무 위주로 채용될 예정임.

<표 Ⅱ-112> 직무 분류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경영관리	466	432
	(16.9)	(20.0)
영업·마케팅	1,827	1,614
	(66.2)	(74.9)
영업지원	92	47
	(3.3)	(2.2)
자산운용	208	28
	(7.5)	(1.3)
자산관리	59	6
	(2.1)	(0.3)
보험	51	21
	(1.8)	(1.0)
투자은행	58	6
	(2.1)	(0.3)
기타	0	3
	(-)	(0.1)
계	2,760	2,156
	(100.0)	(100.0)

주 : 1) 직무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4) 급여수준별 인력현황

(1) 업권별 형태

□ 급여수준에 따른 채용예상 인원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신협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2,500만원~5,000만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 신협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1.7%로 가장 높음.

<표 Ⅱ-113> 급여수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500만원 미만	806	249	95	176	6	94	31	155
	(16.1)	(10.1)	(16.7)	(28.2)	(2.8)	(17.3)	(10.9)	(51.7)
2,500 ~5,000만원 미만	2,840	1,481	395	249	69	400	129	117
	(56.8)	(60.0)	(69.5)	(39.8)	(32.4)	(73.7)	(45.3)	(39.0)
5,000 ~7,500만원 미만	1,150	706	60	161	63	37	99	24
	(23.0)	(28.6)	(10.6)	(25.8)	(29.6)	(6.8)	(34.7)	(8.0)
7,500만원 ~1억 미만	124	12	14	28	36	10	21	3
	(2.5)	(0.5)	(2.5)	(4.5)	(16.9)	(1.8)	(7.4)	(1.0)
1억 ~1.5억 미만	47	3	4	8	28	0	3	1
	(0.9)	(0.1)	(0.7)	(1.3)	(13.1)	(-)	(1.1)	(0.3)
1.5억 이상	34	16	0	3	11	2	2	0
	(0.7)	(0.6)	(-)	(0.5)	(5.2)	(0.4)	(0.7)	(-)
계	5001	2467	568	625	213	543	285	3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급여수준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급여수준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 인원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2,500만원 ~ 5,000만원 구간의 인력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보임.

○ 남성인력의 경우 2,500~5,000만원 미만 구간에 이어 5,000~7,500만원 미만 구간대의 인력을 많이 채용할 예정이고, 여성인력의 경우 2,500원 미만 구간대의 인력을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114> 급여수준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2,500만원 미만	363	443
	(12.76)	(20.55)
2,500~5,000만원 미만	1,315	1,525
	(46.22)	(70.73)
5,000~7,500만원 미만	985	165
	(34.62)	(7.65)
7,500만원~1억 미만	108	16
	(3.80)	(0.74)
1억~1.5억 미만	41	6
	(1.44)	(0.28)
1.5억 이상	33	1
	(1.16)	(0.05)
계	2,845	2,156
	(100.00)	(100.00)

주 : 1) 급여수준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5) 연령별 인력현황

(1) 업권별 형태

□ 연령대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자산운용/신탁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20대의 인원을 가장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30대의 예상 채용 규모가 가장 크고, 이어 20대 채용 예상 규모가 크게 나타남.

○ 은행의 경우 20대에 이어 20대 미만, 50대 이상의 인원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보임.

<표 Ⅱ-115> 연령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20대 미만	209	159	0	3	0	36	0	11
	(4.6)	(6.6)	(-)	(0.6)	(-)	(6.6)	(-)	(3.8)
20대	3,165	1,935	311	193	46	342	149	189
	(69.0)	(80.0)	(79.5)	(41.7)	(23.8)	(63.0)	(52.3)	(64.7)
30대	747	116	58	183	110	129	105	46
	(16.3)	(4.8)	(14.8)	(39.5)	(57.0)	(23.8)	(36.8)	(15.8)
40대	258	52	22	72	33	23	28	28
	(5.6)	(2.1)	(5.6)	(15.6)	(17.1)	(4.2)	(9.8)	(9.6)
50대 이상	207	157	0	12	4	13	3	18
	(4.5)	(6.5)	(-)	(2.6)	(2.1)	(2.4)	(1.1)	(6.2)
합계	4,586	2,419	391	463	193	543	285	2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연령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연령대별 남녀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고, 30대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50대 이상 연령의 채용이 여성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20대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여성 남성보다 더 많이 채용될 예정임.

<표 Ⅱ-116> 연령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20대 미만	35	174
	(1.4)	(8.7)
20대	1,582	1,583
	(61.4)	(78.8)
30대	569	178
	(22.1)	(8.9)
40대	198	60
	(7.7)	(3.0)
50대 이상	194	13
	(7.5)	(0.6)
합계	2,578	2,008
	(100.0)	(100.0)

주 : 1) 연령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6) 근무기간별 인력현황

(1) 업권별 형태

□ 근무기간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모든 업권에서 근무기간 5년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을 가장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은행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5년 미만에 이어 5~10년 미만 근무기간의 인력을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됨.

○ 은행의 경우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인원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나타남.

<표 Ⅱ-117> 근무기간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5년 미만	1,464	832	40	10	89	135	170	188
	(61.8)	(55.8)	(81.6)	(66.7)	(80.9)	(86.5)	(59.6)	(72.0)
5~10년 미만	148	0	9	5	19	11	79	25
	(6.3)	(-)	(18.4)	(33.3)	(17.3)	(7.1)	(27.7)	(9.6)
10~15년 미만	52	0	0	0	2	2	32	16
	(2.2)	(-)	(-)	(-)	(1.8)	(1.3)	(11.2)	(6.1)
15~20년 미만	15	0	0	0	0	2	0	13
	(0.6)	(-)	(-)	(-)	(-)	(1.3)	(-)	(5.0)
20년 이상	689	660	0	0	0	6	4	19
	(29.1)	(44.2)	(-)	(-)	(-)	(3.8)	(1.4)	(7.3)
합계	2,368	1,492	49	15	110	156	285	2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근무기간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근무기간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남녀 모두 경력 5년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을 많이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20년 이상의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Ⅱ-118> 근무기간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5년 미만	828	636
	(63.3)	(60.1)
5~10년 미만	103	45
	(7.9)	(4.2)
10~15년 미만	39	13
	(3.0)	(1.2)
15~20년 미만	7	8
	(0.5)	(0.8)
20년 이상	332	357
	(25.4)	(33.7)
합계	1,309	1,059
	(100.0)	(100.0)

주 : 1) 근무기간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7) 학력별 인력현황

(1) 업권별 형태

□ 학력별 채용예상규모를 보면, 모든 업권에서 대졸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은행, 보험,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에서는 대졸자 다음으로 전문대졸의 채용 예정비율이 높고,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 대학원 졸업자의 채용 예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Ⅱ-119> 학력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고졸	403	295	32	1	1	32	4	38
	(12.9)	(17.4)	(12.6)	(0.5)	(0.6)	(11.5)	(1.4)	(15.8)
전문대졸	638	372	89	2	3	62	38	72
	(20.4)	(21.9)	(35.2)	(1.1)	(1.7)	(22.3)	(13.3)	(30.0)
대졸	1,984	995	131	177	141	178	241	121
	(63.5)	(58.7)	(51.8)	(93.2)	(77.9)	(64.0)	(84.6)	(50.4)
대학원졸	97	33	1	10	36	6	2	9
	(3.1)	(1.9)	(0.4)	(5.3)	(19.9)	(2.2)	(0.7)	(3.8)
합계	3,122	1,695	253	190	181	278	285	24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학력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학력별 남녀 채용예상 인력을 보면, 남녀 모두 대졸자의 채용예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졸의 채용 예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성인력의 경우 남성인력에 비해 고졸 채용 예정 규모가 크게 나타남.

<표 Ⅱ-120> 학력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고졸	142	261
	(7.5)	(21.3)
전문대졸	389	249
	(20.5)	(20.4)
대졸	1,283	701
	(67.6)	(57.3)
대학원졸	85	12
	(4.5)	(1.0)
합계	1,899	1,223
	(100.0)	(100.0)

주 : 1) 학력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8) 전공별 인력현황

(1) 업권별 형태

□ 대졸자의 전공별 채용예상 인력규모를 보면, 모든 업권에서 경영/회계 전공자의 채용예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Ⅱ-121> 대학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경영/회계	600	137	35	73	88	71	132	64
	(30.2)	(13.8)	(26.7)	(41.2)	(62.4)	(39.9)	(54.8)	(52.9)
경제	208	83	14	33	15	29	24	10
	(10.5)	(8.3)	(10.7)	(18.6)	(10.6)	(16.3)	(10.0)	(8.3)
전산	85	40	14	7	1	11	7	5
	(4.3)	(4.0)	(10.7)	(4.0)	(0.7)	(6.2)	(2.9)	(4.1)
법학	82	42	3	3	4	17	9	4
	(4.1)	(4.2)	(2.3)	(1.7)	(2.8)	(9.6)	(3.7)	(3.3)
인문/사회	142	55	13	15	4	17	28	10
	(7.2)	(5.5)	(9.9)	(8.5)	(2.8)	(9.6)	(11.6)	(8.3)
공학	54	21	0	18	9	0	3	3
	(2.7)	(2.1)	(-)	(10.2)	(6.4)	(-)	(1.2)	(2.5)
기타	813	617	52	28	20	33	38	25
	(41.0)	(62.0)	(39.7)	(15.8)	(14.2)	(18.5)	(15.8)	(20.7)
합계	1,984	995	131	177	141	178	241	1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대학 전공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 규모와 차이가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성별 형태

□ 대졸자 전공별 남녀 채용예상 인력규모를 보면, 남녀 모두 경영/회계 전공자의 채용예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Ⅱ-122> 대학 전공에 따른 성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경영/회계	457	143
	(35.6)	(20.4)
경제	156	52
	(12.2)	(7.4)
전산	65	20
	(5.1)	(2.9)
법학	63	19
	(4.9)	(2.7)
인문/사회	83	59
	(6.5)	(8.4)
공학	44	10
	(3.4)	(1.4)
기타	415	398
	(32.2)	(56.8)
합계	1,283	701
	(100.0)	(100.0)

주 : 1) 전공별, 성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규모와 차이가 있음.

□ 대학원 졸업자의 채용예상 인력규모는 매우 작을 것으로 나타나 전공별 분류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표 Ⅱ-123> 대학원 전공에 따른 업권별 채용예상규모

(단위: 명, %)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MBA	12	3	0	3	6	0	0	0
	(12.4)	(9.1)	(-)	(30.0)	(16.7)	(-)	(-)	(-)
경영/경제	47	17	0	4	21	3	1	1
	(48.5)	(51.5)	(-)	(40.0)	(58.3)	(50.0)	(50.0)	(11.1)
전산	1	1	0	0	0	0	0	0
	(1.0)	(3.0)	(-)	(-)	(-)	(-)	(-)	(-)
인문/사회	2	1	0	0	0	0	1	0
	(2.1)	(3.0)	(-)	(-)	(-)	(-)	(50.0)	(-)
공학	2	0	0	0	2	0	0	0
	(2.1)	(-)	(-)	(-)	(5.6)	(-)	(-)	(-)
기타	33	11	1	3	7	3	0	8
	(34.0)	(33.3)	(100.0)	(30.0)	(19.4)	(50.0)	(-)	(88.9)
합계	97	33	1	10	36	6	2	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대학원 전공별 채용예정인원이 미확정인 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총 채용예정규모와 차이가 있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다. 2014년 채용 계획 및 실적간의 차이 분석

□ 2014년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32.4%의 인원을 계획보다 많이 채용한 것으로 조사됨.

○ 2014년중에는 계획했던 채용인원보다 실제 채용인원이 1,986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증가율로는 32.4%가 늘어남.

○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에서 채용 계획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195.9%)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이 증가율이 높았음.

○ 은행에서도 2014년 중에는 계획했던 인원보다 645명을 더 채용하였음.

○ 직무별로는 자산관리 직무에서 105.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계획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채용하였음.

□ 다만 실제 채용 규모와 채용 계획과의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경제상황이 연초에 비해 호전되면서 노동수요가 늘어나 채용인원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하면서 신규채용을 늘렸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2014년에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많았다고 해서 2015년에도 실제 채용규모가 채용 계획규모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보다는 2015년중 경제상황, 금융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Ⅱ-124> 2014년 실제 채용 규모와 채용 계획과의 차이[1)]

(단위 : 명)

구분	전체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상호저축	여신전문	신협
경영관리	455	179	79	43	12	2	138	2
	(59.2)	(155.7)	(24.4)	(51.8)	(27.3)	(1.8)	(197.1)	(11.1)
영업·마케팅	1,035	302	151	77	10	72	422	1
	(24.6)	(12.6)	(19.2)	(38.3)	(30.3)	(15.1)	(213.1)	(0.9)
영업지원	187	32	9	1	3	57	85	0
	(82.0)	(84.2)	(45.0)	(4.5)	(37.5)	(78.1)	(139.3)	(0.0)
자산운용	67	23	9	0	32	0	4	-1
	(36.6)	(383.3)	(50.0)	(0.0)	(41.0)	(0.0)	(66.7)	(△100.0)
자산관리	39	29	-1	12	-1	0	0	0
	(105.4)	(-)	(△16.7)	(70.6)	(△7.1)	(-)	(-)	(-)
보험	62	0	45	0	0	17	0	0
	(30.1)	(-)	(22.0)	(-)	(-)	(-)	(-)	(0.0)
투자은행	79	11	38	26	0	3	1	0
	(77.5)	(-)	(253.3)	(32.1)	(-)	(100.0)	(33.3)	(-)
기타	62	69	-18	0	0	0	12	-1
	(15.6)	(138.0)	(△5.5)	(0.0)	(-)	(0.0)	(-)	(△7.1)
계	1,986	645	312	159	56	151	662	1
	(32.4)	(24.7)	(18.3)	(33.5)	(31.6)	(22.3)	(195.9)	(0.7)

주 : 1) 차이 = '실제 채용 규모' - '채용 계획 규모'

2) ( ) 는 채용계획 대비 실제채용규모 증감률(%)임.

3) - 는 2014년 채용 계획이 0이어서 채용계획 대비 실제채용규모의 증감률 구할 수 없는 경우임.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Ⅲ.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 및 공급전망

1.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

가. 실물경제 성장 전망

□ 우리나라 실질 GDP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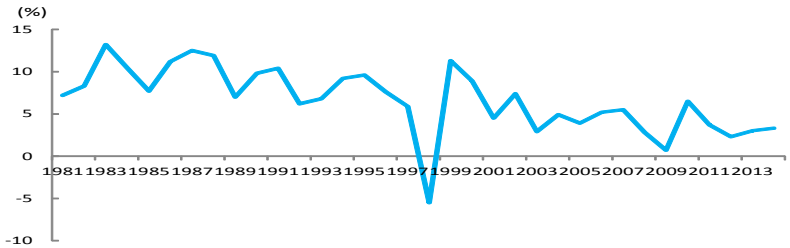
○ 1980년대에는 연평균 8.9%씩 성장하였으나 1990년들어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 연평균 7.2%씩 성장함.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5.5%로 큰 폭 하락하였으나, 1999년에는 전년의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11.3% 까지 반등함.

○ 1999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점차 하락세를 보여 2003년에는 2.9%까지 하락하였으며 2004~2007년중에는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큰 폭으로 하락

○ 2010년에는 전년대비 6.5% 성장하였으나, 2011년 유로지역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하락하여 2012년에는 2.3%를 기록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반등하여 각각 3.0% 및 3.3%를 기록

<그림 Ⅲ-1> 경제성장률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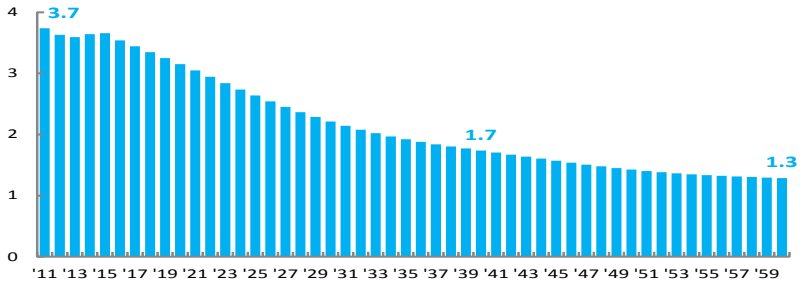
□ 이러한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3년에는 3.6%이지만 2040년에는 1.7%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물론 성장잠재력 수준은 여러 유·무형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지만 여러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더라도, 향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단됨.

<그림 Ⅲ-2> 잠재성장률 전망치

(단위 : %)



자료 : OECD

□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추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거나 상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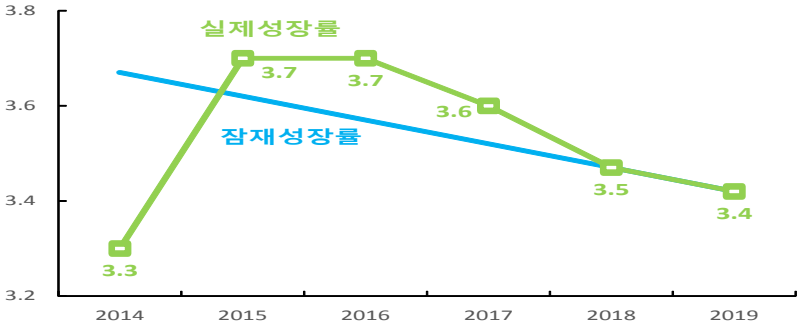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의 경제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향후 5년간인 2015~2019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함.

□ 추정결과 우리경제는 2015년과 2016년에는 3.7%, 2017년에는 3.6%, 2018에는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그림 Ⅲ-3>　　2014~2018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자료 : 금융연구원 자체 추정

나. 금융산업 성장 전망

□ 2014년중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1,427.7조원이며 이중 금융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82.6조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중 5.79%를 차지함.

<표 Ⅲ-1>　　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단위 : 조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융업(A)	64.0	67.0	70.2	71.7	72.7	75.5	78.4	82.6
전산업(B)	1,147.3	1,179.8	1,188.1	1,265.3	1,311.9	1,342.0	1,381.8	1,427.7
비중(A/B)	5.58	5.68	5.91	5.66	5.54	5.63	5.67	5.7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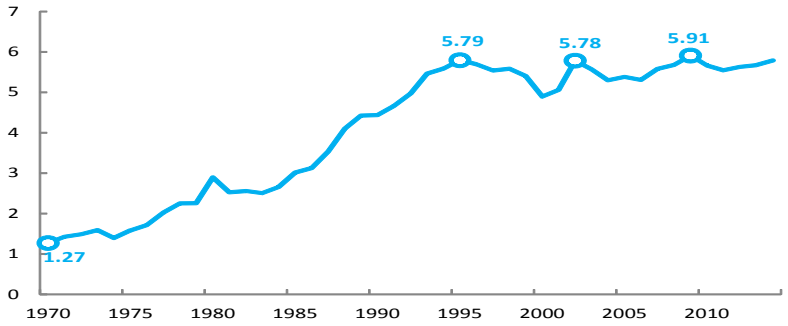
□ 1970년 이후 전산업 실질부가가치중 금융업 실질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 이후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1995년 이후 5.5%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1970년에는 1.3%이었으나 1995년에 5.8%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위기로 일시 하락후 다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5%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Ⅲ-4>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1)]

(단위 : %)



주 :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치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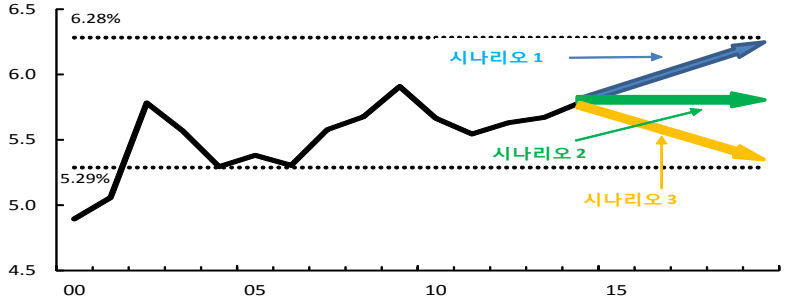
○ 시나리오 1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실질부가가치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이고, 시나리오 2는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는 시나리오이며, 마지막 시나리오 3은 금융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에 비해 더 느리게 성장하는 시나리오임.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다만 각 시나리오별 상·하한은 2000~2014년중 변동폭의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상한은 '2014년 비중 + 2×표준편차', 하한은 '2014년 비중 - 2×표준편차'로 정하였음.

<그림 Ⅲ-5> 금융업 실질부가가치 비중 전망

(단위 : %)



주 : 1) 상·하한은 '2014년 부가가치 비중(5.79%) ± 2×변동폭의 표준편차(0.25%)'로 설정함.

<표 Ⅲ-2>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나리오 1	5.79	5.88	5.98	6.08	6.18	6.28
시나리오 2	5.79	5.79	5.79	5.79	5.79	5.79
시나리오 3	5.79	5.69	5.59	5.49	5.39	5.29

□ 2015~2019년중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전망치를 이용하여 2015~2019년중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2014년중 82.6조원이었던 부가가치가 2019년에는 106.9조원으로, 시나리오 2에서는 98.5조원으로, 시나리오 3에서는 90.0조원으로 증가함.

<표 Ⅲ-3> 금융업 및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산업[1)]	1,427.66	1,480.48	1,535.26	1,590.53	1,645.72	1,702.00
금융업						
시나리오 1	82.6	87.1	91.9	96.8	101.8	106.9
시나리오 2	82.6	85.6	88.8	92.0	95.2	98.5
시나리오 3	82.6	84.2	85.8	87.3	88.7	90.0

주 : 1) 전산업 실질부가가치 전망치는 앞서 언급한 「<표> 2014~2018년까지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근거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금융권 인력 수요 전망

□ 향후 5년간 실물경제 및 금융산업 성장 전망을 토대로 금융인력 수요 전망을 실시함.

○ 다만 앞서 전망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반영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실물경제 성장전망을 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사용하였는데,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평가한 합계임.

○ 또한 금융산업 성장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전체를 평가한 합계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망하는 금융인력 수요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임.

○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의 성장 전망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의 성장 전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는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음.

○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년에 최초 작성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매월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금융인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

가. 추정방법

□ 201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 취업자수는 80.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만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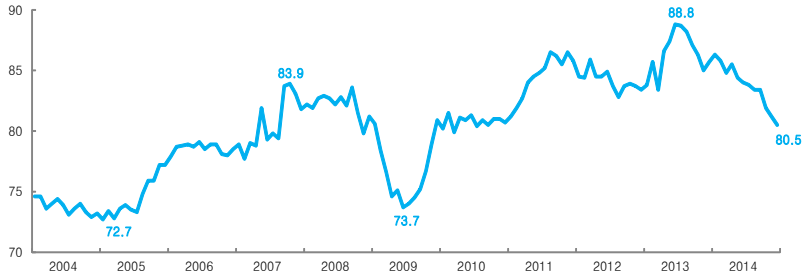
○ 2004년 73.7만명이었던 금융업 취업자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1.3만명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취업자수**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금융인력 구조조정으로 2008년 대비 약 5.5만명이 감소하였음.

<그림 Ⅲ-6> 금융업[1] 취업자수

(단위 : 만명)



주 : 1) 금융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중 'K 금융 및 보험업(64~66)'에 해당됨.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서는 좀더 세분화된 산업분류가 가능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대분류까지의 취업자수만 공개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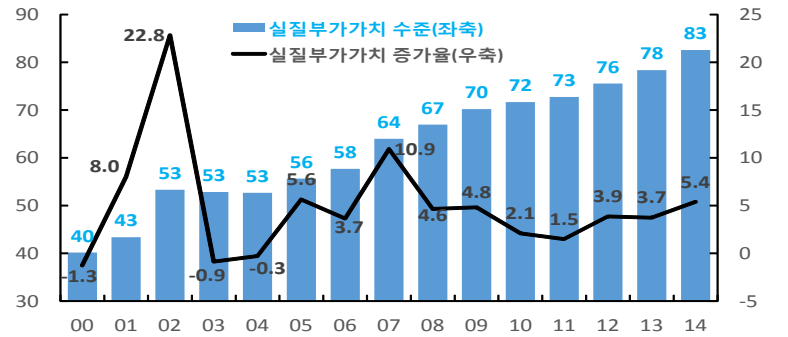
□ 한편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는 82.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함.

○ 2001년 금융업 부가가치 규모는 43조원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5.4%씩 성장하여 2014년에는 83조원까지 성장함.

○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과 카드위기 직후인 2004년에는 금융업 실질부가가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2009년까지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음.

<그림 Ⅲ-7>　　금융업 부가가치

(단위 : 조원)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금융업 부가가치와 금융업 취업자수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실시함.

○ 공적분 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검정방법에는 Kremer, Ericsson, Dolado (1992)의 Error-Correction Model, Engle and Yoo(1987)의 Augmented Dickey Fuller test, Engle and Granger(1987)의 2OLS, 그리고 Johansen(1991, 1995)의 Johansen test 등이 있는

데, 이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Johansen test를 적용함.

○ Johansen test는 모든 변수를 내생(endogenous)변수로 간주하는 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공적분관계를 검정하는 검정법임.

○ 검정결과 두 변수간의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어서 두 변수간에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4>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Sample (adjusted): 2001Q4 2014Q4
Included observations: 53 after adjustments
Trend assumption: Linear deterministic trend
Series: EMP GDP
Lags interval (in first differences): 1 to 2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Trac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Trace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291118	27.42415	15.49471	0.0005
At most 1 *	0.159174	9.188643	3.841466	0.0024

Trac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Unrestricted Cointegration Rank Test (Maximum Eigenvalue)

Hypothesized No. of CE(s)	Eigenvalue	Max-Eigen Statistic	0.05 Critical Value	Prob.**
None *	0.291118	18.23550	14.26460	0.0112
At most 1 *	0.159174	9.188643	3.841466	0.0024

Max-eigenvalue test indicates 2 cointegrating eqn(s) at the 0.05 level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MacKinnon-Haug-Michelis (1999) p-values

□ 한편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탄력성, 취업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음.

□ 이 중에서도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1% 변동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지표임.

○ 우리나라 고용탄력성은 금융위기이전에는 0.17, 위기이후에는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0.13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이후 연평균 0.16로 나타남.

○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 GDP가 1% 증가할 때 취업자수는 0.16% 증가하는 것으로, 2014년 현재 취업자수가 2,559.9만명임을 고려할 때 실질 GDP가 1% 증가할 때 취업자수는 약 4.10만명 증가

<표 Ⅲ-5> 고용탄력성[1)]

(단위 : %)

구분	금융위기이전[2)]	금융위기이후	2001년이후
경제성장률	6.80	3.22	5.26
취업자수증가율	1.16	0.42	0.84
고용탄력성[3)]	0.17	0.13	0.16

주 : 1) 기간중 연평균 2) 2001~2008년
3) 취업자수증가율/실질GDP증가율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가가치 증가율이 취업자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하기로 함.

○ 이는 고용탄력성이 부가가치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파악하기에 가장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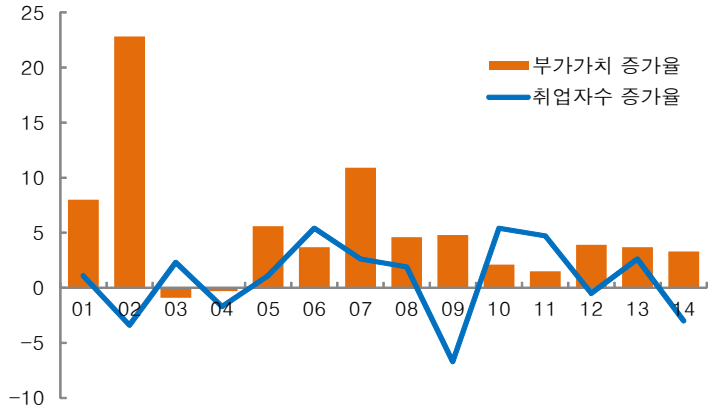
□ 1993년 이후 금융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취업자수는 연평균 1.9%씩, 부가가치는 연평균 5.9%씩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업 고용탄력성은 1.9/5.9로 약 0.32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업에서 부가가치가 1% 늘어나면 취업자수는 0.32% 늘어남을 의미함.

○ 2014년 현재 금융업 취업자수가 83.7만명임을 감안할 때 금융업 부가가치가 1% 늘어나면 금융업 취업자수는 83.7만명×0.32%에 해당하는 2,678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Ⅲ-8> 금융업 취업자수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나. 금융업권별 인력 수요 전망

□ 위와 같은 가정을 근거로 향후 5년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해 보면 시나리오 1에서는 매년 14,686명, 시나리오 2에서는 매년 9,805명, 그리고 시나리오 3에서는 매년 4,694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증가율로 보면 시나리오 1은 1.6~1.8%, 시나리오 2는 1.1~1.2%, 그리고 시나리오 3은 0.5~0.6% 정도의 금융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Ⅲ-6>　　금융인력 수요 전망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시나리오 1	851,684	866,544	881,300	895,856	910,428	
	(14,684)	(14,860)	(14,756)	(14,556)	(14,572)	(14,686)
시나리오 2	846,910	856,937	866,809	876,434	886,026	
	(9,910)	(10,027)	(9,872)	(9,625)	(9,592)	(9,805)
시나리오 3	842,136	847,219	851,980	856,328	860,469	
	(5,136)	(5,083)	(4,760)	(4,348)	(4,141)	(4,694)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

<표 Ⅲ-7>　　금융인력 수요 증가율 전망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나리오 1	1.75	1.74	1.70	1.65	1.63
시나리오 2	1.18	1.18	1.15	1.11	1.09
시나리오 3	0.61	0.60	0.56	0.51	0.48

주 : 전년대비 증가율

□ 다만 위의 금융인력 수요 증감은 해당년도의 입직자와 이직자를 가감한 순증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의 경우 2015년 취업자수가 851,684명이고 2014년 취업자수가 837,000명이어서 2015년 취업자수는 14,684명 증가함.

○ 이 때 14,686명 모두가 신규채용된 인원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입직자(신규채용된 자)에서 이직자(퇴직한 자)를 차감한 인원수를 나타냄.

○ 따라서 퇴직자 등 이직자를 감안하면 입직자는 14,686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1) 금융업권별 인력비중이 불변인 경우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4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함.

○ 예를 들면 향후 5년간 은행권 취업자수 비중은 전체에서 48.7%를 차지하는 등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표 Ⅲ-8>　　업권별 인력비중

(단위 : %)

은행	보험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	저축은행	여신전문	신협	합계
48.7	21.6	13.2	2.0	2.5	8.6	3.4	100.0

주 : 1) 2014년 금융인력조사 기준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이 경우 각 시나리오별 금융인력 수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Ⅲ-9>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414,895	422,134	429,322	436,413	443,512
보험	183,949	187,158	190,345	193,489	196,636
증권/선물	112,000	113,955	115,895	117,809	119,726
자산운용/신탁	17,053	17,351	17,646	17,938	18,230
저축은행	21,249	21,620	21,988	22,351	22,715
여신	73,582	74,866	76,141	77,398	78,657
신협	28,956	29,461	29,963	30,458	30,953
계	851,684	866,544	881,300	895,856	910,428

<표 Ⅲ-10>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412,569	417,454	422,263	426,952	431,624
보험	182,918	185,083	187,215	189,294	191,366
증권/선물	111,373	112,691	113,989	115,255	116,517
자산운용/신탁	16,958	17,159	17,356	17,549	17,741
저축은행	21,130	21,380	21,626	21,867	22,106
여신	73,169	74,036	74,889	75,720	76,549
신협	28,794	29,135	29,470	29,798	30,124
계	846,910	856,937	866,809	876,434	886,026

<표 Ⅲ-11>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410,243	412,720	415,039	417,157	419,174
보험	181,886	182,984	184,013	184,952	185,846
증권/선물	110,745	111,413	112,039	112,611	113,156
자산운용/신탁	16,862	16,964	17,059	17,146	17,229
저축은행	21,011	21,138	21,256	21,365	21,468
여신	72,757	73,196	73,607	73,983	74,341
신협	28,631	28,804	28,966	29,114	29,255
계	842,136	847,219	851,980	856,328	860,469

2) 금융업권별 인력비중이 변하는 경우

□ 앞서 언급한 '향후 5년간 업권별 인력비중이 2013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있는 가정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한 금융업권별 인력전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이후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저축은행의 자산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보험, 증권, 자산운용/신탁, 여신 등의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은행 자산의 경우 2008년말에는 전체 금융권 자산의 70.4%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6월말에는 59.5%로 1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Ⅲ-12>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은행	70.1	68.9	70.4	66.9	64.3	62.8	60.6	60.0	59.5
보험	16.2	15.9	14.8	16.5	17.7	18.1	20.9	21.9	22.1
증권/선물	4.7	5.7	5.4	6.2	7.0	7.5	7.8	7.8	8.6
자산운용/신탁	0.2	0.2	0.2	0.3	0.2	0.2	0.2	0.1	0.1
저축은행	2.6	2.5	2.6	3.1	3.0	2.2	1.5	1.1	1.0
여신	5.0	5.7	5.4	5.5	6.1	7.7	7.4	7.4	7.1
신협	1.3	1.2	1.2	1.5	1.7	1.6	1.7	1.6	1.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기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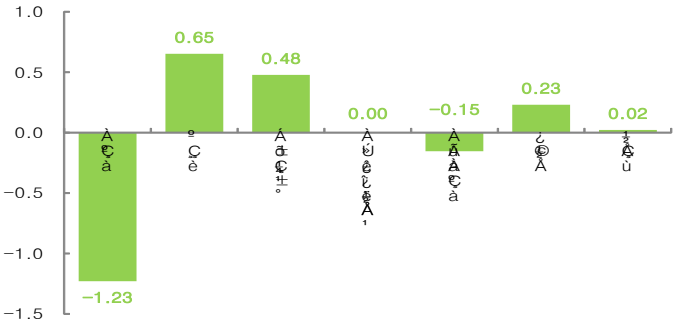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 즉 은행자산은 매년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1.23%p 씩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보험은 매년 0.65%p 씩, 증권/선물은 매년 0.48%p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9>　　금융업권별 자산비중의 전년대비 차이[1)]

(단위 : %p)



주 : 1) 2005~2014년 6월 기간중 평균값

□ 이와 같은 추세가 향후 5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2019년이 되면 은행 비중은 53.4%로, 보험 비중은 25.4%로 증권/선물 비중은 10.9%로 달라지게 됨.

○ 예를 들면 은행 비중은 2014년에 59.5%이었으나 매년 1.23%p 하락하여 2015년에는 58.3%, 2016년에는 57.1% 등으로 낮아지게 됨.

<표 Ⅲ-13>　　금융업권별 자산비중 추이 전망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59.5	58.3	57.1	55.8	54.6	53.4
보험	22.1	22.8	23.4	24.1	24.7	25.4
증권/선물	8.6	9.0	9.5	10.0	10.5	10.9
자산운용/신탁	0.1	0.1	0.1	0.1	0.1	0.1
저축은행	1.0	0.9	0.7	0.5	0.4	0.2
여신	7.1	7.3	7.5	7.8	8.0	8.2
신협	1.6	1.6	1.6	1.6	1.7	1.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향후 5년간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계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별 자산규모와 취업자수의 장기시계열이 필요

○ 그러나 금융업권별 취업자수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산업의 구조가 바뀌면서 일관된 업권별 분류도 가능하지 않음.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통계청에서는 금융업 취업자수 전체만을 공표하고 있을 뿐, 금융업권별로 취업자수를 별도로 공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자산의 변화가 금융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업권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업권별 금융자산 비중의 변화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서민밀착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증권/선물, 자산운용/신탁의 경우에는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많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업권별로 자산비중이 달라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업권별 자산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는 것은 상당한 전망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업권별 자산비중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향후 추세정도라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전망의 오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업권별로 자산비중의 증가율이 금융인력 수요 비중의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자 함.

○ 즉 은행의 경우 2015년에 자산비중이 2.1% 하락했는데 이 때 금융인력 수요 비중도 동일하게 2.1% 하락한 것으로 가정함.

○ 이러한 가정하에서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을 산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Ⅲ-14>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 추이 전망

(단위 :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48.7	47.6	46.4	45.3	44.2	43.1
보험	21.6	22.2	22.7	23.3	23.9	24.4
증권/선물	13.2	13.8	14.5	15.2	15.9	16.6
자산운용/신탁	2.0	2.0	1.9	1.9	1.9	1.9
저축은행	2.5	2.1	1.7	1.3	1.0	0.6
여신	8.6	8.9	9.1	9.4	9.7	9.9
신협	3.4	3.4	3.5	3.5	3.6	3.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비중 전망을 근거로 시나리오별 금융인력 수요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Ⅲ-15>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405,144	402,348	399,226	395,740	391,992
보험	188,824	197,051	205,394	213,826	222,398
증권/선물	117,914	125,954	134,148	142,477	150,972
자산운용/신탁	16,806	16,850	16,884	16,908	16,925
저축은행	17,949	14,923	11,801	8,585	5,277
여신	75,757	79,279	82,854	86,471	90,150
신협	29,290	30,138	30,992	31,849	32,715
계	851,684	866,544	881,300	895,856	910,428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Ⅲ-16>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402,872	397,888	392,662	387,161	381,486
보험	187,766	194,867	202,017	209,191	216,437
증권/선물	117,253	124,558	131,942	139,388	146,925
자산운용/신탁	16,712	16,663	16,607	16,541	16,471
저축은행	17,848	14,758	11,607	8,398	5,135
여신	75,332	78,400	81,492	84,597	87,734
신협	29,125	29,804	30,483	31,159	31,839
계	846,910	856,937	866,809	876,434	886,026

<표 Ⅲ-17> 업권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은행	400,601	393,376	385,944	378,279	370,482
보험	186,708	192,657	198,561	204,392	210,194
증권/선물	116,592	123,145	129,685	136,190	142,687
자산운용/신탁	16,618	16,474	16,323	16,162	15,996
저축은행	17,747	14,590	11,409	8,206	4,987
여신	74,908	77,511	80,098	82,656	85,203
신협	28,961	29,466	29,961	30,444	30,920
계	842,136	847,219	851,980	856,328	860,469

다. 직무별 인력 수요 전망

□ 향후 5년간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직무별 인력비중이 2014년 금융인력조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

<표 Ⅲ-18>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1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28,721	29,222	29,719	30,210	30,702
	인사·총무·홍보	34,324	34,923	35,517	36,104	36,691
	조사 연구· 리서치	7,643	7,776	7,909	8,039	8,170
	IT 시스템 운영 등	23,699	24,113	24,523	24,928	25,334
	IT 보안	7,042	7,165	7,287	7,407	7,527
	감사, 법무 등	22,043	22,428	22,810	23,186	23,564
	합계	123,471	125,626	127,765	129,875	131,988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386,071	392,807	399,496	406,094	412,699
	기업영업	68,649	69,846	71,036	72,209	73,384
	상품개발	12,192	12,404	12,616	12,824	13,033
	마케팅 등	46,409	47,219	48,023	48,816	49,610
	합계	513,320	522,276	531,170	539,943	548,725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19,465	19,805	20,142	20,475	20,808
	결제	6,636	6,751	6,866	6,980	7,093
	채권추심	16,013	16,293	16,570	16,844	17,118
	합계	42,114	42,849	43,579	44,298	45,019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9,657	9,826	9,993	10,158	10,323
	파생상품	4,198	4,271	4,344	4,415	4,487
	외환	1,873	1,906	1,938	1,970	2,002
	Alt. Investment	3,887	3,955	4,023	4,089	4,156
	합계	19,615	19,958	20,298	20,633	20,968
자산관리	신탁	4,497	4,576	4,654	4,731	4,807
	연금	2,504	2,547	2,591	2,633	2,676
	투자자문	1,352	1,376	1,399	1,422	1,445
	PB	16,646	16,936	17,225	17,509	17,794
	합계	24,999	25,435	25,868	26,295	26,723
보험	Claim관리	3,589	3,651	3,713	3,775	3,836
	언더라이팅	7,676	7,810	7,943	8,075	8,206
	손해사정	13,853	14,094	14,334	14,571	14,808
	보험계리	2,037	2,073	2,108	2,143	2,178
	합계	27,155	27,629	28,099	28,563	29,028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4,130	4,202	4,274	4,345	4,415
	기업금융	5,075	5,163	5,251	5,338	5,425
	M&A	717	730	742	754	767
	합계	9,922	10,095	10,267	10,437	10,606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91,088	92,677	94,255	95,812	97,370
합계		851,684	866,544	881,300	895,856	910,428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Ⅲ-19>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2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28,560	28,898	29,231	29,555	29,879
	인사·총무·홍보	34,131	34,536	34,933	35,321	35,708
	조사 연구· 리서치	7,600	7,690	7,779	7,865	7,951
	IT 시스템 운영 등	23,566	23,845	24,120	24,388	24,655
	IT 보안	7,002	7,085	7,167	7,246	7,326
	감사, 법무 등	21,920	22,179	22,435	22,684	22,932
	합계	122,779	124,233	125,664	127,060	128,450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383,906	388,452	392,927	397,290	401,638
	기업영업	68,264	69,072	69,868	70,644	71,417
	상품개발	12,123	12,267	12,408	12,546	12,683
	마케팅 등	46,149	46,695	47,233	47,758	48,280
	합계	510,442	516,486	522,436	528,237	534,018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19,356	19,585	19,811	20,031	20,250
	결제	6,598	6,677	6,753	6,828	6,903
	채권추심	15,924	16,112	16,298	16,479	16,659
	합계	41,878	42,374	42,862	43,338	43,812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9,603	9,717	9,829	9,938	10,047
	파생상품	4,174	4,224	4,272	4,320	4,367
	외환	1,863	1,885	1,906	1,928	1,949
	Alt. Investment	3,866	3,911	3,957	4,000	4,044
	합계	19,506	19,736	19,964	20,186	20,406
자산관리	신탁	4,472	4,525	4,577	4,628	4,679
	연금	2,490	2,519	2,548	2,576	2,605
	투자자문	1,345	1,360	1,376	1,391	1,407
	PB	16,552	16,748	16,941	17,130	17,317
	합계	24,859	25,153	25,443	25,725	26,007
보험	Claim관리	3,568	3,611	3,652	3,693	3,733
	언더라이팅	7,633	7,724	7,813	7,900	7,986
	손해사정	13,775	13,938	14,099	14,255	14,411
	보험계리	2,026	2,050	2,073	2,096	2,119
	합계	27,003	27,322	27,637	27,944	28,250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4,107	4,156	4,204	4,250	4,297
	기업금융	5,046	5,106	5,165	5,222	5,279
	M&A	713	721	730	738	746
	합계	9,866	9,983	10,098	10,210	10,322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90,577	91,650	92,705	93,735	94,761
합계		846,910	856,937	866,809	876,434	886,026

<표 Ⅲ-20> 직무별 금융인력 수요 : 시나리오 3

(단위 : 명)

대분류	소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28,399	28,570	28,731	28,877	29,017
	인사·총무·홍보	33,939	34,144	34,336	34,511	34,678
	조사 연구· 리서치	7,557	7,603	7,646	7,685	7,722
	IT 시스템 운영 등	23,434	23,575	23,708	23,829	23,944
	IT 보안	6,963	7,005	7,044	7,080	7,114
	감사, 법무 등	21,796	21,928	22,051	22,163	22,271
	합계	122,087	122,824	123,514	124,145	124,745
영업·마케팅	개인영업	381,742	384,047	386,205	388,176	390,053
	기업영업	67,879	68,289	68,672	69,023	69,357
	상품개발	12,055	12,128	12,196	12,258	12,317
	마케팅 등	45,889	46,166	46,425	46,662	46,888
	합계	507,565	510,629	513,498	516,119	518,614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19,247	19,363	19,472	19,571	19,666
	결제	6,561	6,601	6,638	6,672	6,704
	채권추심	15,834	15,929	16,019	16,101	16,179
	합계	41,642	41,893	42,129	42,344	42,548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9,549	9,607	9,660	9,710	9,757
	파생상품	4,151	4,176	4,199	4,221	4,241
	외환	1,852	1,863	1,874	1,883	1,892
	Alt. Investment	3,844	3,867	3,889	3,909	3,928
	합계	19,396	19,513	19,622	19,722	19,818
자산관리	신탁	4,447	4,474	4,499	4,522	4,544
	연금	2,476	2,490	2,504	2,517	2,529
	투자자문	1,337	1,345	1,353	1,359	1,366
	PB	16,459	16,559	16,652	16,737	16,817
	합계	24,718	24,868	25,007	25,135	25,257
보험	Claim관리	3,548	3,570	3,590	3,608	3,626
	언더라이팅	7,590	7,636	7,679	7,718	7,756
	손해사정	13,697	13,780	13,857	13,928	13,996
	보험계리	2,014	2,026	2,038	2,048	2,058
	합계	26,850	27,012	27,164	27,303	27,435
투자은행	구조화금융	4,084	4,109	4,132	4,153	4,173
	기업금융	5,018	5,048	5,076	5,102	5,127
	M&A	709	713	717	721	724
	합계	9,811	9,870	9,925	9,976	10,024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90,067	90,610	91,119	91,584	92,027
합계		842,136	847,219	851,980	856,328	860,469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라. 학력별 인력 수요 전망

□ 한편 향후 5년간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학력별 인력비중이 2014년 금융인력조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함.

<표 Ⅲ-21>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시나리오 1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졸	179,904	183,043	186,160	189,235	192,313
전문대	121,503	123,623	125,728	127,805	129,884
대졸	441,849	449,558	457,213	464,765	472,325
대학원졸	108,428	110,320	112,198	114,051	115,907
합계	851,684	866,544	881,300	895,856	910,428

<표 Ⅲ-22>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시나리오 2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졸	178,896	181,014	183,099	185,133	187,159
전문대	120,822	122,253	123,661	125,034	126,403
대졸	439,372	444,574	449,696	454,689	459,665
대학원졸	107,820	109,097	110,353	111,579	112,800
합계	846,910	856,937	866,809	876,434	886,026

<표 Ⅲ-23> 학력별 금융인력 수요: 시나리오 3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고졸	177,888	178,961	179,967	180,885	181,760
전문대	120,141	120,866	121,545	122,166	122,756
대졸	436,895	439,532	442,002	444,258	446,406
대학원졸	107,212	107,859	108,466	109,019	109,546
합계	842,136	847,219	851,980	856,328	860,469

마.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

□ 2014년중 취업자수는 2,559.9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13%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수는 83.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13% 감소함.

<표 Ⅲ-24> 전산업 및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 및 증가율

(단위 : 천명, %)

구분	전산업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수	증가율	취업자수	증가율
2004	22,557		737	
2005	22,856	1.33	745	1.09
2006	23,151	1.29	786	5.50
2007	23,433	1.22	806	2.54
2008	23,577	0.61	821	1.86
2009	23,506	-0.30	766	-6.70
2010	23,829	1.37	808	5.48
2011	24,244	1.74	846	4.70
2012	24,681	1.80	842	-0.47
2013	25,066	1.56	864	2.61
2014	25,599	2.13	837	-3.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취업자수 통계를 이용하여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2014년의 경우 전산업은 2.13% 증가하였는데 이중 금융/보험업의 기여도는 -0.11%p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5>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1)]

(단위 : %, %p)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융/보험	0.04	0.18	0.09	0.06	-0.23	0.18	0.16	-0.02	0.09	-0.11
전산업	1.33	1.29	1.22	0.61	-0.30	1.37	1.74	1.80	1.56	2.13

주 : 1) 기여도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은행 발간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석」(2014년 개정판)을 참고하길 바람.

<표 Ⅲ-26> 산업 대분류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

(단위 : %, %p)

구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전산업
2005	-0.04	-0.21	0.00	-0.02	1.60	1.32
2006	-0.14	-0.32	0.02	0.09	1.66	1.30
2007	-0.25	-0.19	0.04	0.07	1.53	1.21
2008	-0.13	-0.22	0.02	-0.16	1.10	0.61
2009	-0.16	-0.54	0.03	-0.39	0.76	-0.31
2010	-0.36	0.82	-0.08	0.14	0.86	1.38
2011	-0.12	0.26	-0.01	-0.01	1.62	1.75
2012	-0.07	0.06	0.00	0.09	1.71	1.79
2013	-0.03	0.32	0.06	-0.08	1.30	1.57
2014	-0.28	0.58	-0.03	0.17	1.69	2.13

<표 Ⅲ-27> 서비스업 세분류 업종별 일자리 창출 기여도

(단위 : %, %p)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027	0.026	0.000	0.017	0.025	-0.03	0.025	0.008	0.000	0.056
도매 및 소매업	-0.248	-0.153	-0.164	-0.179	-0.131	-0.085	0.243	0.210	-0.117	0.527
운수업	0.129	0.123	0.233	0.004	-0.004	0.140	0.218	0.198	0.134	-0.024
숙박 및 음식점업	0.004	-0.039	0.000	-0.021	-0.458	-0.200	-0.147	0.214	0.263	0.50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142	0.057	-0.073	-0.03	0.106	0.068	0.147	-0.012	-0.032	0.088
금융 및 보험업	0.035	0.179	0.086	0.064	-0.233	0.179	0.159	-0.016	0.089	-0.10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191	0.018	0.022	-0.068	0.047	0.072	-0.130	0.000	-0.004	0.09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84	0.245	0.091	0.230	0.373	0.166	0.327	0.276	-0.024	0.0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248	0.337	0.583	0.085	-0.127	0.336	0.264	0.124	0.231	0.02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102	0.044	-0.017	0.184	0.814	-0.306	-0.038	0.000	0.061	-0.036
교육 서비스업	0.262	0.429	0.164	0.188	0.199	-0.136	-0.474	0.239	0.016	0.2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217	0.184	0.255	0.435	0.662	0.659	0.663	0.363	0.628	0.55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64	-0.018	-0.035	0.205	-0.123	-0.043	0.155	-0.033	-0.069	0.0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217	0.210	0.311	0.026	-0.365	0.021	0.189	0.103	0.105	-0.0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 생산활동	0.022	0.035	0.099	-0.047	-0.013	0.013	0.013	0.054	0.024	-0.223
국제 및 외국기관	0.000	-0.018	-0.022	0.004	-0.013	0.000	0.000	-0.016	-0.008	0.028
서비스업 전체	1.596	1.658	1.533	1.097	0.759	0.855	1.616	1.712	1.297	1.692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3. 금융관련 전공별, 학위별, 자격증보유자 인력 공급 전망

가. 전공기준 인력 공급 전망

□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는 여러 방법중 하나는 전공별 졸업 및 재적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임.

○ 동 방법은 금융인력의 전공이 대체로 상공계열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매년 상공계열 졸업생을 금융인력 신규공급 규모로 보는 방법임.

○ 다만 동 방법은 법학, 공학계열 등 상공계열이 아닌 타전공자도 금융권에 취업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졸업생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 제외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타전공자의 경우에는 금융권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금융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금융인력 신규공급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동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록 정확한 공급규모를 파악할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공급규모라도 파악해 보기 위함임.

□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경상계열 취업대상자는 56,120명인 것으로 추정됨.

○ 교육통계연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부전공별 졸업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대계열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경상계열 졸업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계열 대비 각 항목별 평균비중을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취업대상자 수를 추정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2014년 경제·경영의 취업대상자는 48,296명, 금융·회계·세무는 7,815명으로 추정됨.

<표 Ⅲ-28> 전공별 취업대상자[1)]

(단위: 명)

구분	사회계열	경상계열	경제·경영	금융·회계·세무
2006	125,368	56,757	48,785	7,972
2007	130,660	55,965	48,350	7,578
2008	134,018	55,281	47,605	7,676
2009	137,631	55,131	47,280	7,851
2010	135,323	57,313	49,323	7,981
2011	137,184	58,101	50,001	8,091
2012	140,612	59,553	51,250	8,293
2013	133,904	56,712	48,805	7,897
2014	132,506	56,120	48,296	7,815

주 : 1) 취업대상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자료: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한편 입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경상계열의 입학생은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면서 2014년 현재 79,901명을 기록

○ 전공별로 보면, 경제·경영은 2006~2011년중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금융·회계·세무는 2006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

○ 증가율로 보면 경상계열은 평균적으로 매년 입학생이 0.53%씩, 경제·경영은 0.23%, 금융·회계·세무는 2.96%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Ⅲ-29> 전공별 입학생 추이

(단위: 명)

구분	경상계열	경제·경영	금융·회계·세무
2006	76,695	68,661	8,034
2007	78,087	69,412	8,675
2008	77,818	68,658	9,160
2009	79,517	69,775	9,742
2010	82,344	72,090	10,254
2011	83,648	73,462	10,186
2012	83,323	73,026	10,297
2013	81,432	70,789	10,643
2014	79,901	69,822	10,079

자료: 2013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표 Ⅲ-30> 전공별 입학생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구분	경상계열	경제·경영	금융·회계·세무
2007	1.81	1.09	7.98
2008	-0.34	-1.09	5.59
2009	2.18	1.63	6.35
2010	3.56	3.32	5.26
2011	1.58	1.90	-0.66
2012	-0.39	-0.59	1.09
2013	-2.27	-3.06	3.36
2014	-1.88	-1.37	-5.30
평균	0.53	0.23	2.96

자료: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2011~2015년 입학생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졸업생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매년 55,476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2015년에는 57,009명, 2016년에는 56,787명, 2017년에는 55,498명, 2018년에는 54,455명, 그리고 2019년에는 53,631명으로 추정됨.

○ 전공별로 보면, 경제·경영은 매년 47,742명, 금융·회계·세무는 7,725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2015년 입학생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치로 추정**

<표 Ⅲ-31> 금융인력 공급규모 : 전공 기준

(단위: 명)

구분	경상계열	경제·경영	금융·회계·세무
2015	57,009	49,061	7,939
2016	56,787	48,870	7,908
2017	55,498	47,761	7,728
2018	54,455	46,863	7,583
2019	53,631	46,154	7,468

나. 학위기준 인력 공급 전망

□ 학위별 졸업상황을 보면, 2014년 대학의 취업대상자는 31,441명, 전문대학은 22,837명, 대학원은 1,842명으로 추정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Ⅲ-32> 학위별 취업대상자

(단위: 명)

구분	경상계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006	56,757	24,198	30,717	1,842
2007	55,965	23,264	30,910	1,791
2008	55,281	21,826	31,614	1,841
2009	55,131	21,397	31,881	1,853
2010	57,313	23,323	32,109	1,881
2011	58,101	23,643	32,551	1,907
2012	59,553	24,234	33,364	1,955
2013	56,712	23,078	31,773	1,861
2014	56,120	22,837	31,441	1,842

주 : 1) 취업대상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자료: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입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학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에도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학위별로 보면, 대학은 2014년 40,774명을 기록하였으며 전문대학은 23,509명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대학원은 15,61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증가율로 보면 대학은 매년 입학생이 1.47%씩, 대학원은 2.96%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은 2.09%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표 Ⅲ-33> 학위별 입학생 추이

(단위: 명)

구분	경상계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006	76,695	27,963	36,324	12,408
2007	78,087	28,464	36,926	12,697
2008	77,818	28,012	36,984	12,822
2009	79,517	26,923	38,759	13,835
2010	82,344	28,002	39,619	14,723
2011	83,648	27,805	40,541	15,302
2012	83,323	26,500	41,365	15,458
2013	81,432	25,123	41,009	15,300
2014	79,901	23,509	40,774	15,618

자료: 2013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표 Ⅲ-34> 학위별 입학생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구분	경상계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007	1.81	1.79	1.66	2.33
2008	-0.34	-1.59	0.16	0.98
2009	2.18	-3.89	4.80	7.90
2010	3.56	4.01	2.22	6.42
2011	1.58	-0.70	2.33	3.93
2012	-0.39	-4.69	2.03	1.02
2013	-2.27	-5.20	-0.86	-1.02
2014	-1.88	-6.42	-0.57	2.08
평균	0.53	-2.09	1.47	2.96

자료: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및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향후 5년간 학위별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보면, 대학은 매년 31,080명, 전문대학은 22,575명, 대학원은 1,821명의 금융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됨.

○ 대학의 공급규모는 2015년 31,939명에서 2019년 30,047명으로 감소하면, 전문대학도 2015년 23,199명에서 21,824명으로 감소할 전망

<표 Ⅲ-35> 금융인력 공급규모 : 학위별 기준

(단위: 명)

구분	경상계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015	57,009	23,199	31,939	1,871
2016	56,787	23,109	31,815	1,864
2017	55,498	22,584	31,093	1,821
2018	54,455	22,160	30,508	1,787
2019	53,631	21,824	30,047	1,760

다. 자격증보유기준 인력 공급 전망

□ 금융투자부문 자격시험의 응시인원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보험부문 자격증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소폭 감소

○ 금융투자부문 자격증별로 보면, 2013년 펀드투자상담사는 55,314명, 증권투자상담사는 26,260명, 파생상품투자상담사는 21,707명, 금융투자분석사는 1,296명이 시험에 응시하였음.

○ 보험부문의 경우, 2013년 손해사정사가 2,7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계리사가 929명, 보험중개사가 362명 순으로 나타남.

<표 Ⅲ-36> 금융관련 자격증 응시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금융투자부문	180,003	153,018	132,520	111,085
펀드투자상담사	66,218	73,808	61,240	55,314
증권투자상담사	40,044	31,043	32,567	26,260
파생상품투자상담사	60,204	35,583	28,069	21,707
금융투자분석사	969	1,985	1,325	1,296
투자자산운용사	11,350	9,755	8,543	5,774
재무위험관리사	1,218	844	776	734
보험부문	4,007	4,229	4,583	4,079
보험계리사	902	937	877	929
손해사정사	2,040	2,269	2,880	2,788
보험중개사	1,065	1,023	826	362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금융투자부문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응시인원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보험부문의 경우 평균 787명이 매년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2013년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합격자수는 2010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보험부문 자격증별로 보면,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는 합격자가 늘어나는 반면, 보험중개사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Ⅲ-37> 금융관련 자격증 합격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금융투자부문	72,228	52,748	45,556	43,299
펀드투자상담사	26,090	29,791	24,421	23,798
증권투자상담사	15,086	9,571	9,550	9,790
파생상품투자상담사	26,295	9,810	8,459	7,763
금융투자분석사	371	663	394	357
투자자산운용사	3,918	2,590	2,479	1,338
재무위험관리사	468	323	253	253
보험부문	827	795	827	697
보험계리사	120	120	140	141
손해사정사	424	428	457	461
보험중개사	283	247	230	95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 최근 4년간 금융관련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보험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및 금융투자분석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보험계리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 현재 765명을 기록하였으며, 손해사정사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3년 2,014명으로 집계

<표 Ⅲ-38> 금융관련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금융투자부문	317,629	314,045	290,901	294,974
펀드투자상담사	130,810	132,667	130,894	132,186
증권투자상담사	91,625	96,517	97,910	99,583
파생상품투자상담사	81,773	71,474	48,691	49,803
투자자산운용사	11,636	11,697	11,707	11,840
금융투자분석사	1,575	1,452	1,470	1,335
위험관리전문인력	210	238	229	227
보험부문	2,392	2,531	2,826	2,779
보험계리사	527	581	715	765
손해사정사	1,865	1,950	2,111	2,014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부문 금융인력 공급규모는 2015년 238,285명에서 2019년 175,09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부문은 2015년 2,987명에서 2019년 3,458명으로 증가할 전망

○ 최근 3년간 자격시험 합격자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향후 금융인력 공급규모를 추정하였음.

○ 금융투자부문의 경우, 금융투자분석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격시험의 합격자 평균증가율이 감소하면서 향후 금융인력 공급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는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향후 금융인력 공급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Ⅲ-39> 금융인력 공급규모 : 자격증별 기준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융투자부문		238,285	217,829	200,996	186,956	175,095
	펀드투자상담사	126,614	123,916	121,277	118,693	116,164
	증권투자상담사	78,135	69,211	61,306	54,305	48,102
	파생상품투자상담사	25,653	18,411	13,213	9,483	6,806
	투자자산운용사	6,126	4,407	3,170	2,280	1,640
	금융투자분석사	1,603	1,757	1,925	2,109	2,311
	위험관리전문인력	154	127	105	86	71
보험부문		2,987	3,098	3,213	3,333	3,458
	보험계리사	856	906	958	1,014	1,073
	손해사정사	2,131	2,192	2,255	2,319	2,386

Ⅳ. 시사점

1 금융권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본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중 금융업 일자리는 전산업 평균 일자리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하락하였음.

○ 2014년 중 취업자 수는 2,559.9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2.13%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83.7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13% 감소함.

○ 이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0.11%p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취업준비기간 장기화 등에 따른 양질의 유휴노동력 증가,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한 생산성 둔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

○ 청년층을 중심으로 非양질의 일자리에 고용된 취업자의 이동성이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저하

○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하는 등 소득분배구조 개선에도 걸림돌로 작용

□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권에서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IT·금융 융합에 대응한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으며, 저금리·고령화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인력 글로벌 역량 강화

□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별도의 해외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해외진출은 현지 언어가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해외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언어 능통자를 현지에 보내는 경향

○ 또한, 중간 관리자의 경우 현지에서 6개월 정도의 OJT를 거쳐 임명되는 등 현지 적응기간이 매우 짧은 것도 현실적인 문제

*** 일반적으로 현지 근무 기간이 3~4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업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

□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현지 및 본사 국제부서에서 활약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 금융기관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금융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의 성공여부도 관련 인력의 전문성에 달려 있음

○ 특히,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현지 및 본국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

□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점포 근무자를 업무능력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선정할 필요

○ 해외진출과 관련된 한국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상당수 국내

금융회사는 지역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점포 근무자의 선정방식에 있어서 공정성이 부족하여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해외점포로 발령

○ 따라서 기존의 지역전문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해외점포 근무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경우 지역전문가가 해당 지역 점포로 파견될 것으로 기대

□ 또한 본점에서 해외진출을 기획·관리하는 직원들은 가급적 해외점포 근무 경험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집중적으로 진출할 국가의 점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재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

○ 본점에서 해외진출을 기획·관리하는 직원이 해외점포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경우 현지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해외진출 전략 상 집중적으로 진출할 국가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점포에서 근무한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해야 해당 국가에서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기획 및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 그리고 금융기관이 해외점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지 직원과 국내직원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은행은 아직 기업문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해외진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은행 본국 직원과 현지 직원 간 문화의 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해가 기본

○ 그러나 국내은행은 진출국 문화에 대한 이해보다 국내의 기업문화를 전파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본국의 여신심사 과정에서도 현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실제로 금융회사 해외영업이 활발해 지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수익성은 국내점포에 비해 우수한 편임.

○ 2003~2013년 중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총자산이익률은 평균 0.89%로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인 0.67%를 현격히 상회

<표 Ⅳ-1>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총자산이익률(ROA) 추이

(단위: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평균
해외점포	0.1	1.3	1.4	1.3	1.1	0.6	0.6	0.6	1.2	1.0	0.6	0.89
본점	0.2	0.9	1.3	1.1	1.1	0.5	0.4	0.5	0.7	0.5	0.2	0.67

자료: 금융감독원

□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성과는 해외영업의 이익기여도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2003~2013년 중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이익기여도는 1.42%에서 10.59%로 7.5배 확대

<표 Ⅳ-2> 국내은행의 해외영업 비중[1] 추이

(단위: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총자산	3.18	2.77	2.50	2.53	3.10	3.72	3.82	3.84	4.13	4.04	4.42
당기순이익	1.42	4.36	2.97	3.07	2.61	5.04	4.87	4.51	5.73	7.32	10.59

주: 1) 본점 대비 해외점포의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3 기술금융 및 금융보안 인력 확충

□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은 금융부문의 핵심기능으로 정착

○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실물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에 해당

○ 기술기업의 창업 및 성장, 발전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정책적 측면에서 핵심과제로 정착

○ 효과적인 기술금융시스템은 금융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결정요인에 해당

□ 향후 효과적인 기술금융체계 마련은 거시경제 측면이나 사회경제 측면, 금융발전 측면, 글로벌 경쟁력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기술금융의 발전은 신기술(new & innovative technology)을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

○ 또한 기술금융의 확산은 리스크 자본(risk capital)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위험분담을 통한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

***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분담을 분산시킴으로써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술 친화적 문화를 형성**

○ 기술금융의 체계화는 중장기 자금조달과 위험자본의 조달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친화적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촉진

○ 기술금융시스템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소규모개방경제(small-open economy)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필요

□ 향후 기술금융의 글로벌 경쟁력은 중장기 경제성장 기반 마련에 있어서 금융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新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술금융 인력은 전체 금융 인력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음.

○ 비록 각 금융기관들이 기보 등 외부의 기술평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기술금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경우 기술평가 기관인 슈바인바이스 재단은 기술이전·사업화, 계약관리·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Horizontal Expert)와 특정기술·마케팅·재무 등에 정통한 전문가(Vertical Expert)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직 1,572명*, 전문계약직 3,697명을 채용하고 있음.

*** 자료 한계상 기술금융 외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까지 포함한 수치임.**

○ 영국의 British Technology Group은 895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중에는 과학자 엔지니어,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음.

*** 자료 한계상 기술금융 외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까지 포함한 수치임.**

****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이전센터(NTTC,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ASA(American Society Appraisers, 평가사협회), NACVA(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lysis, 공인가치평가사협회), IBA(Institutes of Business Appraisers, 기업평가사협회), AUS컨설팅, ADL컨설팅 등에서 기술금융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원수는 파악할 수 없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관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할 필

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정보보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정보와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 또한 신용정보의 처리 절차를 엄격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제재 상향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

○ 그리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

□ 금융보안과 관련된 신뢰성을 회복을 위해 금융권도 금융보안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의 금융인력 재교육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본 조사의 한계점

□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조사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즉 본 조사에서의 금융기관은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금융상담·자산운용을 제공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대부업자, 환전업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금융업 종사자 수와는 다를 수 있음.

○ 또한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으나, 청소, 비서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간접고용인*의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의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업권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생명보험의 경**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우에는 직접고용인원은 28,133명인데 반해 간접고용인원은 141,569명에 달하고 있음.

○ 그리고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외주를 받아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도 본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필수항목을 엄격히 선별하여 설문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설문지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면 응답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예를 들면 자격증이나 영어 등은 기업들이 최근 요구하지 않는 자료임을 감안하여 설문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항목별로 합산이 맞지 않는 경우 사후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개별 금융회사가 직접 입력하되 부정확하게 입력된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설문 인프라를 웹 공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에서 작성해 온 자료를 취합할 때 부분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입력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Ⅳ-3> **업권별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은행		상호저축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전문		
			텔레마케터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카드모집인	텔레마케터
인력총계		5,819		7,438			169,702			13,789			38,138		
직접고용(소계)		1,276	1,276	6,187	10	161	28,133	0	0	8,797	5,027	2,089	209	43	166
직접고용	정규직	1,253	1,253	5,077	0	108	25,388	0	0	2,217	0	939	133	0	133
	비정규직	23	23	1,110	10	53	2,745	0	0	1,321	0	902	76	43	33
간접고용(소계)		4,543	4,543	1,251	861	247	141,569	137,196	4,373	4,992	4,149	0	37,929	29,057	8,872
간접고용	개인사업자	1,003	1,003	248	238	0	134,457	131,512	2,945	3,815	3,815	0	21,740	21,041	699
	위탁/파견	3,540	3,540	509	133	243	0	0	0	843	0	0	16,189	8,016	8,173
	법인(개/명)	0	0	494	490	4	7,112	5,684	1,428	334	334	0	0	0	0

주1) 정규직은 무기계약직 및 시간선택제 포함한 인원임.

주2) 기 조사하여 제출된 금융전문인력(직접고용) 현황 = 인력총계 - 간접고용

주3) 간접고용 인력 중 법인은 인력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 숫자를 기재함.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부록1> 금융인력 통계표 작성요령

1. 직무해설표

이번 금융인력 통계조사는 금융권 종사자의 직무를 업무 특성에 따라 7가지 대분류로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금융기관의 직무분류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직무의 경우에도 기관별로 그리고 업권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직무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금융업 직무 해설표(**<표 1> 참조)에 기재하였으니 통계표를 작성하실 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계 조사표

통계 조사표 파일을 보시면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 「부가조사표」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는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금융인력의 특성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는 향후 1년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각각 조사합니다.「부가 조사표」는 금융기관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을 조사합니다.

직무 해설표에서 제시한 직무 개념을 참조하여 **각 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수를 각 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계적 개념에 있어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한 사람이 중복 업무를 수행할 때는 중심업무 또는 비중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는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부가 조사표」**3개의 shee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통계 조사표 작성 요령

1. **총원**이라 함은 금융회사에서 일정한 근로조건하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상근임원 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원외 인원(비상근 임원, 사외이사 등)이나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은 제외됩니다.

2. **고용형태**에서 임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주십시오. 또한 금융회사에 따라 내부적인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주십시오.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상근임원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정규직 포함)
   * 비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피크타이머, 인턴 등)

3. **급여**는 성과급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세전)을 의미합니다. 급여 산정은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 인력의 경우 예상되는 급여수준을 반영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연령**은 만 기준입니다.

5. 총 근무기간 : 금융업에 종사한 총 기간
   입사 후 사내 총근무기간은 입사일 이후 조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휴직, 파견 등 기간 포함)

6. **현 직무 5년 연속 근무자**는 현재 직무에 연속해서 5년 이상 근무중인 직원을 의미합니다. 간헐적으로 현 직무에 근무한 총 합계가 5년 이상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직무연수**는 연수의 1회 지속기간이 사내와 외부연수인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연수인 경우 3주 이상 연수를 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기적으로 받은 연수의 총합이 3개월(사내, 외부연수) 또는 3주(해외연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8. **학력**의 경우 '전산'은 전자, 전산, 컴퓨터공학 및 통계학을 전공한 직원 수를 기재하고, '기타'는 본 분류 외 여타 전공을 이수한 직원의 수를 명기합니다.
   ○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에 대해서는 고졸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 MBA는 경영전문대학 출신자가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한국형 MBA 졸업자 또는 해외 MBA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9. **어학능력(영어)**은 TOEIC을 기준으로 875점 초과를 '상', 725~875점을 '중', 725점 미만을 '하'로 평가하여 해당되는 직원 수를 기록합니다.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영어능력의 경우 TOEFL과 TEPS의 성적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래의 어학성적 환산표를 참조하여 해당 인원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어학성적 환산 참고표

TOEIC	TOEFL			TEPS	OPIc	TOEIC	TOEFL			TEPS	OPIc
	CBT	iBT	PBT				CBT	iBT	PBT		
880	257	103	613	737~743	IM3	730	220	83	560	577~580	IM2
875	253	102	610	730~736	IM2	725	217	82	553	573~576	IM2
870	250	101	607	723~729	IM2	720	213	81	550	569~572	IM1

출처: TEPS관리위원회(2011.09기준). TEPS-TOEIC-TOEFL Conversion Table.

10. **어학능력(제2외국어)**은 중급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중급이상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중급이상 기준

구분 / 등급	중국어	일본어능력 시험 1급	프랑스어 DALF/DELF	스페인어 DELE 중급	러시아어 토르플	독일어 괴테어학원평가
5등급	7급(구) 5급(신)	280점이상	DELF B1	60점 이상	기본단계	B2

11. **자격증**의 경우 통계조사표 파일의 자격증 분류표(<표 2> 참조)를 토대로 각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력의 수를 직무별로 입력합니다.

○ 한 개인이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입력합니다. 단, 기타 자격증이 복수인 경우에는 하나의 기타 자격증으로 처리합니다.

○ 자격증 분류표에서 법정 자격이라 함은 '국가자격 및 정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의미합니다.

12. **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 해외에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인력의 수를 직무별로 입력합니다.

13. 해외금융기관 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해외 주재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 단,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파견자는 제외합니다.

14. 부가조사표의 기술금융 종사자란 3개 기술평가기관(TCB)을 통한 대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표 1> 금융업 직무 해설표

구분	세부직무	직 무 개 요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경영기획, 경영평가, 예산, 자금, 회계, 세무
	인사·총무·홍보	인사, 노무관리, 교육, 비서, 사무행정, 총무, 자산관리, 언론홍보
	조사 연구· 리서치	경제 및 산업 분석, 금융동향 모니터링,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IT 시스템운영 및 개발	정보시스템관련 기획, 개발, 운영
	IT 보안	정보기기관리, 보안 등 관련업무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법무, 감사, 내부규율감독, 준법감시 등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창구사무, 개인고객 여신심사 및 실행, 수신, 펀드, 신탁, 카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고객지원(콜센터)업무, 개인관련 외국환업무, 지점장, 보험영업소장 등
	기업영업(법인브로커)	기업영업, 기업여신심사 및 기업대상 방카슈랑스상품, 기타금융상품 판매, 수출입 외국환 관련업무
	상품개발	여수신상품, 펀드, 유가증권, 파생금융상품, 카드, 보험 및 기타자산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
	마케팅 기획· 고객관리	마케팅 전략기획, PR/광고, 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자산부채관리, 시장위험관리, 신용위험관리, 운영위험관리
	결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뒤 매도증권과 매수증권을 수수하는 업무
	채권추심	채무자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자산운용	펀드(주식, 채권)	펀드거래 및 수익평가, 주식, 채권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파생상품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평가, 운용,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
	외환	단기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자산의 운용,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해외발행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주식, 채권 등 기존투자대상이 아닌 제3의 자산에 대한 투자, PE, 헤지펀드, 부동산, 원자재, 금 투자 등
자산관리	신탁	고객신탁의 기획, 운용 및 수탁재산의 관리, 기록 및 보고업무
	연금	퇴직연금, 종신연금, 개인연금 등 관리 및 고객의 연금투자계획 자문, 지급 등 연금계획과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
	투자자문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추천 등의 자문을 수행
	PB	거액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자산관리, 자산계획수립 지원 등
보험	Claim관리	클레임의 등록, 조사, 해결 등 클레임과 관련된 제반내용을 처리
	언더라이팅	보험가입 희망자의 건강상태, 직업, 취미 등의 고지내용과 청약내용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
	손해사정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수행
	보험계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국내의 PF과정에 참여, 심사 및 자문수행, 비유동성자산의 유동화, 회사보유 고유자산의 직접투자, 사모펀드 조성 및 투자 등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 IPO, Relation Mgmt.)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주선, IPO등의 업무기획 및 개발, 이를 주관하고 사후관리를 수행
	M&A	기업의 인수와 합병, 구조조정 등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표 2 > 자격증 분류표

구분	자격의 종류		
국가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법정자격	투자권유 자문인력	1종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2종	증권투자상담사
		3종	파생상품투자상담사
		4종	투자자문상담사
		5종	전문투자자상담사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투자상담관리사
	투자운용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조사분석인력		금융투자분석사
	증권분석전문인력		자산평가분석사
	위험관리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집합투자전문인력		집합투자재산평가사
			집합투자재산계산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증권분석사		증권분석사
	보험판매인력		변액보험판매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민간자격	공인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관리사, 신용관리사, 재무설계사(AFPK)
	비공인		외환전문역1종/2종, 은행텔러,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언더라이터, 종합자산관리사(IFP), 기타
국제통용자격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기타		

<부록2> 금융인력 통계 조사표

1. 조사표는 크게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 「부가조사표」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2.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와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는 동일한 형식이며 「직무별 금융인력 현황 조사표」는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금융인력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향후 1년 이내 추가채용 예상규모 조사표」에 해당하는 채용기간은 2014년 9월 기준 향후 1년 이내입니다.

3. 「부가조사표」에는 「금융기관 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금융기관 채용계획 및 실제 채용규모」, 「금융기관 시간제 근로자」, 「금융기관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조사표의 모든 세부 항목은 남녀 인원을 구분하여 조사되었습니다.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직무별 금융인력현황조사표 및 향후 1년이내 추가채용예상 규모조사표 (1)

중분류	소 분 류	총원	고용형태		급여(만원)						연령(만)				
		임직원수	정규직(임원포함)	비정규직	2500 미만	2500 ~5000 미만	5000 ~7500 미만	7500 ~1억 미만	1억~1.5억 미만	1.5억 이상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 연구· 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 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직무별 금융인력현황조사표 및 향후 1년이내 추가채용예상 규모조사표 (2)

중분류	소 분 류	입사 후 사내 총근무기간					현직무 5년 연속 근무자	직무연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사내연수(3개월 이상)	외부연수(3개월 이상)	해외연수(3주 이상)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 연구· 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 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직무별 금융인력현황조사표 및 향후 1년이내 추가채용예상 규모조사표 (3)

중분류	소 분 류	학 력															
		고졸	전문대졸	대 졸							대학원						
				경영·회계	경제	전산	법학	인문·사회	공학	기타	MBA	경영·경제	전산	인문·사회	공학	기타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 연구· 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 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직무별 금융인력현황조사표 및 향후 1년이내 추가채용예상 규모조사표 (4)

중분류	소 분 류	어학능력(영어)			어학능력(제2외국어)			자 격 증										해외영업등취업자	해외금융기관 고무 경력자
								국가자격			변정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					
		상	중	하	중국어	일본어	기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공인	비공인	AICPA	CFA	FRM	기타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 연구· 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 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휴직자, 파견자 등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주 : 1) 금융업 직무 해설표를 참조하여 각 소분류 직무에 해당되는 인원 수를 명기
2) 정규직, 비정규직 정의는 금융인력 통계 작성 요령 참조
3) 급여는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신규인력의 경우 예상되는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직원 수를 기재
4) 근무기간의 현직무는 현직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 수를 기록
5) 직무연수는 조사시점 대비 최근 3년간의 사실을 토대로 작성
6) 직무연수의 경우 현 직무 또는 현 직무와 유사한 직무에 관련된 연수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사내' 및 '외부연수(국내)'는 3개월 이상, 해외연수는 3주 이상 이수한 직원 수를 기입
7)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은 직무연수 이수자 대상에서 제외
8) 학력의 경우 '전산'은 전자, 전산, 컴퓨터공학 및 통계학을 전공한 직원 수를 기재하고, '기타'는 인문/사회 계열 등 여타 전공을 이수한 직원 수를 명기
9) 어학능력(영어)은 TOEIC(TOEFL, TEPS의 경우 환산표 참조)을 기준으로 875점 이상을 '상', 725~875점을 '중', 725점 미만을 '하'로 평가하여 해당되는 직원 수를 기록
10) 제2외국어의 경우 각 언어별 어학능력평가시험에서 최소 등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기준으로 작성
11) 휴직자 및 파견자는 조사대상일 기준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1)

중분류	소분류	총원	고용형태		급여(만원)						연령(만)					입사 후 사내 총근무기간				
		임직원수	정규직(임원포함)	비정규직	2500 미만	2500 ~5000 미만	5000 ~7500 미만	7500 ~1억 미만	1억 ~1.5억 미만	1.5억 이상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종사자수	'13. 9월말 종사자수																			
	'14. 9월말 종사자수																			
'13.9월~'14.8월말 입직자수[1]	신규																			
	경력직																			
'13.9월~'14.8월말 이직자수	계																			
	자발적이직[2]																			
	비자발적이직[3]																			
	정년퇴직																			
	기타[4]																			
'14.9월~'15.8월말 입직자예상수[1]	신규																			
	경력직																			
'14.9월~'15.8월말 이직자 예상수	계																			
	자발적이직[2]																			
	비자발적이직[3]																			
	정년퇴직																			
	기타[4]																			

주 : 1) 동기간에 채용한 근로자수
2) 자발적 퇴직자 (정년퇴직자는 제외)
3) 고용계약종료(단기, 계절적 계약 모두 포함),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4) 사망 등
5) 조사대상일 기준
6) 정규직, 비정규직 정의는 금융인력 통계 작성요령 참조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종사자 및 이직자 현황 (2)

중분류	소분류	현직무 5년연속 근무자	직무연수			학 력													
								대 졸							대학원				
			사내연수(3개월이상)	외부연수(3개월이상)	해외연수(3주이상)	고졸	전문대졸	경영·회계	경제	전산	법학	인문·사회	공학	기타	MBA	경영·경제	전산	인문·사회	공학	기타
종사자수	'13. 9월말 종사자수																		
	'14. 9월말 종사자수																		
'13.9월~'14.8월말 입직자수[1]	신규																		
	경력직																		
'13.9월~'14.8월말 이직자수	계																		
	자발적이직[2]																		
	비자발적이직[3]																		
	정년퇴직																		
	기타[4]																		
'14.9월~'15.8월말 입직자예상수[1]	신규																		
	경력직																		
'14.9월~'15.8월말 이직자 예상수	계																		
	자발적이직[2]																		
	비자발적이직[3]																		
	정년퇴직																		
	기타[4]																		

총원변동사유 우선순위별로 최대3개선택	지난 1년간 총원 변동 사유 (, ,) 향후 1년간 총원 변동 예상 사유 (, ,) ①정기채용 ②계절요인으로증가/감소 ③단기일거리시작/완료 ④사업의확장/축소 ⑤조직개편(구조조정) ⑥인수(합병) 또는 분리(매각) ⑦동일기업내전입/전출 ⑧용역계약체결/종료명 ⑨기간제근로체결/만료 ⑩휴업(폐업) ⑪기타( )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채용 계획 및 실제 채용규모

중분류	소분류	2014년 채용계획	2014년 실제 채용규모
경영관리	경영기획·재무·회계		
	인사·총무·홍보		
	조사 연구· 리서치		
	IT 시스템 운영 및 개발		
	IT 보안		
	감사·법무·컴플라이언스		
영업· 마케팅	개인영업(소매금융, 리테일브로커)		
	기업영업(법인브로커)		
	상품개발		
	마케팅 기획· 고객관리		
영업지원	리스크관리		
	결제		
	채권추심		
자산운용	펀드(주식,채권)		
	파생상품		
	외환		
	Alternative Investment(헤지펀드, PEF)		
자산관리	신탁		
	연금		
	투자자문		
	PB		
보험	Claim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계리		
투자은행	구조화금융(ABS, PF, PBS)		
	기업금융 (주식·채권발행,IPO,RelationMgmt.)		
	M&A		
기타	기타		
총계			

주 : 1) 2013년 설문에 응한 기업의 경우 그 당시 응답한 채용 계획 규모 명기
2) 2013년 설문에 응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2014년 초 자체적인 채용 계획 규모 명기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시간제 근로자

중분류	소분류	총원	급여(만원)						연령(만)					입사 후 사내 총근무기간					학 력			
		임직원수	1000 미만	1000~2500 미만	2500~5000 미만	5000~7500 미만	7500~1억 미만	1억 이상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6개월 미만	7~12 개월 미만	13~24 개월 미만	24~60 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시간제 근로자수	'13. 9월말 종사자수																					
	'14. 9월말 종사자수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1)

구분	총원	고용형태		급여(만원)						연령(만)					입사 후 사내 총근무기간					현직무 5년 연속 근무자	직무연수		
	임직원수	정규직(임원포함)	비정규직	2500 미만	2500~5000 미만	5000~7500 만원 미만	7500~10000 미만	1억~1.5억 미만	1.5억 이상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사내연수(3개월이상)	외부연수(3개월이상)	해외연수(3주이상)
기술금융 관련종사자																							

부가조사표 - 금융기관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2)

구분	학 력														어학능력(영어)			어학능력(제2외국어)			자 격 증										해외학위취득자	외환관련 핵심기능종사자
			대 졸							대학원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						
	고졸	전문대졸	경영·회계	경제	전산	법학	인문·사회	공학	기타	MBA	경영·경제	전산	인문·사회	공학	기타	상	중	하	중국어	일본어	기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변정사자격	공인	비공인	AICPA	CFA	FRM	기타		
기술금융 관련종사자																																

주 : 1) 2014년 8월말 기준

2) 정규직, 비정규직 정의는 금융인력 통계 작성 요령 참조

2080972 / 2015-06-11 20:4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